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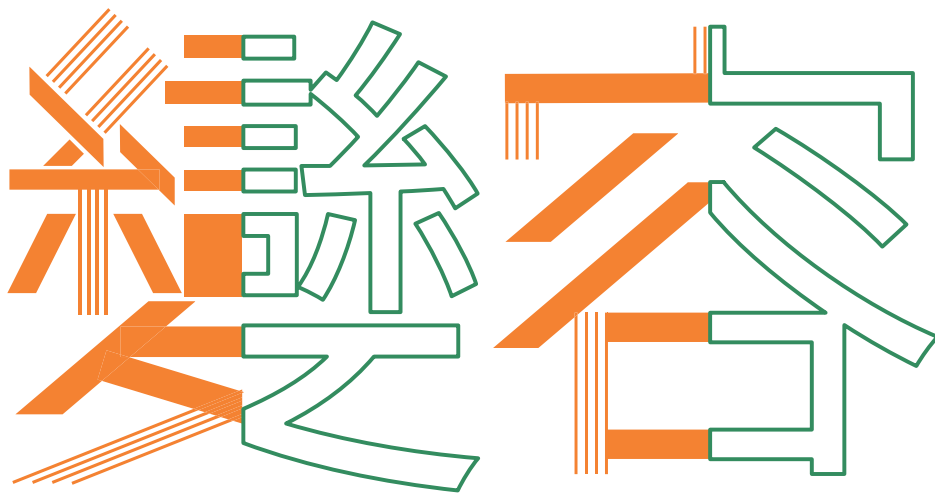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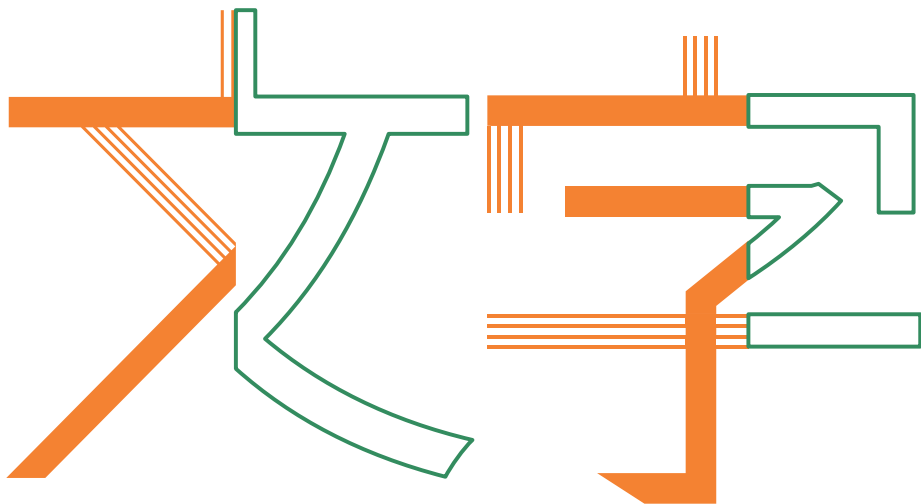
Sinographic vernacular
writing systems in East Asia



2024.2.23(Fri)
13:00-18:0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당
MoW Hall

한자
변용
문자



202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

발행일 2024년 2월 23일

발행인 김성현(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진행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교육부, 구결학회

주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구결학회

발행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www.mow.or.kr

© 2024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환 영 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구결학회와 함께 뜻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결학회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연구자분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구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세계 문자와 문화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문자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자를 통한 세계 간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의 깊이 있는 탐구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매체임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은 언어와 문자가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예입니다. 한자가 여진, 거란 등 다른 언어 체계에 적용되어 변형되고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출한 과정은, 문자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 전달과 문화적 표현의 수단으로 기능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추구하는, 문자를 통한 문화와 지식의 교류 및 다양성의 존중에 부합하는 주제입니다.

문자 전문가들이 모여 교류하는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통찰을 얻고, 이를 통해 세계 문자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술적 탐구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사명을 같이합니다. 문자를 통한 지식의 전달과 문화적 교류는 인류의 공통된 유산을 보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는 단순한 학문적 교류를 넘어, 세계 각국의 문자와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존중의 촉진, 인류애의 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결학회와 함께하는 이번 대회가 세계 문자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자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통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나누어질 지식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문적 발견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개 회 사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문자박물관·구결학회 공동 주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자박물관에서 학술단체와 함께 행하는 학술대회에 우리 구결학회가 처음으로 공동주최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성현 관장님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구결학회 회원님들과 모든 참석자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지만, 한글 이전에도 한자를 변용해 사용해 오던 유구한 문자 전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에게는 문자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이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치르는 학술대회는 이런 아쉬움을 극복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거란, 여진 등에서 한자계 문자를 사용하였거나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자표기의 연구는 이들 문자와 연관해서 이루어질 때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문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 여진문자와 거란문자의 최고 전문가인 쑨보쥔, 앤드류 시무넥 선생님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국내 참가자인 김병준 선생님께서는 목간 연구의 권위자로서 차자표기의 이두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 구결학회 회원인 이용 선생님은 차자표기를 문자론적으로 입장에서 살펴보고 해석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같이 뜻깊은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발표자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 모두가 의미 있는 학술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차자표기와 한국의 문자에 대한 이해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주
구결학회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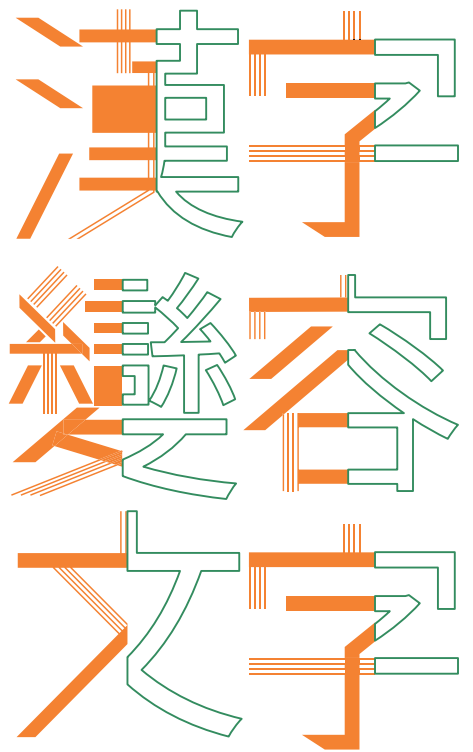
SYMPOSI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2024.2.23(Fri) 13:00-18:0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당 MoW Hall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

13:00~13:20	참가자 등록	
13:20~13:30	개회식 개회사: 김성주(구결학회 회장) 환영사: 김성현(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사회: 방민규(연구교육부장)
[기획 주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		사회: 박진호(서울대)
13:30~14:20	여진문자 비석문 및 관련 연구사 발표자: 孙伯君(중국 사회과학원)	
14:20~15:10	요(遼)나라 글쓰기의 혁신과 연속성 - 거란어(契丹語) 및 거란문자(契丹文字) 개요 - 발표자: Andrew Shimunek(한국 우송대-솔브릿지 국제경영대)	
15:10~15:20	휴식	
		사회: 김지오(동국대)
15:20~16:00	중국 출토 문자자료에 보이는 구어투 서사 - 초기 이두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 발표자: 김병준(서울대)	
16:00~16:40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발표자: 이용(서울시립대)	
16:40~16:50	휴식	
16:50~18:10	종합토론 토론자: 허인영(인하대), 문현수(인하대), 성우철(한국기술교육대), 박상철 (서울대)	좌장: 이건설(단국대)
18:10~18:20	폐회식 폐회사: 김성주(구결학회 회장)	사회: 문현수(인하대)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

여진문자 비석문 및 관련 연구사	013
孙伯君(중국 사회과학원)	
번역문	043
요(遼)나라 글쓰기의 혁신과 연속성 - 거란어(契丹語) 및 거란문자(契丹文字) 개요 - ..	069
Andrew Shimunek(한국 우송대-솔브릿지 국제경영대)	
발췌 번역문	167
중국 출토 문자자료에 보이는 구어투 서사 - 초기 이두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	175
김병준(서울대)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185
이용(서울시립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SYMPOSI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SYMPOSI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기획 주제 발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

**여진문자 비석문 및
관련 연구사**

孙伯君
(중국 사회과학원)

女真文碑铭文献及其研究概述

孙伯君

中国社会科学院民族学与人类学研究所

讲座内容

本次讲座主要有四个方面的内容：

- 1，介绍女真文及其性质。
- 2，介绍存世女真文碑铭文献及其研究概况。
- 3，介绍金代女真语的研究方法。
- 4，以《女真译语》为例，说明女真文文献对汉语研究的价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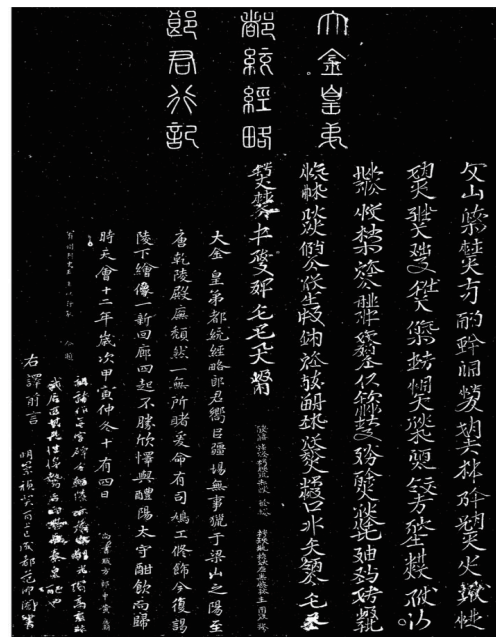
女真与金朝

- 女真族是中国北方民族中历史比较久远的民族之一，先秦称肃慎，汉至晋曰挹娄，元魏称勿吉，隋、唐谓之靺鞨，辽代为避兴宗耶律宗真讳而改称女直。
- 女真世代繁衍生息在白山黑水之间，1115年完颜阿骨打称帝，国号大金，建立了以女真族为主体的王朝，与南宋、西夏形成三足鼎立之势。金朝共历九代，延祚119年，1234年被蒙古所灭。
- 金朝灭亡后，女真族除一部分与汉、蒙古等族融合外，其中一部分成为满族的主体。皇太极出于政治上的考虑，于崇祯九年（1636）改称努尔哈赤建立的后金为“大清”，改女真族族名为“满洲”。

- 3 -

一 女真文及其文字性质

- 女真古无文字，辽代用契丹大小字和汉字书写，金朝在相当长的时间内一直沿用契丹字，直到金世宗大定年间（1161-1189）女真文才得以广泛应用。
- 存世的契丹小字碑铭有三件刻于金代。
- 《大金皇弟都统经略郎君行记》（天会十二年，1134）
- 直至金章宗明昌二年（1191），金朝国史院才罢专写契丹字者。



- 4 -

- 金朝建立后，曾创制女真大、小两种文字。
- 《金史》卷73《完颜希尹传》：“金人初无文字，国势日强，与邻国交好，乃用契丹字。太祖命希尹撰本国字，备制度。希尹乃依仿汉人楷字，因契丹字制度，合本国语，制女直字。天辅三年（1119）八月，《字书》成，太祖大悦，命颁行之。赐希尹马一匹、衣一袭。其后熙宗亦制女直字，与希尹所制字俱行用。希尹所撰谓之女直大字，熙宗所撰谓之小字。”
- 《金史》卷五十一《选举志》载：“（大定）十六年，命皇家两从以上亲及宰相子，直赴御试。皇家袒免以上亲及执政官之子，直赴会试。至二十年，以徒单镒等教授中外，其学大振。遂定制，今后以策、诗试三场，策用女直大字，诗用小字，程试之期皆依汉进士例。”

-5-

女真文字的性质

- 女真大字是金太祖命完颜希尹、叶鲁等创制的，于天辅三年（1119）颁行；女真小字是金熙宗创制，于天眷元年（1138）颁行，《金史》“其后熙宗亦制女直字，与希尹所制字俱行用”。
- 从现存女真文碑铭与《女真译语》来看，金代并未出现像契丹大、小字那样两套划然有别的文字体系，所以存世女真文究竟是大字还是小字，两种文字从文字学角度看是表意还是表音，学界一直没有一致的结论。

-6-

- 早期中外女真文研究者如葛鲁贝、白鸟库吉、李盖提等均称存世女真文为女真小字，但那只是沿袭刘师陆对“宴台女真进士题名碑”的误断。
- 金光平《从契丹大小字到女真大小字》一文从契丹大、小字的性质入手，明确说现存的女真文字是女真大字，并据《金史》卷五十一《选举志》的有关记载，结合现存女真文不适合写诗及契丹小字适合做诗押韵的特点，推测女真小字是依契丹小字所制的一种音节字母连缀成文的文字。
- 1976年，金代“国之诚”银牌在俄罗斯滨海地区的赛金古城发现，银牌上文字书写形式上与契丹小字相近，每个词语构成一个书写单位，助词和语法形式单独书写，似乎印证了金光平先生的推测。
- 20世纪80年代，“奥屯良弼诗刻石”在山东蓬莱阁被发现，尽管书写形式与“国之诚”银牌一样，但并非如人们预想的是一种与现存女真文有所不同的文字体系，从而又促使人们反思此前关于女真大、小字性质的论述。

- 7 -

对女真文性质的认识可分为三种观点：

- 一种认为现存文字为女真大字，持这种观点的学者以金光平、金启琮、乌拉熙春为代表，他们认为世界上没有任何文字属于“纯意字”的范畴，存世女真文字既包含意字又有音字，其中表音文字主要用于充当表意文字的词末音节或词缀音节，这种文字形式乃女真大字。而女真小字应具有契丹小字类似的特点，以表音为主，表意为辅。依据乌拉熙春的研究，女真小字的材料很少，仅包括三个符牌（即承德金银符牌、伊春金符牌和德惠银符牌）。
- 第二种观点认为现存文字为女真小字，女真大字是纯表意文字，而女真小字是在表意文字基础上增加许多表音字而形成的意音结合的文字，存世的女真文即女真小字。以道尔吉为代表。
- 第三种观点认为现存文字是大字和小字混杂在一起的文字体系，表意文字是大字，表音文字是小字，所谓熙宗小字实际上是增加女真字表音成分和词缀的一种文字改革，以和希格为代表。

- 8 -

- 作为文字系统，存世的契丹小字和女真字记录语言的方式有很大的区别，契丹小字是音节文字，虽然受制于仿汉字的字形，契丹小字并没有改进为像回鹘文一样的纯辅音文字，且仍保留了一些像皇帝、皇后等表意字，但它属于表音文字系统是毫无疑问的。
- 存世女真字则是一种表意的大字和表音的小字相结合的文字，熙宗所制女真小字，只有表音的词缀和语法附加成分，就像日文的假名一样。

- 1, 有很多记录词干的女真大字已经被表音字替换，且这些表音字不是固定不变的；
- 2, 很多表意大字经过同音假借，也变成了纯音节文字。说明在记录女真语的过程中，表意字还有转化为表音字的趋势。
- 尽管从体系上说现存女真文还不是纯音节文字，但有非常明显的向音节文字过渡的倾向。

(c) 史 bə, 处置格后置词, 还可用作纯表音字。

女真文	女真语(拟)	汉义
𐰚𐰍𐰏𐰤𐰏𐰤	ɕʰao-la-mai weila-bə	奏事
𐰚𐰍𐰏𐰤	ɕʰisu-ra ərə-bə	作歹
𐰚𐰍𐰏𐰤𐰏𐰤	xəlsə bə dondi-lu-sui	闻言
𐰚𐰍	bə-xə	墨
𐰚𐰍𐰏	əxə-bə nialma	恶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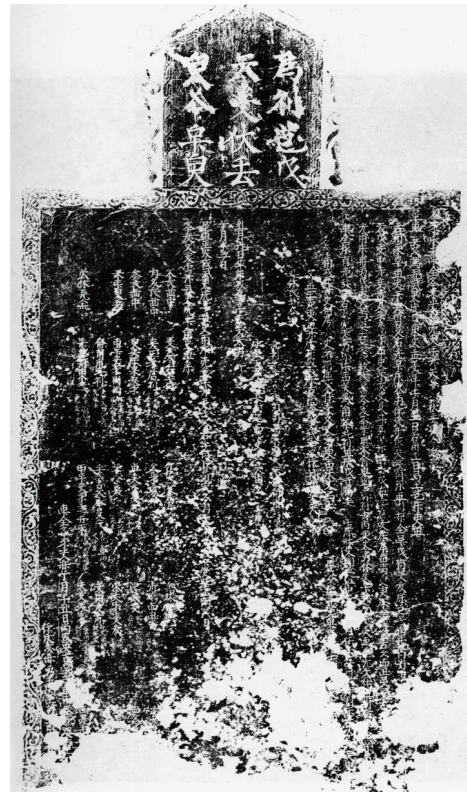
二 存世女真文碑铭文献

- 现存女真文资料按照载体可分为三类：碑铭、文献、牌印墨迹等。
- 女真文碑铭主要有10余种：
- 1. “大金得胜陀颂碑”，刻于金大定二十五年（1185）。发现于吉林省松原（扶余县）徐家店乡石碑崴子村。
- 共存女真文1500余字，为现存女真文字数最多的石刻。



- 11 -

- 2. “女真进士题名碑”，又称“宴台女真国书碑”，刻于金哀宗正大元年（1224），共存1100余字。发现于河南开封曹门外宴台河，曾存于开封市文庙，现存开封市博物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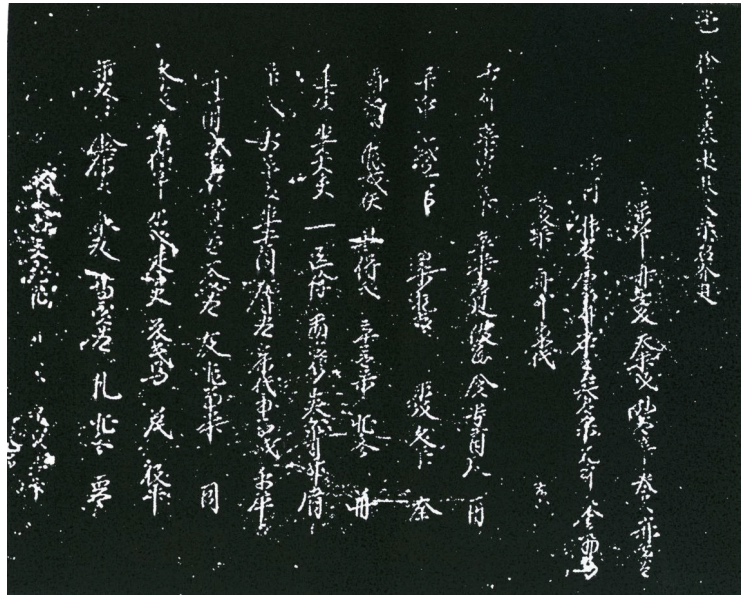
女真文：馬剌迭兒 矢斐 伏丟 史本阜史

对译：进士 的 名 录 刻 石

译文：进士题名碑

- 12 -

- 3. “奥屯良弼诗碑”，碑刻年代不详，正反面刻一行女真文，正文为行书，上下款各一行，共27字；正反面刻一行女真文，正文为行书，上下款各一行，共27字；正反面刻一行女真文，正文为行书，上下款各一行，共27字。
- 此碑为现存唯一一石七言律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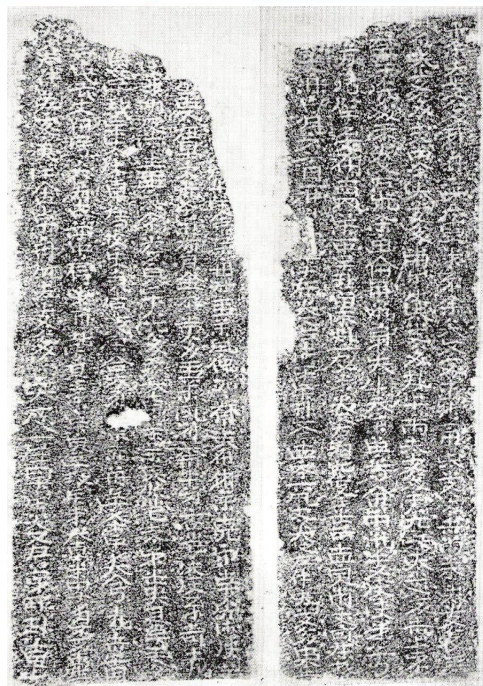
- 13 -

- 4. 奥屯良弼钱饮碑
- 亦称“泰和题名残石”。
- 罗振玉旧藏，现藏中国历史博物馆。碑高85厘米，宽67厘米，碑心为奥屯良弼汉文题字，书于泰和六年（1206）；左侧有3行60余女真字，为奥屯良弼友人卜修洪所书之跋，书于金大安二年（1210）。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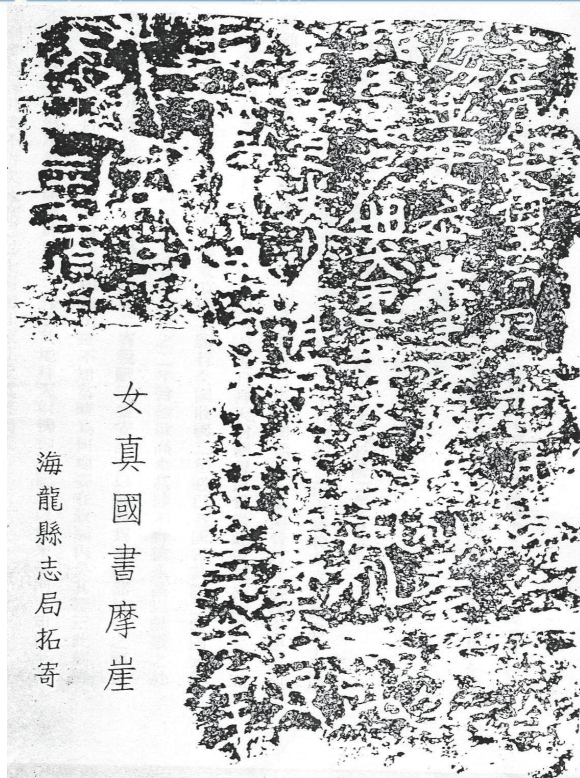
- 5.庆源郡女真国书碑。1918年发现于朝鲜咸镜北道庆源郡东原面禾洞，1918年移到首尔（汉城）博物馆。
- 碑折为两段，仅存下段，所存部分高194厘米，宽58厘米，碑身四面刻女真文，无汉字译文，第一面7行，200余字，第二面4行，存50余字，全碑存有女真文五百余字。
- 此为修建佛寺的功德碑。1919年《朝鲜金石综览》上卷收有此碑拓片，1943年安马弥一郎《女真文金石志稿》（日本京都碧文堂，油印本）收有录文。



朝鲜庆源郡女真国书碑（第三、四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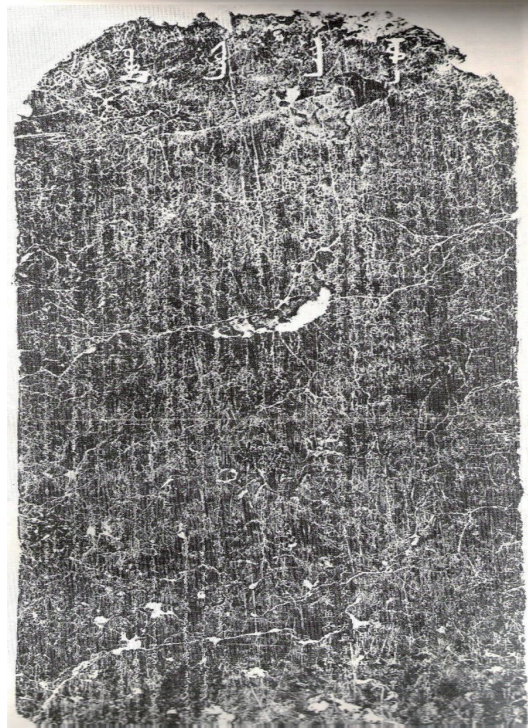
- 15 -

6.海龙女真国书摩崖
发现于吉林省海龙县（现梅河口市）小杨乡庆云堡村北半截山南坡。全部是女真文。金光平、金启琮认为刻于金大定七年（1167）。字面高200厘米，宽110厘米，共8行，存99字。



- 16 -

- 7. 奴儿干永宁寺碑。原立于俄罗斯境内黑龙江下游东岸特林地方，后被沙皇俄国移至海参崴博物馆。建于明成祖永乐十一年（1413），高180厘米，宽85厘米，阳面刻汉文，额题“永宁寺记”；碑阴刻女真文、蒙古文各15行，约有女真字700余，为碑阳汉文的节译。两侧用汉、女真、蒙古、藏文四体文字书“唵嘛呢叭弥吽”六字真言。



- 17 -

- 8. 蒙古国九峰石壁纪功碑。1986年发现于蒙古国肯特郡巴彦霍特克县的九峰石壁。首次报道见于发现者之一苏密亚巴托所著的《元朝秘史》一书。此碑刻于金章宗明昌七年（1196），存女真字140余。日本人加藤晋平曾根据《女真文辞典》对碑文第一、二行做过解读。考古学者白石典之在1991年曾对此碑做过实地勘查，并在离此碑20米处发现了一块内容一致的汉文碑。两块碑所记载的都是金章宗时期由完颜襄率领的金国军队在斡里札河大胜阻卜的一次重要战役，与《金史》卷94《内族襄传》的记载正相合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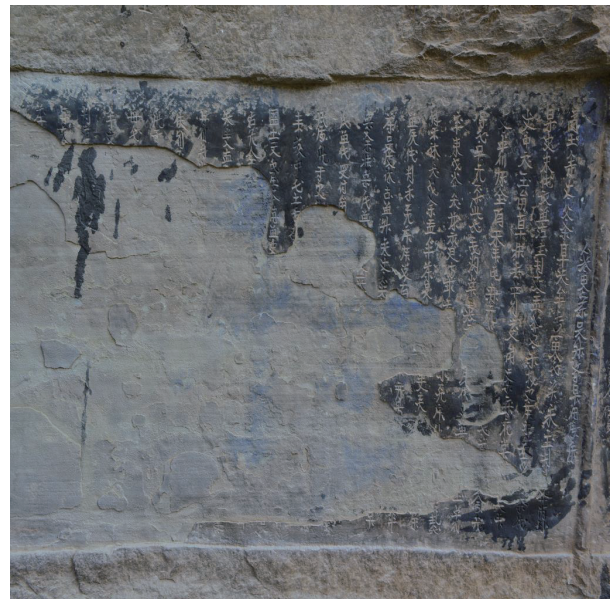
白石典之的摹写和解读

1	各米为多受斥土園土右牟登外夷戎序 大 中央 金 国 尚 書 右 丞 相
2	廐至东央冰尚办吏隶朴王岑奈用伐序 開 府 儀 同 任國公 宗室(tonqi勃極烈)襄
3	系初龙吞夷右月系莽月比史并亮亮亮 敕 聞いて 悪事を働いた狂気みじた 北 屯 卒 を
4	畔序乘斥金芭空利禾龙尿尚元其何米办号 討て 直後 軍隊 夜 出発し alahumaki han file
5	杀号吏戎友隶金半库度良元拘率土序拘 niau ori lai baisur oqil galma subulun darasu
6	反奎茶尔系尖爱条炎茶府戎序压累全 など 地方 を(通つて)明け方にurisa 河 の 峰 (近く)
7	禾平屯序序全艾氏府卓写□可龙金芭 残余 河に 得て 軍隊
8	予先兩茂政笈把央父序平外子系予月 日 凱旋したまさにその時 明 昌 七 年 六 月 日
9	北刈系茶南丘月五受乘吏 行 山 を sarbin haiga と 称する

-19-

9.神木县花石崖女真文石刻

- 位于陕西省榆林市神木县南60公里花石崖镇的一处崖窑的外壁，2015年始为学界所知。该崖窑曾在明代被辟为清凉寺石窟。
- 其右侧有大小形制相同的汉文题刻，刻写于金正大五年（1228）。
- 从女真文所述内容看，当与汉文石刻同时刻写。但两方题刻并非互译关系，女真文题刻更像是颁给弥川县丞的一道圣旨。该题刻是国内在西安以北的古代金、夏边境首次发现的女真文文物。对金末女真文的使用以及金元交替时期的历史有所补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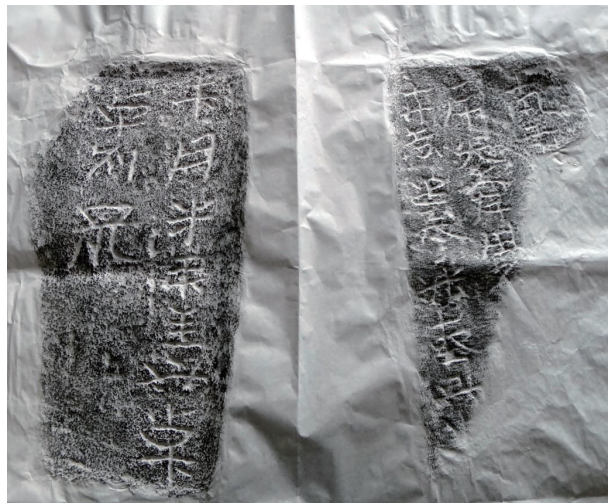
- 20 -

10.阿尔哈拉河女真文墨书题记。2003年，阿穆尔国立大学教授安德烈-帕夫洛维奇-扎比亚卡（A.P. Zabyako）在对阿尔哈拉河流域岩画进行实地考察时，发现了女真文墨书题记，2014年至2018年又进一步对其进行了考察，经与乌拉熙春合作考证，认为这些文字刻于1127年，是迄今发现最早的在阿尔哈拉河沿岸的文字样本。其内容揭示了金帝国时代女真迁徙的历史，以及他们在东亚以及东北亚相邻区域的文化传播过程。



- 21 -

- 11.黑龙江省宁安市出土女真文残碑。
- 左面“四月朔戊申七于”，即四月初七，是墓主人下葬的日期。
- 金代四月初七为戊申日的只有两年，一是金天会三年（1125），二是金明昌三年（1192）。碑刻时间很可能是1192年。
- 爱因失里，可能是立碑人的名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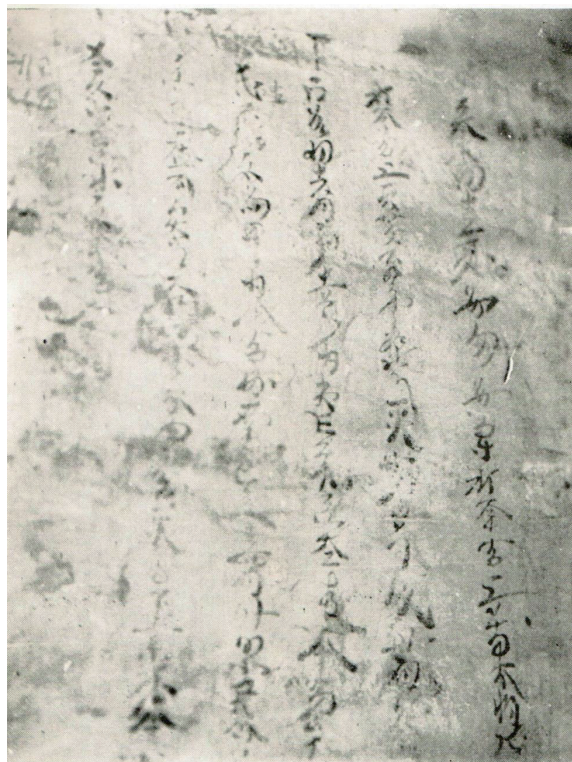
- 22 -

12. 呼和浩特武川县西乌兰不浪镇磁窑村金界壕磁窑边堡新发现女真文钵底墨书“祥瑞”，音“撒必”。



— 23 —

13. “白塔女真文题记”，位于呼和浩特市东郊的万部华严经塔内，大概有6行。



— 24 —

14.“国之诚”银牌
， 1976年发现于
俄罗斯滨海地区
的赛金古城，第
一字为御押。
女真文汉义为“国
之诚”（《女真译
语》 注音：国伦
你 哈达温）。



— 25 —

女真文文獻

- 1. 《女真译语》
- 2. “西安碑林女真文书残页”。
- 3. “圣彼得堡藏女真文书残页”。

—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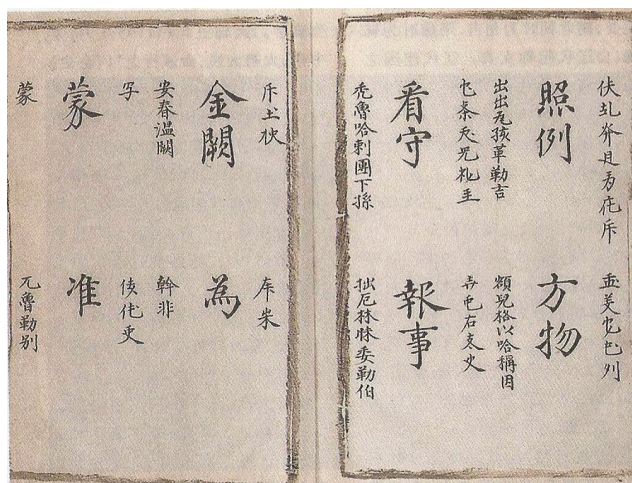
明代四夷馆编纂的《女真译语》

- 明清两代的中央政府均设有联络、接待外国及中国少数民族地区往来信使的专门机构，明代称作“四夷馆”和“会同馆”，清代合称“四译馆”。这两个政府机构出于日常翻译参考和培养生员的需要，曾经编写过一批汉语和外国语或中国少数民族语对译的辞典，有的书中还附有政府公文的对译样本。这批辞典被后世统称为“华夷译语”。
- “华夷译语”系列资料存世较多，可分为甲、乙、丙、丁四种：
- 甲种本即明洪武二十二年（1389）火源洁等编定的汉语与蒙古语对音本《华夷译语》。
- 乙种本包括明永乐五年（1407）开设鞑靼、女直、西番、西天、回回、百夷、高昌、缅甸八馆后所译的译语，如记录蒙古语的《鞑靼译语》、记录回鹘语的《高昌译语》、记录女真语的《女真译语》即属此种。
- 丙种本是明会同馆编纂的，记录女真语的《女直译语》属此种。
- 清代“四译馆”编纂的各种译语一般被称为丁种本。
- 现存全部“华夷译语”有80余种，其中涉及中国境内的少数民族语言的有50余种。这些文献可以认为是明清两代编纂的“语言简志”或“双语字典”。我们可以根据明代编纂的“译语”中的民族文字和对音汉字，通过总结其中的对音规律，系统研究明代北方汉语音系。

- 27 -

• 《女真译语》

- 乙种本《女真译语》由明代四夷馆编辑，分“杂字”和“来文”两部分，“杂字”为女真语和汉语对译词汇集，每个词包括汉字对音、女真文和汉义三部分。“来文”则是移录当时进贡的表文。
- 根据明永乐五年（1407）设立四夷馆的最初八个馆就有女真馆这个情况，乙种本《女真译语》的成书时间离设馆时间应该不远，人们也因此称此译语为“永乐译语”。
- 丙种本《女直译语》是明会同馆设立后编纂的，学界一般称其为“会同馆译语”，由于此译语是用于供通事们做口译，所以只有汉字注音和汉义，没有女真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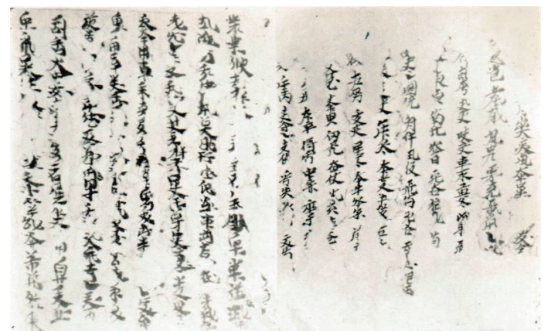
- 28 -

宁波天一阁藏明代《女真译语》



- 29 -

- 西安碑林女真字书残页
- 女真文字书手抄残页。1973年陕西省文管会、博物馆在西安碑林石台孝经的卯眼内发现，整理得11件残页，大片高21厘米，宽45厘米，其中4页两面书写，7页单面书写。11页共有女真字237行，约2300余字。
- 刘最长、朱捷元曾以《西安碑林发现女真文书、南宋拓全幅集王〈圣教序〉及版画》（《文物》1979年第5期）为题做了报道。金启琮《陕西碑林发现的女真字文书》（《内蒙古大学学报》1979年第1期）根据其内容颇似汉字启蒙读物，推测为金代《女真字书》的抄写习作。



-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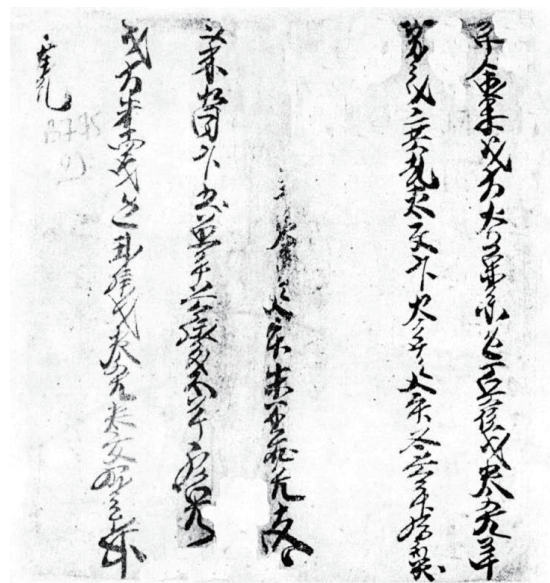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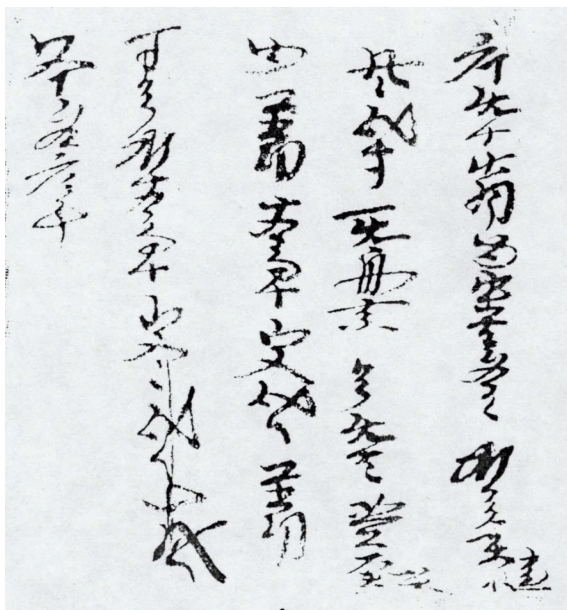
• 圣彼得堡藏女真文草书残页。

- 1968年，西夏学者克恰诺夫在翻检俄罗斯科学院东文献研究所收藏的西夏文手抄本残页时，发现两叶女真文草书残页。根据残页的状态可判断曾是某种通古斯书的封面，其中编号3775-1的残页面积为15.3X16.5，存女真字六行半；编号为3775-2的残页面积为14.2x16.5，存女真字五行半，在其背面用汉字书写西夏神宗年号“光定七年七月十六日”（1217年）。两残页共存女真字130余。
- 后来克恰诺夫又陆续发现了几叶残片，史金波先生曾把照片转赠给我。
- “泰和七年”（1207）和大安三年（1211）年号，记载的是这一期间发生的历史事件。

圣彼得堡藏女真文草书残页1



圣彼得堡藏女真文草书残页2-3



明王世贞《弇州山人四部稿》正稿和明万历年间方于鲁《方氏墨谱》上载录的女真文墨锭，为“明王慎德，四夷咸宾”八个汉字的女真文译文，女真字两行14字。



- 33 -

三 女真文文献研究概况

- 1829年，刘师陆《女直字碑考》首次对“宴台女真进士题名碑”进行研究，可惜误推此碑为女真小字碑。
- 刘师陆于1833年又撰作《女直字碑续考》，由《女真进士题名碑》为女真小字，推认乾陵无字碑上实为契丹小字的《大金皇弟都统经略郎君行记》为女真大字，导致一错再错。
- 国外女真语文研究始于英国人伟烈（A.Wylie）《古代女真文石刻》（On an Ancient Inscription in the Neuchih Languag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VII, pp.331-345, 1860），但这篇文章是对居庸关石刻中的西夏文的误读。
- 女真文献研究的真正开拓者是德国的葛鲁贝（Wilhelm Grube），他于1896年撰作《女真语言文字考》（*Die Sprache und Schrift der Jucen*, Leipzig, 1896），对柏林本《女真译语》率先做了分类、考订和标音，激发了学界尤其是西方语言学界对女真语研究的兴趣。

- 34 -

- 20世纪初，国内女真文研究的代表人物是罗福成，他从20年代开始搜集女真文碑铭文献并发表了考释及研究文章，有：
- 《宴台金源国书碑考》（《国学季刊》1卷第4期，1923年）
- 《宴台金源国书碑释文》（《考古》1926年5期）
- 《女真国书碑考释》（《支那学》5卷第4期，1929年）
- 《女真国书碑跋尾》（《国立北平图书馆月刊》3卷第4号，1929年）
- 《女真国书碑摩崖》（《东北丛刊》1930年第3期）
- 《奴儿干永宁寺碑补考》（《满洲学报》1937年第5期）
- 《明奴儿干永宁寺碑女真国书图解》（《满洲学报》1937年第5期）。
- 辑录了《女真译语正·续编》，上册全录柏林本《女真译语》“杂字”，下册搜录“来文”79通，为研究《女真译语》提供了一个较为精审的本子。
- 王静如《宴台女真文进士题名碑初释》（《史学集刊》1937年第3期），对《女真进士题名碑》做了考释，获得了学术界的盛赞。
- 田村实造《大金得胜陀碑之研究》，与王静如论文并称为“女真译文之双璧”。

- 匈牙利学者李盖提（Louis Ligeti）也是这一领域应该特别提及的人物，他的《简论女真小字的解读》（Note préliminaire sur le Déchiffrement des “petits caractères” Joutchen. *Acta Orientalia Hungariae*. III, pp.211-228, 1953.）在葛鲁贝的基础上，提出了女真文解读的方法和原则，颇具指导意义。
- 韩国李基文于1958年发表《中古女真语的音韵学研究》，利用历史比较法，综合通古斯其他语言的语音特征，拟订《女真译语》辅音及元音系统，对《女真译语》译音汉字进行音韵分析，确定所代表的音值，从而验证并得出中古女真语的语音情况。
- 李基文《中古女真语的音韵学研究》原载于《汉城大学论文集》人文社会科学7，1958年10月，黄有福译文载于《民族语文研究情报资料集》1984年第3期，中国社会科学院民族研究所语言室编。

- 女真语言文字研究在国内取得长足进展是以金光平、金启琮《女真语言文字研究》（《内蒙古大学学报》1964年第1期专号）的问世和《女真文辞典》（文物出版社，1984年）的出版为标志的。
- 《女真语言文字研究》不仅总结了前期有关女真文资料的研究成果，还充分利用这些资料对女真语语音、语法和文字的构成做了翔实的分析，堪称一部关于女真语文研究的扛鼎之作。
- 《女真文辞典》则以词典的形式，汇集了《女真译语》及碑铭所涉及的女真文字和词汇，每一字除了详尽地注明出处外，还分析了字形、字源，极大地方便了女真文献研究。

- 日本的研究主要也是侧重通过《女真译语》解构女真语言文字，最有代表性的论文是美籍日本学者清濑义三郎则府《女真音的构拟》，此文选择明代万历三十四年（1606）徐孝所著的《重订司马温公等韵图经》作为汉字的语音基础，构拟明代女真语的音韵体系，然后依据历史语言学方法，对金代女真语音进行推定。
- 清濑义三郎则府在此文基础上于1977年出版《女真语言文字研究》对永乐《女真译语》进行了全面研究。

- 女真语研究80年代后逐渐走向深入，道尔吉、和希格的《〈女真译语〉研究》（《内蒙古大学学报》增刊，1983年）在前人基础上系统而全面地研究了《女真译语》的“杂字”、“来文”，其中“杂字”部分的研究，根据《女真译语》对音汉字归纳了明代女真语的语音系统，使人们基本清楚了女真语的语言面貌，代表了80年代女真语研究的前沿水平。

- 这一时期国外女真文献研究的佼佼者是澳大利亚康丹（Daniel Kahe），他著有《明会同馆〈女真译语〉研究》（*The Sino-Jurchen Vocabulary of the Bureau of Interpreters, Indian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Bloomington, Indiana, 1989*），此书不仅对会同馆《译语》做了较为全面的分析，还对整个女真文献及相关研究情况做了全面的介绍，是80年代末国外女真文研究方面一部难得的力作。

四 金代女真语及其研究

- 女真语属于阿尔泰语系满通古斯语族古代语言，是满语的祖语。
- 清代学者早就开始用满语来校订考证金代女真语。乾隆年间（1736-1795），清朝人就已对史籍中记载的女真语人名、姓氏、地名及部落名所蕴涵的词义参证满语做了考证，代表性的著作是乾隆三十九年（1774）的《日下旧闻考》、乾隆四十二年（1777）阿桂撰作的《满洲源流考》、乾隆四十七年（1782）编订的《钦定辽金元三史国语解》中的《金史国语解》等。后者广泛搜集《金史》中用汉字标音的人名、地名等专有名词，用当时的满语考证译语对音，推求词义。

- 41 -

金代女真语研究方法

- 一 语音逆推法，以道尔吉、和希格《〈女真译语〉研究》和清濑义三郎则府《女真音的构拟》为代表；
- 二 音位拟定法，以李基文的《中古女真语的音韵学研究》为代表。
- 三 音韵分析法，孙伯君《金代女真语》运用这种方法。

- 42 -

语音逆推法

- 语音逆推法一般分两个步骤：
- 首先，分析明代语料，主要是《女真译语》，通过对其注音汉字进行音值的复原和构拟，参证满语语音规律，拟订明代女真语音的元音和辅音系统；
- 其次，分析《金史·国语解》所收之金代女真语汇的对音汉字，与明代女真语音加以比较，逆推金代女真语的语音系统。
- 这种方法以道尔吉、和希格《〈女真译语〉研究》和清濑义三郎则府《女真音的构拟》为代表。

— 43 —

音位拟定法

- 音位拟定法也可分为两个步骤：
- 首先，根据与阿尔泰语系其他古代语言及满—通古斯语族现代语言的比较研究，设定明代及古代女真语的音位体系，然后依据对《女真译语》等明代文献资料和《金史·国语解》的对音汉字所做的语音分析，逐一检验拟订的辅音及元音系统，从而得出明代乃至金代女真语的语音规律。
- 这种方法以李基文的《中古女真语的音韵学研究》为代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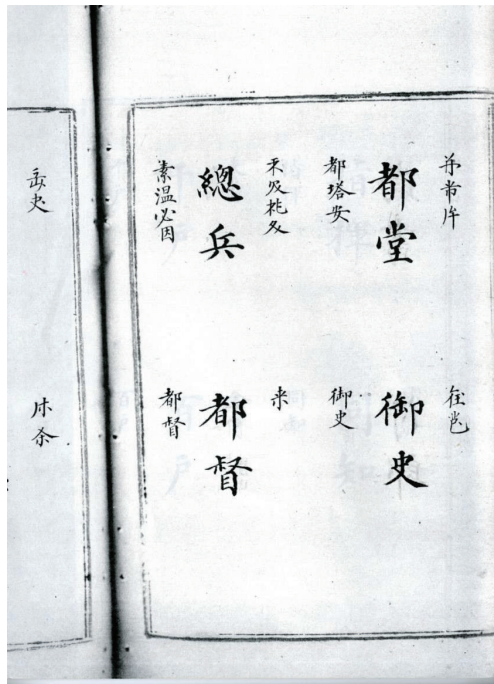
— 44 —

- 1, 《金史》“谋克之副”义“蒲里演”，与满语feniyen相当，赫哲语“辅助”义bolaci，“蒲里演”又对译为“拂涅”，说明金代女真语已经有*p->f-演化的迹象。由此可推知，女真语*p->f-的规模性演化应该是在元代或元代以后。
- 2, 中古女真语与近代女真语的区分可以*ti>*či、*di>*ji的演变为标志，这种演化明代女真语尚未发生，李基文认为满语*ti>či的演化发生在中古女真语之后，满语书面语产生之前，即16世纪前后。道尔吉在考察了《大金喇嘛法师宝记》碑文之后，认为在清初的满语里已经发生*di>ji的演变。

音韵分析法

- 1、搜集《金史·国语解》以及各种宋元史籍中的女真词语。
- 2、搜集《金史》及宋元其他史籍中用汉字译音的女真人名、地名。
- 3、对所搜集的女真人名进行会注，利用《金史·国语解》、宋金元历代笔记、明代包括《女真译语》在内的语言文献资料、清代关于女真语汇的源流考证、清代现代满语、满语人名汉义、女真人本族名与汉名之间的语义关联等考证女真人名语义。
- 4、对所选词语的全部对音汉字做音韵学分析，声母按照它们的发音部位归类，韵母按其等呼。拟音主要依照元代周德清《中原音韵》，同时参考《蒙古字韵》《元朝秘史》等书的对音进行调整，归纳出汉语译音字和金代女真语的对应规律，在此基础上得出金代女真语语音的辅音与元音系统、音节搭配规律等等。

五 《女真译语》对汉语北方话研究的价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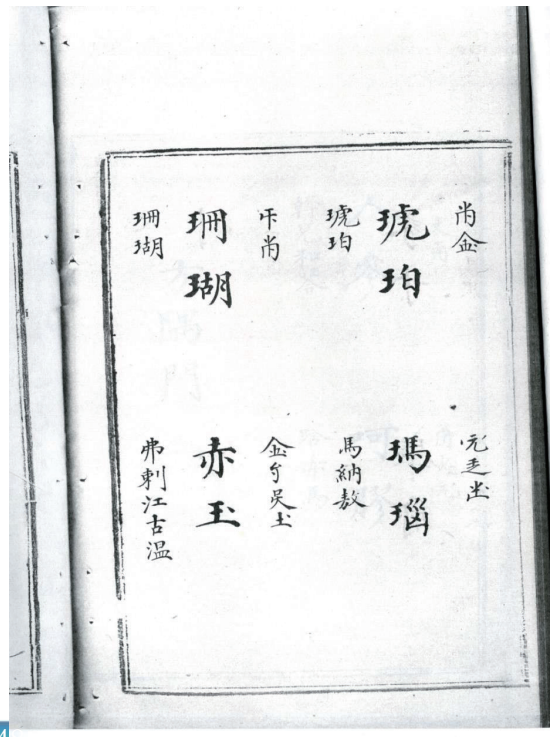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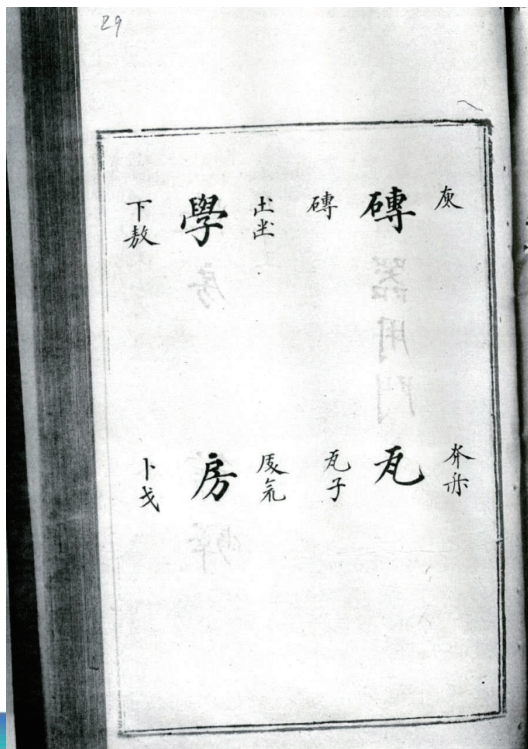


《女真译语》对音汉字中有用 -n 对 -ŋ 的现象，如汉语“堂”，对音汉字作“塔安”；“厅”对音汉字作“替因”；“侍郎”对音汉字作“侍刺安”；“都统”对音汉字作“都塔安”；“总兵”对音汉字作“素温必因”。

尽管《女真译语》为明代所编，但这些词借入女真语的时间应该早于明代。

- 47 -

《女真译语》



- 48 -

女真译语对音

汉语借词	声韵地位	对音汉字	所在门类、词语
堂	定唐开一平宕	塔（透盍开一入咸）安	宫室门：堂
郎	来唐开一平宕	刺安	人物门：侍郎
昌	昌阳开三平宕	察（初黠开二入山）安	人物门：高昌
香	晓阳开三平宕	下（匣马开二上假）安	器用门：香
厅	透青开四平梗	替（透霁开四去蟹）因	宫室门：厅
兵	帮庚开三平梗	必（帮质开三入臻）因	人物门：总兵
重	澄鍾合三平通	出（昌术合三入臻）温	时令门：“重阳”
龙	来鍾合三平通	鲁温	鸟兽门：蟒龙
统	透宋合一去通	塔（透盍开一入咸）安	人物门：都统
总	精董合一上通	素（心暮合一去遇）温	人物门：总兵

- 49 -

子	精止开三上止	撒（心曷开一入山）	鸟兽门：骡（子）
蓝	来谈开一平咸	刺安	声色门：蓝
勘	溪勘开一去咸	克（溪德开一入曾）安	通用门：勘合
麟	来真开三平臻	里因	鸟兽门：麒麟
学	匣觉开二入江	下（匣马开二上假）敖（疑豪开一平效）	宫室门：学
瑙	泥皓开一上效	纳敖（疑豪开一平效）	珍宝门：玛瑙
皂	从皓开一上效	子（精止开三上止）敖（疑豪开一平效）	声色门：皂
骡	来戈合一平果	老（来皓开一上效）	鸟兽门：骡
斗	端厚开一上流	头（定侯开一平流）	天文门：“五斗”
翠	清至合三去止	出（昌术合三入臻）卫	声色门：翠
开	溪哈开一平蟹	克（溪德开一入曾）哀（影哈开一平蟹）	通用门：开
规	见支合三平止	圭（见齐合四平蟹）因	通用门：学规

- 50 -

- 1.汉语宕、梗、通摄字的韵尾-ŋ用-n替代
- “堂”“郎”“昌”“香”“厅”“兵”“重”“龙”“统”“总”等读同“安”“因”“温”等。参考共同蒙古语-ŋ一般出现在舌面后q、k、ɣ、g之前，并只出现在音节末和词末，蒙古语一些方言-ŋ还异化为g、m、n，可推知中古女真语-ŋ收声音节也不够丰富。
- 2.汉语江摄入声韵尾-k用元音-u替代
- “学”，注音汉字是“下敖”，“敖”是“效”摄字，可知女真人把“学”的入声韵尾-k读作-u。
- 3.擦音s-替代汉语塞音ts-和tsh-
- “总兵”，注音汉字“素温必因”，其中精母字“总”的声母用心母字“素”对音；精母字“子”用心母字“撒”对音。同时，女真文，既用于表示汉语精母字“子”（瓦子）、从母字“皂”的声母，又可用于为“都司”的“司”标音。据此，可知中古女真语齿音只有s-。
- 4.汉语双元音au、ui、ai等借词，《女真译语》用两个汉字注音，同时用两个女真字表示，并有时用uo替代汉语au。

- 51 -

- 辽寿昌四年（1098）沙门方偁撰写的《易州兴国寺太子诞圣邑碑》：
 - 清净法界，无视无听。应根示现，有形有**声**。欲酬宿愿，拟利含**灵**。历阎浮界，居迦毗**城**。金团选处，净饭所**生**。九龙沐体，七步莲**英**。箭堕箭井，象没象**坑**。足履四门，目视三**屯**。私离万乘，逾城五**更**。苦行六年，克果三**身**。根应万类，教设五**乘**。化缘将息，跋水归**真**。
 - 这首铭词的押韵字大多属于梗摄，但“乘”属于曾摄，“屯”、“身”、“真”属于臻摄。按规则梗摄（*e）曾摄（*ə）和臻摄（*ən）是不能在一起押韵的，这里三摄通押，透露出辽人实际上把它们韵母都读作ə 或en。

- 52 -

- 《辽史·国语解》记载“挾领”作“挾林”，并释曰：“挾林，官名。后二室韦部改为仆射，又名司空。”可知辽代北方话“领”、“林”不分。又据余靖《武溪集·契丹官仪》记载：“其东北则有挾领相公，掌黑水等边事。”原注：“胡人呼‘挾’字如‘吞’字，入声，‘领’音近‘廩’。”可知契丹人可能把北方汉语的-n与-m等韵尾相混了。

-
- 汉字的八思巴文和契丹小字标音显示，北方官话的语音特征在辽代汉语中已然确立，带-k入声音节复元音化，-k读作-u，如为宕摄入声字“略”、“药”标音的契丹小字韵母均有，而这两个原字同为效摄字“尧”、“赵”、“少”的韵母标音。
- 《女真译语》“宫室门”之“学”，注音汉字作“下敖”，“学”（匣母江摄二等入声字），中古时韵尾作-k，“敖”是“效”摄字，韵尾作-u，“学”读作“下敖”，说明汉字“学”的韵尾-k在口语中读作了-u。

- 辽《重修白带山云居寺碑》押韵字有：“哀才灰开回月哉来”，《耶律庆嗣墓志》押韵字有“阙大”，“月”和“阙”两个山摄入声字与蟹摄一二等字相押，其读音应该是变读作-ai，而“月”和“阙”等山摄入声字在实际北方汉族口语中即使在韵尾-t脱落之后也是没有读作-ai。
- 说明带-t入声音节在辽代北方汉语中复元音化了，即-t读作-i。
- 此外，“德”、“国”等带-k尾德韵入声字也有复元音化读作-i的情况。

— 55 —

- 谢谢大家！

— 56 —

<번역문>

[1면]

여진문자 비석문 및 관련 연구사

손백균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인류학연구소

[2면]

발표 내용

1. 여진문자와 그 성격
2. 현존 여진문자 자료
3. 여진문자 문헌의 연구 현황
4. 금나라 시기 여진어와 그 연구방법
5. 여진문자 문헌이 중국어사 연구에 대해 가지는 가치: 『女眞譯語』를 중심으로

[3면]

여진과 금나라

- 여진이란 중국 북방 민족 중 그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 역사에서 先秦 시기에는 肅慎이라고 불렸고, 漢나라와 晉나라 때는 挹婁라고 불렸으며, 元魏(=北魏) 때는 勿吉, 수나라와 당나라 때는 靺鞨, 요나라 때는 興宗 耶律宗眞의 피휘를 위해 女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오래전부터 중국 북방 白山黑水¹⁾ 지역에서 살아왔으며, 1115년에 完顏阿骨打에 의해 여진을 중심으로 한 大金 정권이 수립되었다. 당시 금나라는 남송, 서하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세력을 갖추었다. 금나라는 모두 9대에 걸쳐 황제를 계승하며 119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1234년 몽골에 의해 멸망하였다.
- 금나라가 망한 후 여진 민족의 일부는 주변 한족, 몽골족 등의 다른 민족과 융합되었으며, 남은 일부는 이후에 滿族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崇禎 9년(1636) 皇太極(1592-1643)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누르하치(1559-1626)가 세운 後金 정권의 명칭을 大清이라고 바꾸고 민족의 명칭도 滿洲族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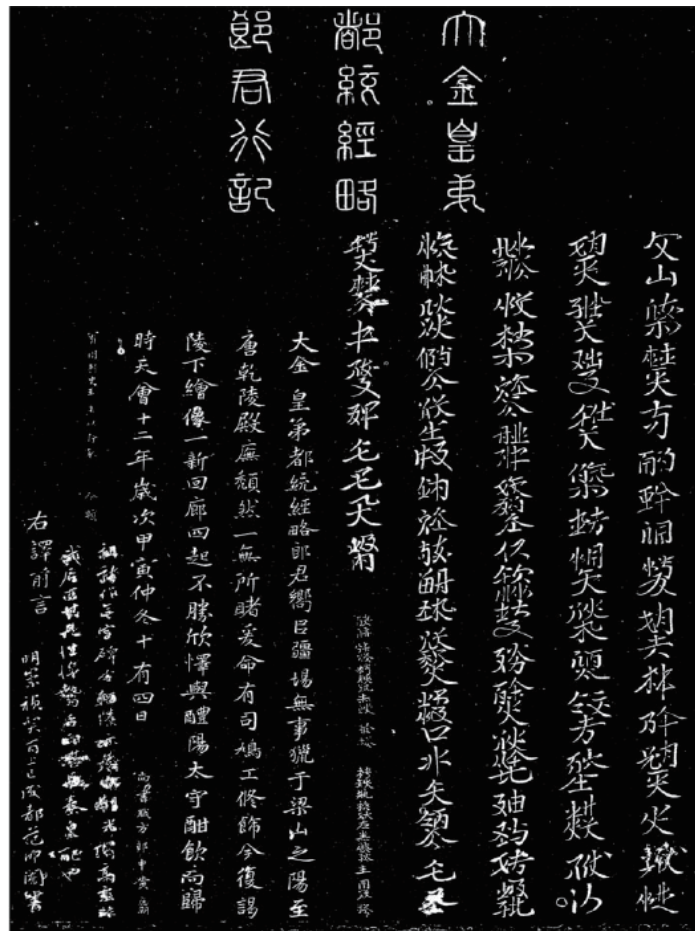
1) 역자주: ‘白山’은 長白山(한국에서는 백두산이라 부름)을 말하고, ‘黑水’는 黑龍江을 말하는데, ‘白山黑水’는 대개 그 일대 지역을 일컫는다.

로 바꾸었다.

[4면]

1. 여진문자와 그 성격

- 여진은 본래 문자가 없었고 요나라의 거란대자·거란소자 또는 한자를 빌려 사용해 왔다. 이후에 금나라를 세우고도 한동안 계속해서 거란문자를 사용하다가 金 世宗 大定 연간(1161-1189)에 여진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어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현존하는 거란소자 비석문 가운데 일부는 금나라 때 세워진 것인데, “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天會 12년, 1134)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금나라 章宗 明昌 2년(1191)에 이르러서야 國史院에 의해 거란문자의 사용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5면]

- 금나라에서 만든 만든 여진문자에는 대자와 소자의 두 종류가 있다.
- 『金史』 권73 「完顏希尹傳」에 따르면: 금나라는 본래 문자가 없었는데 국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이웃 나라와의 교류를 위해 거란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태조는 (完顏)希尹에게 명하여 본국의 문자를 만들고 그 사용법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希尹은 漢人의 한자 해서체를 모방하고 거

란문자의 사용법을 따라 본국 언어에 맞는 여진문자를 만들었다. 天輔 3년(1119) 8월에 『字書』가 완성되니 태조는 크게 기뻐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명하였으며 (完顏)希尹에게 말 한 필,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그 후에 熙宗 역시 여진문자를 만들어 (完顏)希尹이 만든 문자와 아울러 사용하도록 하였다. 흔히 (完顏)希尹이 만든 문자를 여진대자라고 부르고 熙宗이 만든 문자를 여진소자라고 부른다.

- 『金史』 권51 「選舉志」에 따르면: (大定) 16년 황가 兩從 이상 친족 및 재상 자녀들은 곧바로 御試를 보게 하고, 황가 袒免 이상 친족 및 執政官 자녀들은 바로 會試를 보게 한다. (大定) 20년에 이르러 徒單鑑 교수들을 중심으로 그 학문을 크게 진흥시켰다. 그리고 제도를 정하여 이후부터 策試와 詩試 세 시험장에서 策試에는 女直大字를 사용하고, 詩試에는 小字를 사용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으며 시험 시간은 漢人의 進士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6면]

여진문자의 성격

- 여진대자는 금나라 太祖가 完顏希尹, 葉魯 등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여 天輔 3년(1119)에 반포한 것이고, 여진소자는 금나라 熙宗이 만들어 天眷 원년(1138)에 반포한 것이다. 『金史』의 기록에 따르면: “그 후에 熙宗 역시 여진문자를 만들어 (完顏)希尹이 만든 문자와 아울러 사용하도록 하였다.”
- 사실 현존 여진문자 자료와 『女眞譯語』 등의 문헌을 보면 거란대자와 거란소자가 그렇게 확연하게 두 종류의 문자체계로 나뉘지 않는다. 심지어 현존 여진문자가 여진대자인지 아니면 여진소자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문자학적 관점에서 표의문자인지 표음문자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7면]

- 초기 연구에서 W. Grube,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Louis Ligeti 등은 현존 여진문자를 여진소자로 보았으나, 사실 그것은 劉師陸의 “宴台女眞進士題名碑”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 金光平(1962) 「거란대소문자에서 여진대소문자까지(從契丹大小字到女真大小字)」에서는 거란대자와 거란소자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존 여진문자는 아마 여진대자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金史』 권51 「選舉志」에서 詩試에는 여진소자를 사용하게 한 점, 거란소자가 시에서 압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점과 맞물리며, 현존 여진문자는 시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존 여진문자는 여진대자일 것이고 여진소자는 일종의 음절문자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 1976년 러시아 해변 지역의 賽金古城에서 金代 “國之誠” 銀牌가 발견되었다. 이 은패에 새겨진 여진문자 형식은 거란소자와 비슷하다. 요컨대 각 단어가 하나의 전사 단위가 되고 조사와 문법 단위는 별도로 표기하는데, 앞서 언급한 金光平(1962)의 추측과 잘 들어맞는 듯하다.
- 1980년대 중국 산둥성 蓬萊閣에서 “奧屯良弼詩刻石”이 발견되었다. 형식상으로는 “국지성”은

패와 매우 흡사하지만, 예상처럼 현존 여진문자와 완전히 다른 체계의 문자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여진대자와 여진소자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 되짚어 보게 되었다.

[8면]

지금까지의 여진문자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존 여진문자는 대자일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학자로 金光平, 金啓琮, 烏拉熙春 등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 어떤 문자가 “순수하게 표의만 하는 문자”일 수는 없으며 현존 여진문자에는 표의자도 있고 표음자도 있을 것이다. 표의자의 어말 음절 혹은 접사 음절에는 표음자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진대자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여진소자는 거란소자와 성격이 비슷하여 표음을 위주로 하되 보조적으로 표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烏拉熙春은 여진소자는 자료가 매우 적어 현재 오직 세 개 符牌(承德金銀符牌, 伊春金符牌, 德惠銀符牌)만 확인된다고 한다.
- 둘째, 현존 여진문자는 소자일 것이다. 여진대자는 순수하게 표의만 하는 문자일 것이지만, 여진소자는 표의의 기초 위에 표음도 적지 않게 추가된, 표음과 표의가 결합된 문자일 것이라고 본다.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道爾吉이 있다.
- 셋째, 현존 여진문자는 대자와 소자가 혼합된 것이다. 대자는 표의를 하고, 소자는 표음을 한다. 이른바 ‘熙宗 때의 小字’란 사실 여진문자에 표음 기능과 접사 표기를 추가한 일종의 문자 개혁에 속한다고 본다.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和希格이 있다.

[9면]

- 사실 현존 여진문자는 문자론적 차원에서 거란소자와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거란소자는 음절문자이며 비록 한자 자형을 모방하고 있지만 위구르 문자처럼 순수한 표음문자로 발전하지 못했다. 즉 황제, 황후 등의 단어를 기록할 때는 여전히 표의문자적 성격을 지니며 표음문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현존 여진문자는 표의의 대자와 표음의 소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희종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소자는 오직 표음적 접사와 문법적 부가성분만 포함하여, 어쩌면 마치 일본어의 가나와 매우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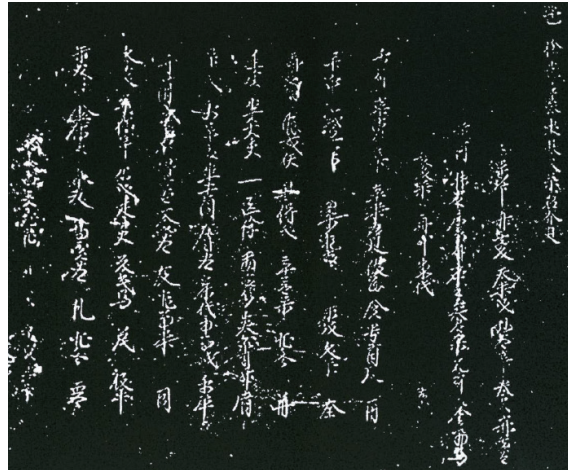
[10면]

- 1. 어간에 사용했던 여진대자는 다른 표음자로 교체되는데, 이 표음자들은 고정불변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2. 다수의 표의자는 동음 가차라는 방식을 통하여 순수한 음절문자가 되기도 한다. 여진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표의자를 표음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비록 문자체계상 현존 여진문자를 순수한 음절문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표의문자에서 음절문자로 발전하는 과도적 단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13면]

3. 奥屯良弼詩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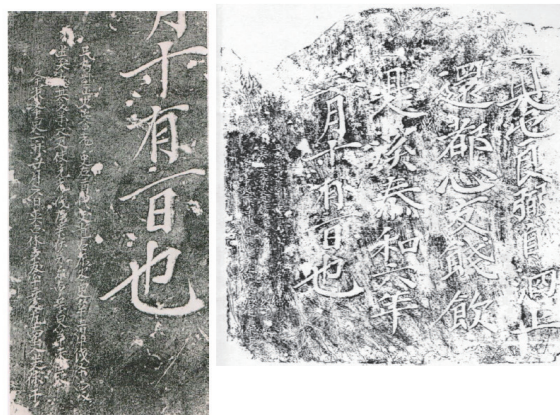
새겨진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정면에 여진문자가 있고 上款과 下款 각각 한 행의 楷書가 있으며 총 27자이다. 본문은 行書로 11행이고 100여 자이다. 이 碑銘은 현존하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行書體 여진문자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본 비석문의 내용은 七言律詩에 속한다.



[14면]

4. 奥屯良弼飲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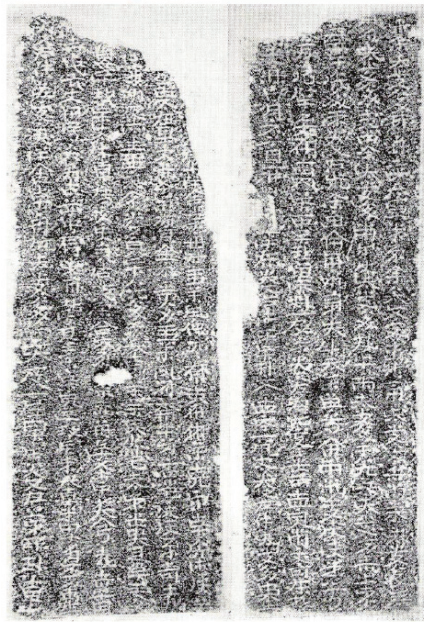
“泰和題名殘石”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초에는 羅振玉 개인 소장품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비석의 높이는 85cm, 너비는 67cm이며 가운데에 奥屯良弼이 한문으로 쓴 題字가 있어 泰和 6년(1206)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좌측에 3행 60여 자의 여진문자가 있는데 奥屯良弼의 벗인 卜修洪 쓴 발문이며 금나라 大安 2년(1210)에 쓴 것이라고 한다.



[15면]

5. 慶源郡女眞國書碑

1918년 함경북도 경원군 동원면 화동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에 서울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비석이 두 동강으로 절단되어 현재 하단만 남아 있는데 높이는 194cm, 너비는 58cm이다. 비석의 사면 모두 여진문자만 새겨져 있고 한문 번역은 없다. 제1면에 7행 200여 자, 제2면에는 4행 50여 자가 있다. 기록 내용을 보면 한 절을 보수함에 대한 일종의 공덕비이다. 1919년에 펴낸 『朝鮮金石綜覽』 상권에 본 비석문 탁본을 실었으며, 1943년 야스마 야이치로(安馬彌一郎) 『女眞文金石志稿』 (일본 교토 碧文堂 출판)에도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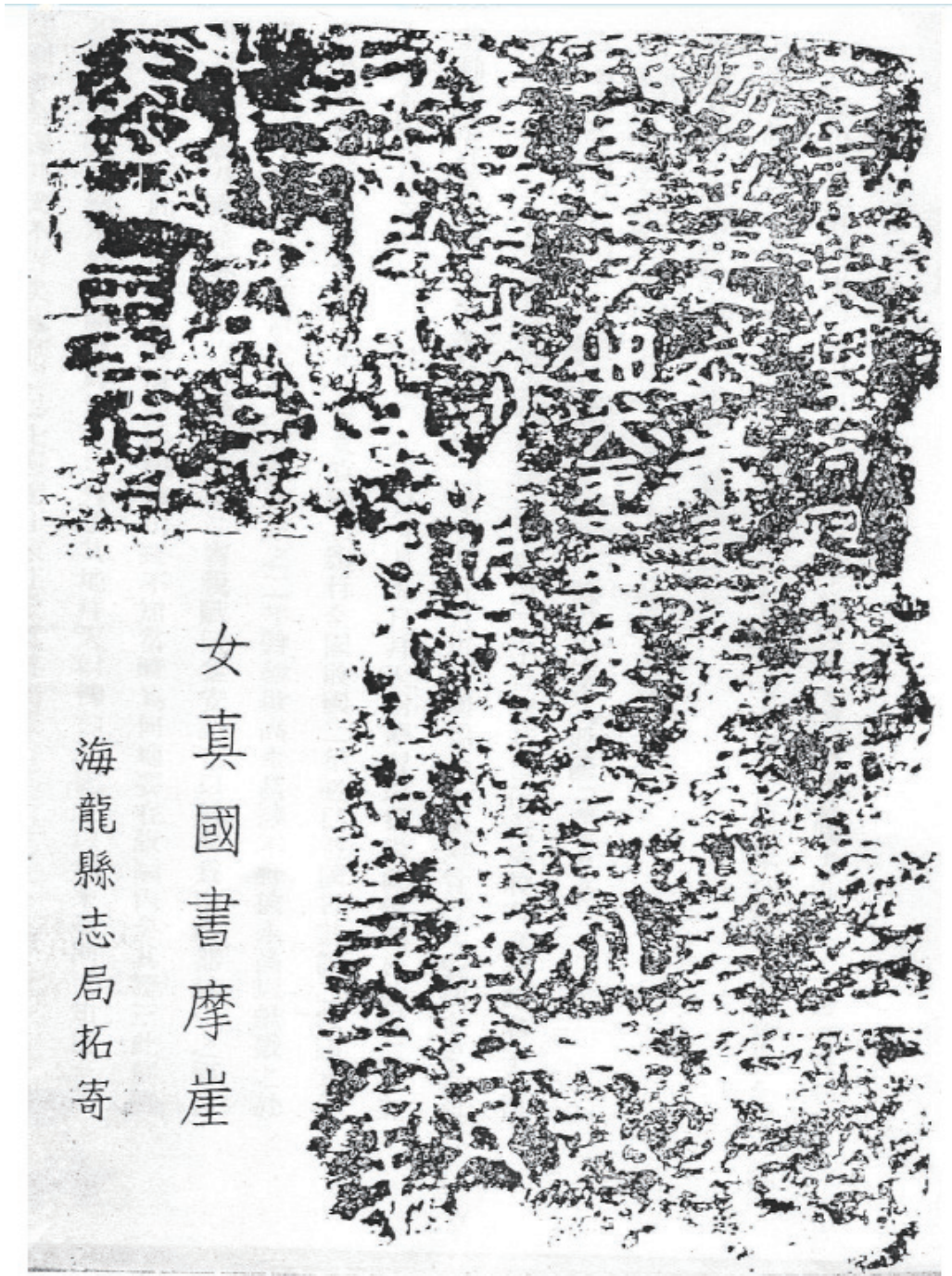


朝鮮慶源郡女眞國書碑 (第三、四圖)

[16면]

6. 海龍女眞國書摩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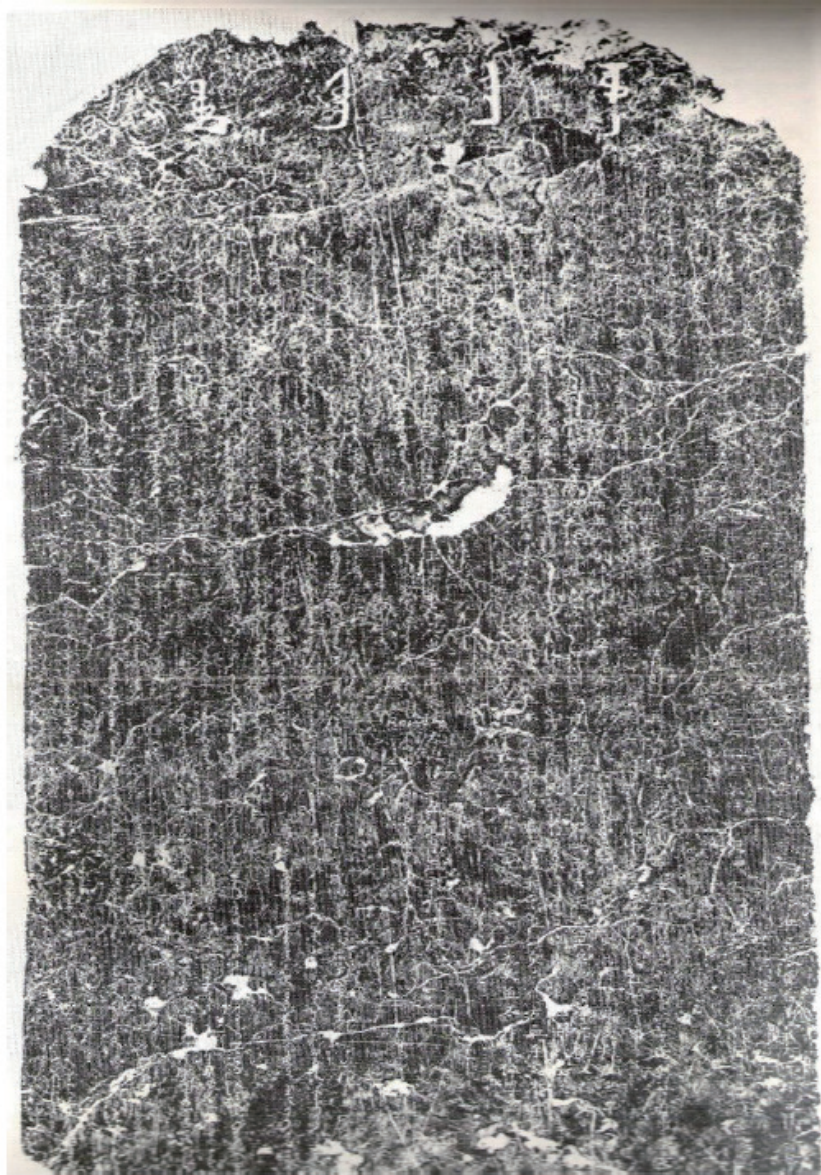
중국 길림성 海龍縣(현 梅河口市) 小楊鄉 雲堡 마을 북쪽의 어느 한 산비탈에서 발견되었다. 전부 여진문자로 되어 있으며 金光平, 金啓琮 등에 따르면 금나라 大定 7년(1167)에 새겨졌을 것이다. 글자가 있는 부분만 보면 높이는 200cm, 너비는 110cm이며, 총 8행 99자가 있다.



[17면]

7. 奴兒干永寧寺碑

러시아 경내의 흑룡강 하류 동쪽 特林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후에 러시아 정부에 의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박물관으로 옮겼다. 명나라 成祖 永樂 11년(1413)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는 180cm, 너비는 85cm이다. 陽面에 한문이 적혀 있고 제문에 “永寧寺記”라고 되어 있으며, 陰面에 여진문자와 몽골문자가 각기 15행씩 새겨져 있다. 여진문자는 총 700자이다. 여진문자와 몽골문자의 내용을 보면 陽面에 새겨진 한문에 대한 번역문이다. 좌우 양측에는 한문, 여진문, 몽골문, 티베트문의 네 가지 문자로 된 육자진언이 새겨져 있다.



[18면]

8. 몽골 九峰石壁紀功碑

1986년 몽골 헨티(肯特, khentij) 바얀호탁(巴彥霍特克, bayankhutag) 구봉석벽에서 발견되었다. 처음으로 이를 알린 사람은 蘇密亞巴托이며, 그가 쓴 책 『元朝秘史』에 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 비석은 금나라 章宗 明昌 7년(1196)에 새겨진 것이며 여진문자 140여 개가 있다. 일본 학자 가토 신페이(加藤晉平)는 『女眞文辭典』을 이용하여 비석문 제1행과 제2행의 여진문자 해독을 시도하였다. 고고학자 시라이시 노리유키(白石典之)가 1991년에 현지 조사를 갔었다가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본 비석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한문 비석을 발견하였다. 이 두 비석문은 모두 금나라 章宗 시기에 完顏襄이 금나라 군대를 이끌고 斡里札 강에서 타타르(阻卜)와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역사적 사건은 『金史』 권94 「內族襄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21면]

10. 阿爾哈拉강 여진문자 묵서 題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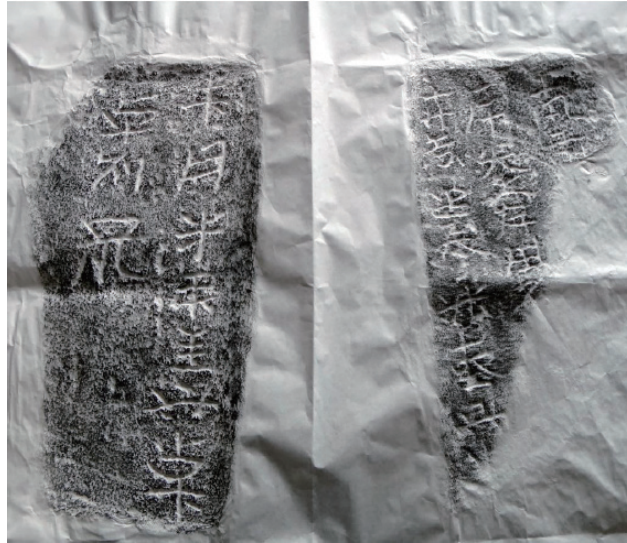
2003년 러시아 아무르스타드 국립대학교 교수 A.P. Zabiyako가 아르하라스키강 유역 벽화에 대한 현지조사를 갔었다가 여진문자 묵서를 발견하고 2014년, 2018년 두 번 다시 다녀 왔다. 烏拉熙春과 함께 문자에 대한 해독에 나섰는데 대개 1127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아르하라스키강 지역 여진문자 중 제일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내용은 대개 금나라 여진의 이민 역사에 대해 다루었으며 당시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 문화 전파과정을 엿볼 수 있다.



[22면]

11. 중국 흑룡강성 安寧市에서 출토된 여진문자 비석 잔해

좌측에 “四月朔戊申七于”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무덤의 주인을 매장한 날짜인 4월 7일을 가리킨다. 금나라 때 戊申日 4월 7일은 총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天會 3년(1125)이고, 다른 하나는 明昌 3년(1192)이다. 이 비석을 새긴 시기는 아마 1192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愛因失里”는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의 이름일 것으로 보인다.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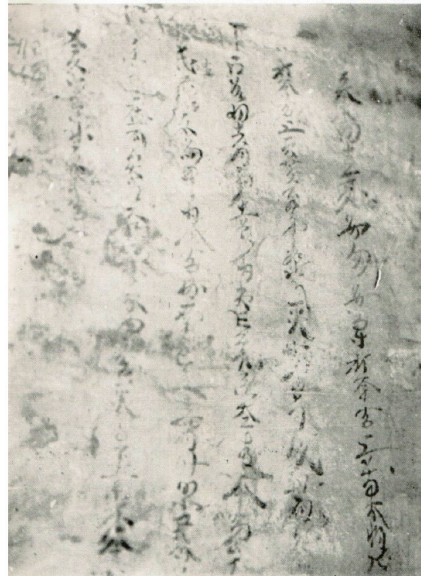
12. 중국 呼和浩特市 武川縣 西烏蘭不浪鎮 磁窑 마을에서 여진문자가 새겨진 그릇이 발견되었는데, 그릇 맨 아래에 묵서로 상서로움의 의미를 지닌 여진문자가 새겨져 있다. 독음은 대개 “撒必”에 가깝다.



[24면]

13. 白塔女真文字題記

중국 呼和浩特市 동쪽에 위치해 있는 萬部華嚴經塔 내에서 발견되었는데 총 6행으로 되어 있다.



[25면]

14. “國之城” 銀牌

1976년 러시아의 賽金古城에서 발견되었다. 첫 글자는 御押(역자 주: 황제의 서명)을 나타내는데, 이 여진문자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國之城”(『女真譯語』의 주음 표기를 보면 ‘國倫你 哈撻溫’으로 되어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26면]

여진문자 관련 문헌

『女眞譯語』

西安 碑林 女眞文書 낙장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 여진문서 낙장

[27면]

명대 四夷館에서 편찬한 『女眞譯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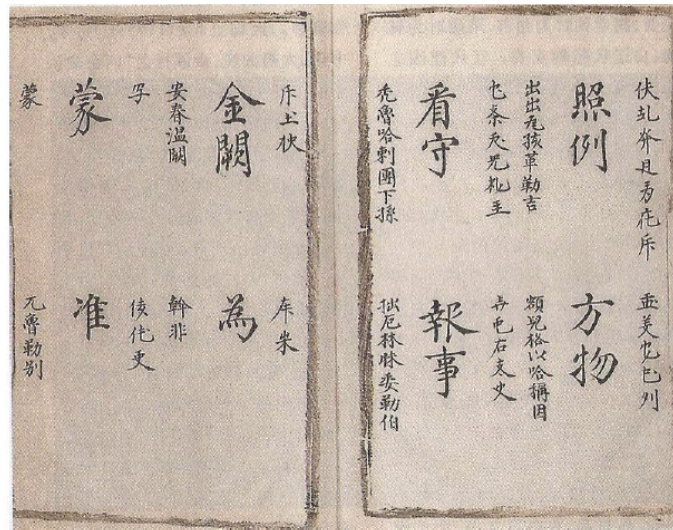
- 중국 명청 시기 중앙정부에서는 주변 나라 및 기타 민족과의 연락과 소통을 위해 서신 왕래를 맡을 전문 부서를 설립하였었는데, 명나라 때에는 ‘四夷館’과 ‘會同館’이라고 불렀고 청나라 때는 ‘四譯館’이라고 불렀다. 주로 일상적인 번역을 위한 참고서를 편집하거나, 통·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맡았다. 중국어와 외국어 및 중국어와 소수 민족어의 對譯 사전을 만들었다. 일부 문헌에서는 정부 공문 번역 양식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만든 사전을 통틀어 ‘華夷譯語’라고 부른다.
- 현재 남아 있는 화이역어 자료는 크게 갑, 을, 병, 정 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갑종본: 明 洪武 22년(1389) 火源潔 등이 만든 중국어와 몽골어의 대역본이다.
 2. 을종본: 明 永樂 5년(1407) 鞑靼, 女直, 西番, 西天, 回回, 百夷, 高昌, 緬甸의 팔관역어를 말한다. 몽골어 번역본을 『鞑靼譯語』, 위구르어 번역본을 『高昌譯語』, 여진어 번역본을 『女眞譯語』라고 부른다.
 3. 병종본: 명나라 회동관에서 편찬한 역어류를 말한다.
 4. 정종본: 청나라 사역관에서 편찬한 역어류를 말한다.
- 현존 화이역어류 서적은 총 80여 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 내 여러 소수 민족어 번역본만 하더라도 50종이 넘는다. 어쩌면 이 책들은 명청 시기의 言語簡志 또는 번역어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명대의 이러한 역어류를 통해 고대의 민족 문자는 물론 한자와의 대역 규칙을 찾아 당시 북방 언어의 언어적 특징을 찾을 수도 있다.

[28면]

(1) 『女眞譯語』

- 을종본 『女眞譯語』란 명대 四夷館에서 편찬한 것을 말하며 “雜字”와 “來文”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雜字”는 여진어와 중국어 대역의 어휘집을 말하며 각 항목마다 중국어 어휘 및 대응 여진문자와 여진어 한자 주음 표기가 있다. “來文”은 당시 進貢 관련 공문을 모아서 번역한 것이다. 명나라 永樂 5년(1407)에 세운 四夷館에서 맨 처음 펴낸 팔관역어 가운데 여진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실로 보아 을종본 『女眞譯語』의 작성 시기는 사이관을 설립한 시기와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永樂女眞譯語』라고 부르기도 한다.
- 병종본 『女眞譯語』는 명나라 회동관에서 만든 것을 말하며 학계에서는 『會同館譯語』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유형의 역어는 통역관 통역을 위한 실용적인 사용을 위한 것으로 한자로 된 주음 표기와 중국어 어휘만 있을 뿐 여진문자는 없다.



[29면]

• 중국 寧波시 天一閣 소장 명대 『女眞譯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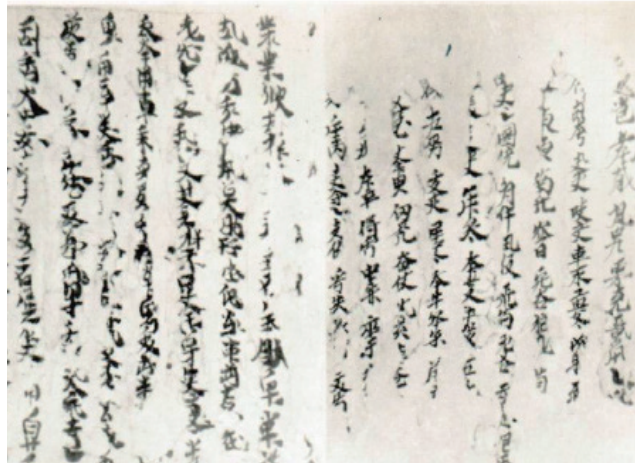
[30면]

(2) 西安시 碑林區 여진문서 낙장

여진문자로 필사한 문서의 낙장이다. 1973년 중국 陝西省 서안시 비림구 石台孝經의 어느 한 장부터 구멍에서 총 11건의 낙장이 발견되었다. 제일 큰 것은 높이 21cm, 너비 45cm이다. 이 중에서 4장은 양면으로 필사하였고 7장은 단면으로 필사하였으며, 여진문자는 총 237행 2300여 자가 있다.

劉最長·朱捷元(1979)의 「서안시 비림구에서 발견된 여진문서와 남송 탁본 집성왕 ‘聖教序’ 및 그 판화」에서는 관련 낙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金啓琮(1979) 「섬서성 비림구에서 발견된 여진문자」에서는 이것이 중국어 학습을 위한 계몽서이고 금나라 때의 『女眞字書』를 베껴 학습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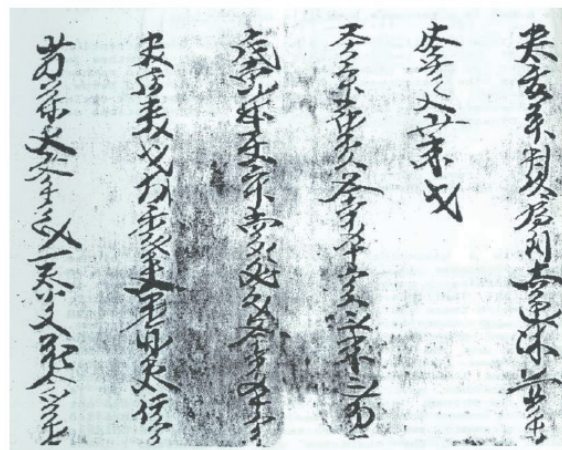
[31면]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 여진문자 초서 낙장

1968년 러시아 서하학 연구학자 키차노프가 러시아과학원 東文獻 연구소에서 서하문자 필사본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두 장의 여진문자 초서 낙장을 발견하였다. 낙장의 형태를 근거로 하여 대개 어느 한 통구스 관련 서적의 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번호 3775-1 낙장의 면적은 15.3×16.5 이고 여진문자는 총 6.5행이 적혀 있으며, 번호 3775-2 낙장의 면적은 14.2×16.5 이고 여진문자는 총 5.5행이 적혀 있다. 뒷면에 한자로 西夏 神宗 연호 光定7년(1217) 7월 16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 두 낙장에 있는 여진문자는 총 130여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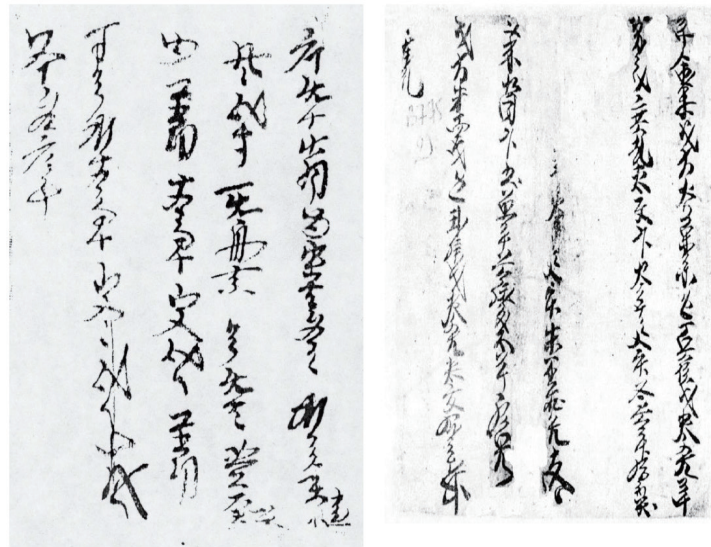
나중에 키차노프는 이어서 또 몇 장의 낙장을 더 발견하였는데 史金波 선생님이 발표자에게 증여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泰和 7年(1207)과 大安 3年(1211)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 여진문자 초서 낙장 1



[32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 여진문자 초서 낙장 2와 3



[33면]

명나라 王世貞의 『弇州山人四部稿』 正稿와 명나라 萬曆 시기 方于魯의 『方氏墨譜』에 언급되어 소개된 여진문자 墨錠이다. “明王愼德, 四夷咸賓” 8개 한문의 의미를 대역하고 있는 2행 14자의 여진문자가 적혀 있다.



[34면]

3. 여진문자 문헌의 연구 현황

- 1829년 劉師陸의 「女直字碑考」에서 처음으로 “宴台女眞進士題名碑”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는데, 그는 아쉽게도 이것을 여진소자로 잘못 보았다.

- 劉師陸은 1833년에 「女直字碑續考」라는 다른 한 편의 글에서 乾陵無字碑 “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를 여진대자 문헌으로 소개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거란소자였다. 이것을 여진대자로 본 것은 앞서 “女眞進士題名碑”를 여진소자로 잘못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해외에서 여진문자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영국 학자 A. Wylie의 「古代女眞文石刻」(On an Ancient Inscription in the Neuchih Langguang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 VII, pp.331-345, 1860)인데, 여기에서 소개된 居庸關 石刻에 새겨진 글자는 사실 여진문자가 아닌 서하문자이다. 여진문자 연구의 진정한 선구자로는 독일 학자 Wilhelm Grube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1896년에 「女眞言語文字攷」(Die Sprache und Schrift Jucen, Leipzig. 1896)라는 글을 써서 베를린 소장본 『여진역어』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자료 분류와 고증 및 음가 표기 등의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서양학계에서 여진문자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5면]

- 20세기 초의 중국 여진문자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羅福成이 있다. 그는 1920년대부터 여진문자 碑銘을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연구업적은 다음과 같다.
「宴台金源國書碑考」(『國學季刊』1卷 第4期, 1923년)
「宴台金源國書碑釋文」(『考古』1926년 5期)
「女眞國書碑考釋」(『支那學』5卷 第4期, 1929년)
「女眞國書碑跋迷」(『國立北平圖書館月刊』3卷第4號, 1929년)
「女眞國書碑摩崖」(『東北叢鐫』1930년 第3期)
「奴兒干永寧寺碑補考」(『滿洲學報』1937년 第5期)
「明奴兒干永寧寺碑女眞國書圖解」(『滿洲學報』1937년 第5期)
그리고 『女眞譯語正·續編』을 만들어 상권에 베를린 소장본 “雜字”를, 하권에 “來文” 79통을 모아서 엮었다.
- 王靜如의 「宴台女眞文進士題名碑初釋」(『史學集刊』1937년 第3期)에서는 “女眞進士題名碑”에 대한 해독을 진행하여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다무라 지쓰조(田村實造)의 「大金得勝陀碑之研究」는 학계에서 王靜如의 연구와 함께 “여진역어 연구의 쌍벽”이라고 불린다.

[36면]

- 헝가리 학자 Louis Ligeti(중국명 李蓋提) 또한 이 영역에서 높이 평가되는 학자인데, 그의 대표작으로는 「簡論 여진소자의 해독」(Note preliminaire surle Dechiffrement des “petis caracteres” Joutchen. Acta Orientalia Hungariae. III, pp.211-228, 1953)이 있다. 그는 W. Grube의 연구를 기반으로 여진문자의 해독 방법과 원칙 등에 대한 논의하였다.
- 한국 학자 이기문은 1958년에 「中世 女眞語 音韻論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통구스 및 기타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종합하여 『女眞譯語』의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를 재구하고, 여기에 쓰인 주음 한자의 음운론적 분석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내는 음가 정보를 통합하여 중세 여진어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한 재구를 진행하였다.

- 이기문(1958) 「中世 女眞語 音韻論 연구」는 서울대학교 『論文集(인문사회화과학)』 7집에 실렸는데, 이를 黃有福이 중국어로 번역하여 『民族語文研究情報資料集』 (1984년 第3期,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언어연구실 편찬)에 옮겨 실었다.

[37면]

- 중국에서 여진어와 여진문자 연구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는 金光平·金啓琮(1964) 「여진언어와 문자 연구(女眞語言文字研究)」 (『內蒙古大學學報』 1964년 제1기 專號)가 있다. 이후에 그들은 『女眞文辭典』 (文物出版社, 1984년)을 펴냈다.
- 「여진어와 문자 연구(女眞語言文字研究)」에서 그들은 여진문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여진문자 자료를 통한 여진어 음운, 문법 및 문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 『女眞文辭典』은 사전의 형식으로 된 책인데, 『女眞譯語』와 碑銘 자료 등에 나타난 여진문자와 어휘를 모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각 문자의 출처를 밝히고 문자의 자형과 기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이후의 여진문자 연구를 위한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38면]

- 일본에서는 주로 『女眞譯語』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미국 국적 일본인 학자인 기요세 기사부로 노리쿠라(清瀬義三郎則府)의 「여진음의 재구(女眞音の構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明代 萬曆 34년(1606) 徐孝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에 반영된 중국어를 토대로 먼저 명대의 여진어 음운체계를 재구하고, 다음으로 역사비교언어학을 통해 금나라 시기 여진어를 추적하였다.
- 기요세 기사부로 노리쿠라(清瀬義三郎則府)는 또한 앞서 같은 연구방법으로 1977년 『여진어와 문자 연구(女眞語言文字研究)』라는 책을 출판하여 永樂 『女眞譯語』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39면]

- 1980년대 이후의 여진어 연구로는 道爾吉·和希格的 『「女眞譯語」研究』 (內蒙古大學學報增刊, 1983년)를 들 수 있는데, 『女眞譯語』 ‘雜字’와 ‘來文’, 특히 ‘雜字’에서 주음에 사용된 한자들을 정리하고 음운론적 분석을 통해 여진어 재구를 시도하였다. 1980년대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아주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0면]

- 같은 시기 해외의 여진문자 연구 업적으로는 호주 학자 Daniel Kane이 쓴 『明 會同館 「女眞譯語」 연구』 (The Sino-Jurchen Vocabulary of the Bureau of Interpreters, Indian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Bloomington, Indiana, 1989)가 있다. 이 책에서는 회동관 『여진역어』를 중심으로 기타 여진문자 문헌 및 관련 연구들도 결합하여 더욱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1980년대 해외 연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41면]

4. 금나라 시기 여진어와 그 연구방법

여진어는 알타이어족 만주통구스어파에 속하는 고대 언어이며 만주어의 祖語이기도 한다. 청나라의 학자들은 이른 시기부터 당시의 만주어로 금나라 시기 여진어에 대한 해독을 시도한 바 있으며, 건륭 시기(1736-1795)에는 역사서에 기록된 여진어 인명, 성씨, 지명 및 부족명 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건륭 39년(1774년) 『日下舊聞考』, 건륭 42년(1777) 阿桂의 『滿洲源流考』, 건륭 47년(1782) 『欽定遼金元三史國語解』에 실린 「金史國語解」 등이 있다.

[42면]

금나라 시기 여진어의 연구방법

첫째, 음운역추법. 道爾吉·和希格的 『「女眞譯語」 研究』, 清瀨義三郎則府의 「여진음의 재구(女眞音的構擬)」가 대표적이다.

둘째, 음소추정법. 이기문의 「중세 여진어 음운론 연구」가 대표적이다.

셋째, 음운분석법. 孫伯君 『金代女眞語』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이다.

[43면]

(1) 음운역추법

- 우선 명대 언어 자료, 특히 『女眞譯語』를 중심으로 주음 표기에 사용된 한자들의 음가를 복원하고 재구하며, 동시에 만주어와의 음운 대응을 찾고, 명대 여진어의 모음체계, 자음체계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金史·國語解』에 수록된 금대 여진어 어휘의 주음에 사용된 한자들을 정리하여 명대 여진어와의 역사비교를 통해 금대 여진어를 추정한다.
- 道爾吉·和希格的 『「女眞譯語」 研究』, 清瀨義三郎則府의 「여진음의 재구(女眞音的構擬)」가 대표적이다.

[44면]

(2) 음소추정법

- 우선 알타이어 계통의 기타 고대 언어 및 만주통구스어 계통의 현대 언어와의 역사비교를 통해 명대 및 고대 여진어 음운체계를 가정하고, 다음으로 『女眞譯語』 등 명대의 문헌자료 및 『金史·國語解』의 대역음 한자 음가와 결합하여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찾아 명대와 금대 여진어의 음운 규칙을 찾는 방법이다.
- 이기문의 「중세 여진어 음운론 연구」가 대표적이다.

[45면]

1. 『金史』에서 “謀克之副”에 해당하는 여진어의 주음 표기는 “蒲里演”으로 되어 있다.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 만주어는 ‘feniyen’이며, 나나이어(역자 주: 원문에는 赫哲語로 되어 있음)에는 “보조”를 뜻하는 ‘bolaci’가 있다, “蒲里演”은 “拂涅”(역자 주: 이 시기 중국어에서 “蒲”는 重唇音, “拂”은 唇輕音이었음)으로 주음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금나라 시기 여진어에서 일어난 *p->-f 변화의 초기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진어에서 *p->-f 변화가 규칙적으로 더 대규모로 일어난 것은 元代 또는 그 이후일 것이다.
2. 중고 여진어와 근대 여진어의 시기적인 구분에 있어서는 *ti>*či, *di>*ji의 음 변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명대 여진어에서는 이러한 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이기문(1958)에서는 만주어 *ti>*či의 변화는 아마도 중고 여진어 이후, 즉 만주어 문어가 형성되기 이전인 16세기 이후에야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道爾吉 또한 “大金喇嘛法師寶記” 비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나라 초기에 이르러서야 만주어에 *di>*ji의 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46면]

(3) 음운분석법

1. 『金史·國語解』 및 宋元 시기 문헌 중에서 고찰 대상이 되는 여진어 어휘를 찾는다.
2. 『金史』 및 宋元 시기 문헌 가운데 한자로 주음 표기가 된 여진어 인명, 지명도 모은다.
3. 『金史·國語解』 및 宋·金·元 역대 필사 문헌들, 明代 『女眞譯語』을 포함한 모든 언어자료, 清代 학자들이 만주어 기원을 찾아 정리하였던 자료들, 그리고 청대와 현대 만주어 자료들을 고찰하여 최대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은다.
4. 주음 표기에 사용된 한자들을 정리하여 음운학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성모의 발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거나 운모의 等과 開合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어 운서 및 기타 음운학적 자료들 즉 元代 周德清의 『中原音韻』, 『蒙古字韻』 및 『元朝秘史』 등을 참고하여 여진어 주음 표기에 사용된 한자와의 대응규칙을 찾는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金代 여진어의 자음체계, 모음체계 및 음절 관련 정보들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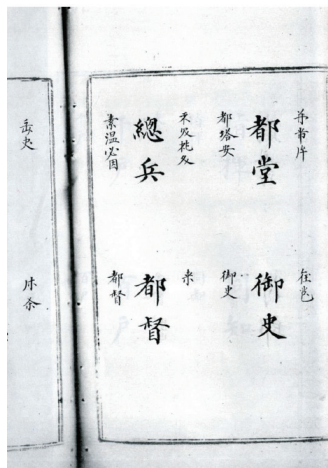
[47면]

5. 『女眞譯語』가 중국 북방어사 연구에 대해 가지는 가치

- 『女眞譯語』에서는 -ŋ 운미를 가지는 중국어 어휘에 대응되는, 여진어의 중국어 차용어의 발음을 표기할 때, -n 운미를 가지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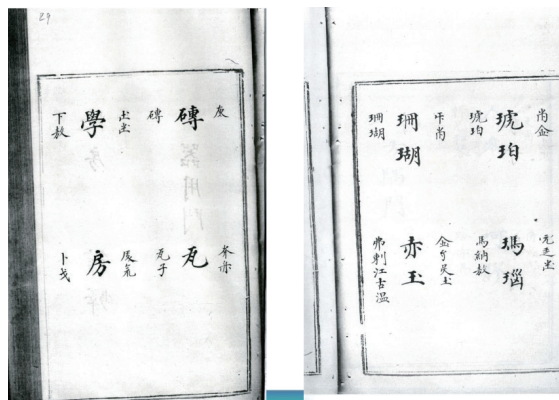
중국어 어휘	여진어 주음 표기
堂	塔安
廳	替因
侍郎	侍刺安
都統	都塔安
總兵	素溫必因

- 『女眞譯語』는 명대에 편찬된 것이지만 여진어의 중국어 차용어는 분명 명대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이미 사용되었을 것이다.



[48면]

『女眞譯語』



[49면]

『女眞譯語』의 주음에 쓰인 한자의 음운학적 정보

汉语借词	声韵地位	对音汉字	所在门类、词语
堂	定唐开一平宕	塔(透盍开一入咸)安	宫室门: 堂
郎	来唐开一平宕	刺安	人物门: 侍郎
昌	昌阳开三平宕	察(初黠开二入山)安	人物门: 高昌
香	晓阳开三平宕	下(匣马开二上假)安	器用门: 香
厅	透青开四平梗	替(透霁开四去蟹)因	宫室门: 厅
兵	帮庚开三平梗	必(帮质开三入臻)因	人物门: 总兵
重	澄鍾合三平通	出(昌术合三入臻)温	时令门: “重阳”
龙	来鍾合三平通	鲁温	鸟兽门: 蟒龙
统	透宋合一去通	塔(透盍开一入咸)安	人物门: 都统
总	精董合一上通	素(心暮合一去遇)温	人物门: 总兵

[50면]

子	精止开三上止	撒(心曷开一入山)	鸟兽门: 骡(子)
蓝	来谈开一平咸	刺安	声色门: 蓝
勘	溪勘开一去咸	克(溪德开一入曾)安	通用门: 勘合
麟	来真开三平臻	里因	鸟兽门: 麒麟
学	匣觉开二入江	下(匣马开二上假)敖(疑豪开一平效)	宫室门: 学
瑙	泥皓开一上效	纳敖(疑豪开一平效)	珍宝门: 玛瑙
皂	从皓开一上效	子(精止开三上止)敖(疑豪开一平效)	声色门: 皂
骡	来戈合一平果	老(来皓开一上效)	鸟兽门: 骡
斗	端厚开一上流	头(定侯开一平流)	天文门: “五斗”
翠	清至合三去止	出(昌术合三入臻)卫	声色门: 翠
开	溪哈开一平蟹	克(溪德开一入曾)哀(影哈开一平蟹)	通用门: 开
规	见支合三平止	圭(见齐合四平蟹)因	通用门: 学规

[51면]

1. 중국어 宕攝, 梗攝, 通攝 -ŋ 운미에 대응되는 차용어의 주음 표기에 -n 운미 글자를 사용한다. 중국어 어휘 ‘堂, 郎, 昌, 香, 廳, 兵, 重, 龍, 統, 總’ 등 -ŋ 운미 글자에 대응되는 주음 표기에 ‘安, 因, 溫’ 등 -n 운미 글자를 사용한다. 참고로 몽골어를 보면 연구개음 q, k, γ, g 등의 앞에서, 음절 말 또는 어말 위치에 -ŋ가 오는데, 몽골어의 일부 방언에서는 이화에 의해 -ŋ가 늘 -g, -m, -n 등으로 받음된다. 아마도 중세 여진어 역시 이처럼 당시에는 음절 말 -ŋ이 발달하지 않은 언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어 江攝 -k 입성 운미에 대응되는 주음 표기에 -u 모음 운미 글자를 사용한다. 중국어 ‘學’에 대응되는 여진어의 주음 표기에 ‘下敖’으로 되어 있다. ‘敖’는 效攝 글자이므로 당시 여진인이 -k 운미 ‘學’자를 -u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3. 파찰음 ts-와 tsh-을 마찰음 s-으로 혼용한다. 중국어 ‘總兵’에 대응되는 여진어의 주음 표기는 ‘素溫必因’으로 되어 있다. ‘總’은 精母(역자 주: 파찰음) 글자이지만 ‘素’는 心母(역자 주: 마찰음) 글자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精母 ‘子’에 대응되는 여진어 주음 표기에 心母 ‘撒’을 사용한다. 반대로 주음 표기에 사용될 때의 精母 ‘子’, 從母 ‘皂’ 글자에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가 ‘都司’의 ‘司’(역자주: 心母 마찰음) 주음에도 사용된다. 아마도 중세 여진어 齒音에는 마찰음 s-만 있었을 것이다.
4. 중국어에서 au, ui, ai 등 복운모를 가지는 단어의 차용어에 대해 『여진역어』에서는 늘 두 개의 한자를 결합하여 주음하는 방식을 취한다. 간혹 중국어에서 uo 운모를 가지는 단어의 차용어를 주음할 때 au 운모 글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52면]

- 요나라 壽昌 4년(1098) 方稱 스님이 쓴 “易州興國寺太子誕聖邑碑”:
清淨法界, 無視無聽。 應根示現, 有形有聲。
欲酬宿願, 擬利含靈。 曆閭浮界, 居迦毗城。
金團選處, 淨飯所生。 九龍沐體, 七步蓮英。
箭墮箭井, 象沒象坑。 足履四門, 目視三屯。
私離萬乘, 逾城五更。 苦行六年, 克果三身。
根應萬類, 教設五乘。 化緣將息, 跋水歸眞。
- 위의 銘詞를 보면 대부분의 압운자가 梗攝에 속하지만, 일부 글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乘’은 曾攝 글자이고 ‘屯, 身, 眞’ 등은 臻攝 글자에 속한다. 중국어 압운의 일반적 규칙에 따르면 梗攝(*en), 曾攝(*ən), 臻攝(*ən)은 압운할 수 없지만, 위의 시에서 이들 글자가 압운자로 쓰인 것은 당시 요나라 사람들이 이들 글자의 음가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3면]

- 『遼史·國語解』에서 ‘撻領’을 ‘撻林’이라 적는 경우가 있다. 관련 주석에 “撻林, 관명이다. 後二室韋部를 仆射로 바꾸고, 司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아마 요나라 시기 중국어 북방 방언에서는 ‘領’과 ‘林’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餘靖의 『武溪集·契丹

官儀』에는 “동북 쪽에 撻領相公이 있는데 黑水 지역을 다스리며 관련 사무를 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관련 주석에 “오랑캐들은 ‘撻’자를 ‘呑’자의 입성과 같이 발음하며, ‘領’의 발음이 ‘廩’의 발음과 가깝다.”라고 하였다. 즉 당시 거란사람들은 중국어 북방 방언의 -ŋ과 -m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54면]

- 파스파문자와 거란소자 주음 표기에서도 -k 입성 운미 글자를 모음 운미의 -u로 읽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宕攝 입성 글자 ‘略, 藥’ 등의 주음 표기에 거란소자 𐰽𐰚 두 글자를 사용하는데, 이 글자들의 기원 한자는 效攝 글자인 ‘堯, 趙, 少’ 등 -u 운미 글자들이다.
- 『女眞譯語』 ‘宮室門’의 ‘學’에 대해 여진어 주음 표기로 ‘下敖’가 쓰였는데, ‘學’자는 匣母 江攝 2등 입성 글자로 중고음에서 -k 운미이지만, ‘敖’는 -u 운미 效攝 글자이다. 당시에 이미 입성 글자 ‘學’의 운미 -k가 구어에서는 -u로 읽혔을 것으로 보인다.

[55면]

- 요나라 때의 “重修白帶山雲居寺碑”에 사용된 압운자에는 ‘哀, 材, 灰, 開, 回, 月, 哉, 來’ 등의 글자가 혼용되는가 하면, “耶律慶嗣墓志”에 사용된 압운자에는 ‘閥, 大’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한자 ‘月’과 ‘閥’ 등은 모두 山攝 입성운 글자인데 음성운 글자인 蟹攝 1등·2등 글자와 압운하고 있다. 아마도 ‘月, 閥’ 등 山攝 입성운 글자는 당시 중국어 북방 방언 구어에서 이미 자음 운미 -t가 탈락하고 모음 운미 -ai로 읽혔을 것이다.
- 그러므로 중국어 북방 방언은 요나라 시기에 이미 -t 자음 운미가 모음화하여 -i로 읽혔을 것이다.
- 이외에도 ‘德, 國’과 같은 德韻 -k 운미 입성 글자가 -i 모음 운미로 읽히는 예도 있다.

[56면]

- 감사합니다!

번역: 안영희(운남민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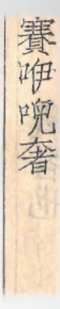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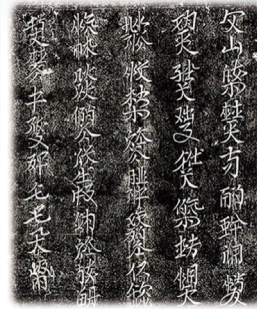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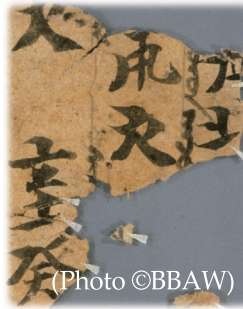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SYMPOSI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기획 주제 발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

요(遼)나라 글쓰기의 혁신과 연속성
거란어(契丹語) 및
거란문자(契丹文字) 개요

Andrew Shimunek
(한국 우송대-솔브릿지 국제경영대)



Innovation and Continuity in Liao Writing: An Overview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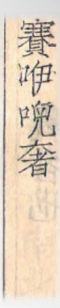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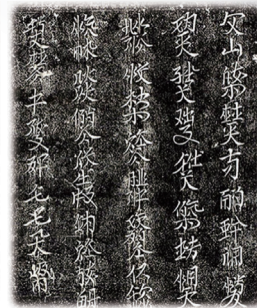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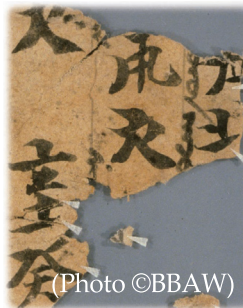
遼나라 글쓰기의 혁신과 連續性: 契丹語 및 契丹文字 概要

Andrew E. Shimunek, Ph.D., Habilitation

Assistant Professor, Woosong University

2024年度 國際學術大會 『東아시아 漢字 變用 文字』
國立世界文字博物館・口訣學會 共同 開催 學術大會
大韓民國 仁川廣域市 2024年 2月 23日

- 1 -



Innovation and Continuity in Liao Writing: An Overview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Andrew E. Shimunek, Ph.D., Habilitation

Assistant Professor, Woosong University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Transformed Chinese Characters in East Asia”
Joint Conference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nd the Kugyöl Society
Incheon, Republic of Korea, February 23, 2024

- 2 -

I wish to thank Dr. Lee Yong and the Kugyŏl Society for inviting me to give this lecture.

感謝드립니다.

— 3 —

Shimunek, Andrew. Innovation and Continuity in Liao Writing: An Overview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Paper presented at the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nd the Kugyŏl Society. Incheon, February 23, 2024. Author's email: ashimune@alumni.iu.edu

The focus of this talk will be on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Kitan language and writing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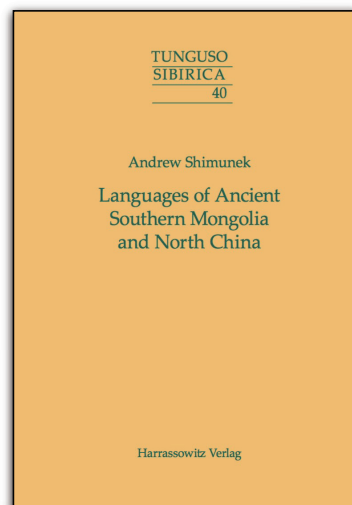
I'll provide examples from the *Langjun* inscription of 1134, a rubbing of which is on display here at the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nd I'll also share some of my ongoing fieldwork-based research on Kitan inscriptions in the Mongolian countryside.

— 4 —

I've be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for over two decades.

In recent years, I've been undertaking epigraphic fieldwork in Mongolia on some important lesser studied Kitan inscriptions.

My book includes an approximately 100-page chapter on Kitan grammar, and contains Kitan data throughout.



I've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peer-reviewed journals on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and I've been conducting Kitan epigraphic fieldwork in Mongolia since 2009.

This is my background in Kitanology in a nutshell.

Now let's talk about the story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7—

- The ethnonym Kitan 契丹 is first attested in 386-395.
- Most of what we know of the history of the predynastic Kitan ethnolinguistic group dates to the 唐 Tang dynasty (Xu 2005: 28),
- after which Kitan society flourished, forming the powerful and influential 遼 Liao Kitan Empire (907-1125) and the Qara Khitai or 西遼 'Western Liao' Empire (1124-1218).

—8—

- The Kitan Empire was a major constituent country of what Valerie Hansen describes as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and trade bloc consisting of
 - The Liao Kitan Empire (North China and Mongolia)
 - The Koryŏ Kingdom (Korea)
 - Japan

(Valerie Hansen, *The Year 1000*, p. 159)

— 9 —

- The territory of the Liao Kitan Empire encompassed North China, Manchuria, and most of Mongolia.
- It formed part of northeastern Central Eurasia and it was an integral part of the ‘Silk Road’ in the inclusive sense of that word.

— 10 —



The Liao Kitan Empire in northeastern Central Eurasia (part of the 'Silk Road' in the inclusive sense of that word)

(adapted from a public domain image from *Wikipedia*)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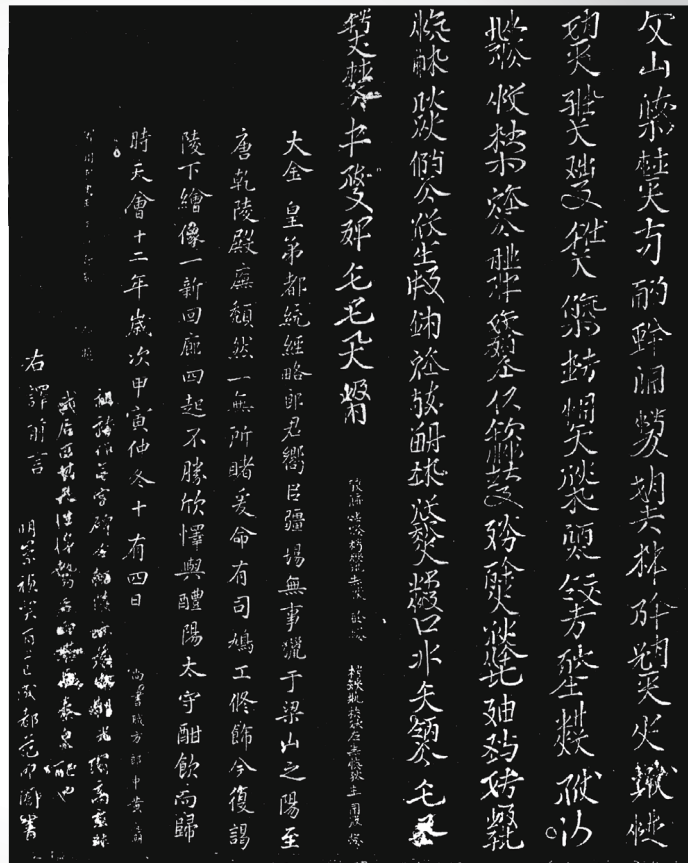


Liao Kitan Empire (907-1125)

(image from *Wikipedia*)

— 12 —

The Kitan Language



-13-

- Kitan language and culture reflect the diverse heritage of this highly multicultural multilingual region of Central Eurasia.
- My lecture today will aim to highlight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the Kitan language and Kitan writing.

-14-

- Kitan is a 鮮卑 Xianbei (*Serbi) language related to the Mongolic languages. (There is no known connection with the Slavic Serbs!)
- The Kitan language was first documented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 (南北朝) (4th-6th c.)
- It continued to be spoken in the 元 Yuan Mongol Empire.
- I classify the Kitan language into three distinct periods (Shimunek 2017: 197).

- 15 -

Old Kitan 古代契丹語 (386-907).

- Developed from the 宇文 Yuwen dialect of the 鮮卑 *Serbi language.
- This stage of the Kitan language is minimally attested in Middle Chinese, runiform Old Turkic, and Old Tibetan phonetic transcriptions.

། ། འདི་འི་བྱང་ཕྱོགས་ལྟར་ ། གེ་ཏང་ཞེས་བགྱི་བ་མཆིསྟེ་ ། ལྷུ་ལ་པོ་གེ་ཏན་གྱི་ཁ་གན་

契丹 𐰽𐰺𐰍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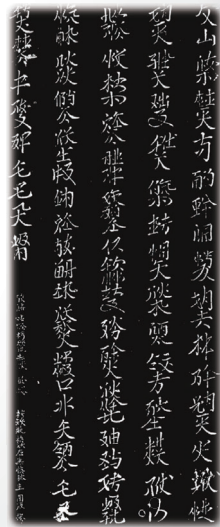
- 16 -

Middle Kitan 中世契丹語 (920-11th c.).

- This i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early 遼 Liao Kitan Empire.
- This language formed the basis of the Kitan 'large' and 'small' scripts.
- This is the best attested stage of the Kitan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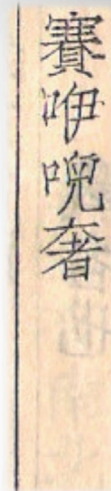


(Photos ©Andrew Shimunek, 2023)



Late Kitan 後期契丹語 (11th c. to 13th c.).

- Spoken in the late Liao Kitan Empire to the Yuan Mongol Empire.
- Last known speaker = Mongol Emperor Ögödei's Kitan official 耶律楚材 Yelü Chucai.
- Transcribed phonetically in 宋 Song and 元 Yuan Chinese.
- This is a phonetically progressive stage of the Kitan language, exhibiting identifiable sound changes distinguishing it from the Middle Kitan period: For example, Middle Kitan (MKit) **nigu* > Late Kitan (LKit) **nügu* 'gold', MKit **šya* ~ **šyay* > LKit **šɛ* 'good', and MKit **ləmɤa* > LKit **limya* 'scribe' (Shimunek 2017: 197).



Kitan writing

- The Kitans created two different writing systems for their language.
- The *Liao Annals* (遼史) calls these two writing systems the 大字 ‘Large Script’ and the 小字 ‘Small Script’.

— 19 —

- Although there are two archaeologically attested Kitan scripts,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Liao Annals* to determine which of these two scripts is the ‘large script’ and which is the ‘small script’.
- György Kara recognized this problem and proposed the terms ‘linear script’ and ‘assembled script’ or ‘composite script’ (1977, 2005) to describe the two attested scripts without *a priori* labeling one or the other as the ‘large’ or ‘small’ script.

Kitan *mir ‘horse’ in the two Kitan scripts

Linear Script
(← Chinese 馬)

Assembled Script
<m.ir>

— 20 —



<m.o> ‘great’

<qīta.ᵑ̃> ‘Kitan’

<ǰur> ‘two’

<k.l.s> ‘languages’

Translation: ‘The two Great Kitan languages’

(Semantic identification by Wu Yingzhe.
The phonetic reconstruction here is my own.)

— 21 —

Kitan Linear Script

(often labeled *a priori* as the ‘Large Script’)



(Photos ©Andrew Shimunek, 2023)

The 1084 Kitan Linear Script Salbar Uul inscription
in Mörön county, Khentii province, Mongolia

— 22 —

- According to the *Liao Annals* (遼史), the Kitan 大字 ‘Large Script’ was created in 920.
- Many scholars hypothesize that this ‘Large Script’ is the archaeologically attested Linear Script, but György Kara rightly viewed this as difficult to demonstrate (1977, 2005).
 - Some Linear Script glyphs are borrowed directly from Chinese with little or no change.
 - Some glyphs result from minor changes to Chinese glyphs.
 - Many of the glyphs are unique and have no connection with Chinese.

– 23 –

The 1084 Salbar Uul Inscription in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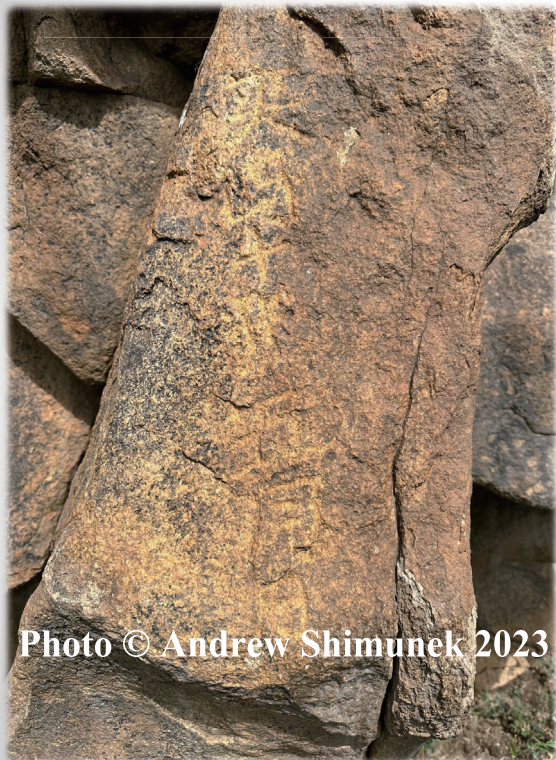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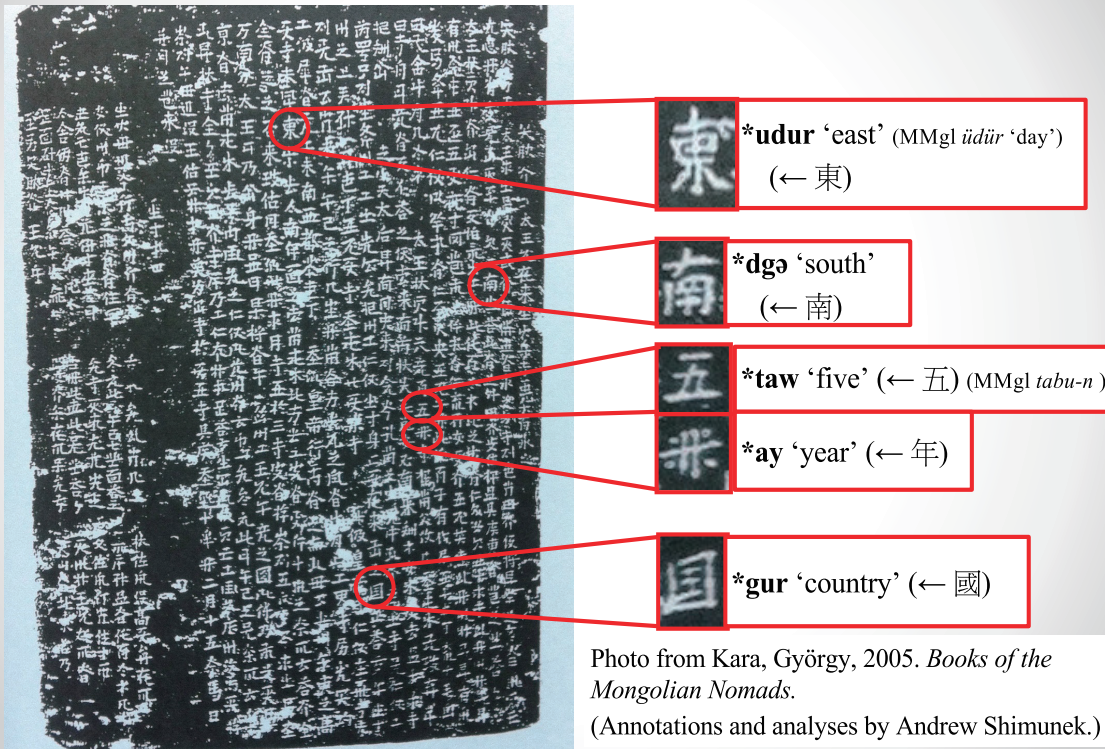
Photo © Andrew Shimunek 2023

大康 *Da Kang*
 ‘Great Prosperity’ reign period
 (identified by Sun Bojun 2006, 2007)
 十 **par* ‘ten’ (glyph copied from Ch. 十)
 年 **ay* ‘year’ (glyph based on Ch. 年)
 五 **taw* ‘five’ (copied from Ch. 五)
 月 **sayr* ‘month’ (copied from Ch. 月)
 日 **ñayr* ‘day’ (copied from Ch. 日)

‘[Written on] a day in the fifth month of the 10th year of the Great Prosperity reign period [1084 CE].’

– 24 –

The 1041 Linear Script 北大王墓誌 *Epitaph for the Prince of the North*



- 25 -

Kitan Assembled Script

(often labeled *a priori* as the 'Small Script')

- According to the *Liao Annals* 遼史, the 小字 'Small Script' was created in 924.
- Many scholars have hypothesized that the archaeologically attested Assembled Script is to be identified with the 'Small Script' but György Kara (1977, 2005) viewed this as difficult to demonstrate.
- In terms of decipherment, the Kitan Assembled Script is better understood than the Linear Script.



- 26 -

- There are around 459 Kitan Assembled Script glyphs, some of which are undoubtedly variants.

A few of *many* publications on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Chinggeltei 2002. 契丹小字試讀問題. Tokyo: ILCAA.

Chinggeltei, Wu Yingzhe [Oyunch], Jiruhe [Jürkh] 2017. 契丹小字再研究. 內蒙古大學出版社.

Kane, Daniel 2009.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Leiden: Brill

Kara, György 2005. *Books of the Mongolian Noma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Kim Taegyeong & Kim Wihyeon 2019. 거란소자사전 (契丹小字辭典). Seoul.

Kim Taegyeong 2022. 거란문자: 천년의 역사, 백년의 연구. Seoul.

Liu Fengzhu 劉鳳翥 2014. 契丹文字研究類編. 北京: 中華書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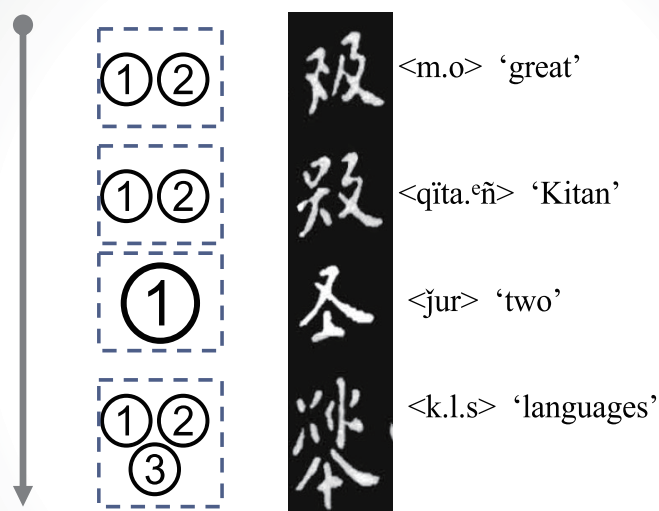
Shimunek, Andrew 2017. *Language of Ancient Southern Mongolia and North China: A Historical Comparative Study of the Serbi or Xianbei Branch of the Serbi-Mongolic Language Family, with an Analysis of Northeastern Frontier Chinese and Old Tibetan Phonology*.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Wu Yingzhe [Oyunch] 2012. 契丹小字新發見資料稊讀問題. Tokyo: ILCAA.

Wu Yingzhe [Oyunch] & Juha Janhunen 2010. *New Materials on the Khitan Small Script*. Global Oriental.

– 27 –

The order of glyphs in the Kitan Assembled Script



Translation: 'The two Great Kitan languages'

(Semantic identification by Wu Yingzhe.

The phonetic reconstruction here is my own.)

– 28 –

永豐天方酌醉洞壑
天璣又從天
集結惘天
結水
天璣又從天
集結惘天
結水
天璣又從天
集結惘天
結水

Some Kitan words in the Langjun Inscription and their correspondences in the Chinese parallel text

父	*ay ‘year’
大	*daw ‘younger br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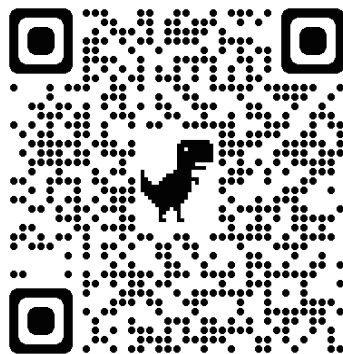
Chinese text (left): 唐乾陵殿廡頽然一無所睹... 時天會十二年歲次甲寅仲冬... 右譯前言

Kitan text (right): 父... 大... 年... 弟... 都統... 經略... 郎君... 嚮... 臣... 陵... 下... 繪... 像... 一... 新... 回... 廊... 四... 起... 不... 勝... 欣... 時... 天... 會... 十... 二... 年... 歲... 次... 甲... 寅... 仲... 冬... 右... 譯... 前... 言...

A Very Brief Overview of Research on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 31 —

- The late Daniel Kane has a wonderful video on YouTube providing a lively and engaging history of Kitan studies for the uninitiated:



— 32 —

Daniel Kane on the history of Kitanology:

“Until the twentieth century the only known surviving text in Kitan was the *Record of the Journey of the Younger Brother of the Emperor of the Great Jin Dynasty* (the Langjun inscription), engraved on the “stele without an inscription” in front of the tomb of Empress Wu Zetian of the Tang dynasty in Xi’an. It was well known before modern times, but scholars thought it was in the Jurchen script, being misled by the reference to the Great Jin Dynasty... It was only after the discovery of the Kitan inscriptions in the tombs of the Liao emperors at Qingling, first published by Louis Kervyn in [1923], that scholars realized that the scripts were identical...”

(Kane,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Brill, 2009, pp. 1-2)

The Belgian missionary Louis Kervyn (1923) published the first identified Kitan funerary inscriptions.

The biggest breakthrough in Kitan decipherment was made by the 契丹小字研究小組 ‘Kitan Small Script Research Group’ formed by 清格爾泰 Chinggeltei, 劉鳳翥 Liú Fèngzhù, 陳乃雄 Chén Nǎixióng, 于寶林 Yú Bǎolín, and 邢復禮 Xíng Fùlǐ, who published their monumental work 契丹小字研究 *Qidān xiǎozì yánjiū* [*A Study of the Kitan Small Script*] in 1985.

This publication marks the beginning of significant progress in Kitan decipherment, and all subsequent research on Kitan owes a great deal to this first step forward.

- We Kitanologists owe so much to this group of intrepid language explorers, who jumped right into the fascinating mysteries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 Against all odds, these founders of Kitanology made great strides in deciphering the Kitan Assembled Script.

The history of Kitan studies in China, Russia, and Japan is well known. (For a summary, see Daniel Kane,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2009, especially pp. 1-26.)

For a summary of Kitanology in Hungary, including the pioneering work of my teacher's teacher Lajos Ligeti and my teacher György Kara, see Ákos Apatóczy and Béla Kempf (2017).

Important work has also been done here in Korea in recent years.

Work on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in Korea:

- 이성규 Lee Seonggyu (Yi Sönggyu)
- 류(유)병재 Ryu (Yoo) Byeongjae (Yu Pyöngjae)
- 김경태 Kim Taegyeong (Kim T'aegyöng)
- 김위현 Kim Wihyeon (Kim Wihyön)
- And myself (Andrew Shimunek)

Two major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by Kim Taegyeong (金泰京):

- 거란소자사전 (契丹小字辭典) [Kitan Small Script Dictionary], 2019.
- 거란문자: 천년의 역사, 백년의 연구 (契丹文字: 千年의 歷史, 百年의 研究) [Kitan Writing: A Millennium of History and a Century of Research], 2022.

Unfortunately, Kim Taegyeong seems to have been unaware of my 2017 book and my chapter on the Kitan language.

The history of Kitan studies *in Mongolia*, however, is much less widely known.

I'll give a brief overview.

The “Secret History” of Kitan Studies in Mongolia

The history of Kitan studies in Mongolia is known to very few.

- 1899 – Wilhelm Radloff – first photos of a Kitan inscription in Mongolia, although misidentified as ‘Chinese’
- 1952 (1959) – Perlee
- 1957 – Pavel Poucha
- 1959 – Rinchen – inscription identified by Bat-Ochir as Kitan
- 1968 – Rinchen
- 1972, 1975 – Perlee
- 1989 – Daniel Kane
- 1992 – Japan-Mongolia Gurwan Gol Expedition

- 2005 (2008) – Takashi Matsukawa
- 2006, 2007 – Sun Bojun
- 2009 – Shimunek fieldwork in Mongolia
- 2010 – Shimunek, first English description of Kitan inscriptions in Mongolia
- 2016 – Shimunek talk at Yale
- 2017 – Shimunek book on the Kitan and other Serbi-Mongolic languages
- 2019 – Shimunek fieldwork in Mongolia
- 2020 – Yoo Byungjae
- 2021 – Lee Seonggyu
- 2023 – Shimunek fieldwork (findings in press)

The largest corpus of data on the Kitan language comes from the Middle Kitan period.

±35 large inscriptions and ±10 smaller texts in Kitan **Assembled Script** (‘small script’) in China and Mongolia:

- Carved epitaphs on carefully prepared stone in beautiful calligraphic hand, many in the hand of Kitan master calligrapher and imperial family member *Yarud *Gu 𐰚𐰍𐰏𐰤 𐰚𐰏𐰤 (耶律故 Yelü Gu).
- Ink inscriptions on unprepared natural rock
- Smaller texts on copper mirrors (銅鏡), a jade seal, and a fish-shaped copper tablet (銅魚符).

±25 large inscriptions and ±30 smaller texts in **Linear Script** ('large script') in Mongolia, China, and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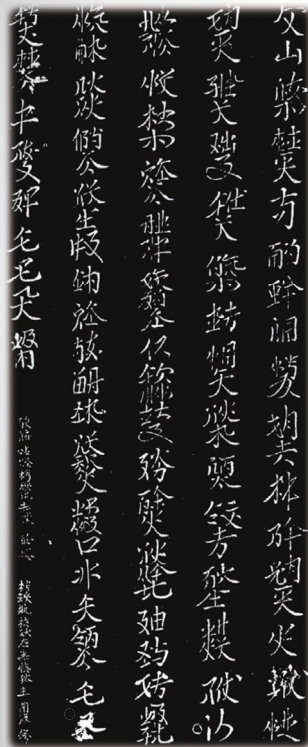
- Carved epitaphs on carefully prepared stone (earliest in China dated to 960).
- Carved inscriptions on unprepared natural stone (earliest in Mongolia dated to 1084).
- Ink inscriptions on unprepared natural rock.
- Texts on paper: Fragment Ch 3586 in Berlin and the Novo Manuscript in St. Petersburg)
- Smaller inscriptions on copper mirrors (銅鏡), wooden tablets (木牘 *mùdú*), silver coins (銀幣), copper tablets (銅符牌), and copper seals (銅印).

— 43 —

A walkthrough of the full text of Kitan half of the Langjun inscription

English translation and analyses based on Shimunek (2017: 274-278), with revisions.

— 44 —



The best studied Kitan inscription is the bilingual Kitan-Chinese Langjun inscription of 1134 CE.

I wrote an article on this inscription (2014), and later significantly revised my findings in my 2017 book.

— 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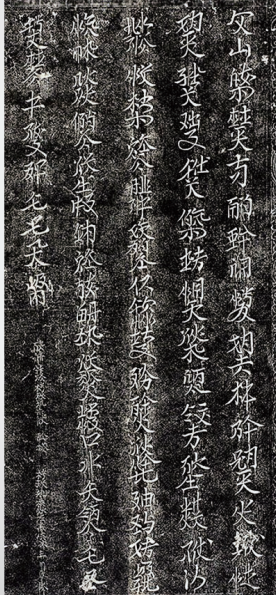
This important text was not written by Kitans.

In fact, it was written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Jurchen Empire, around a decade after the Liao Kitan Empire had ended.

The Jurchens did not natively speak Kitan – they spoke a Manchu-Tungusic language from which Manchu descended – but before they created a writing system for their own language, they used Kitan as their literary language and wrote several inscriptions in Kitan — that is, the Kitan language in Kitan writing was the official written language of the early decades of the Jurchen Empire.

— 46 —

The Kitan Assembled Script in the Jurchen Empire



The earliest known writing system used by the **Jurchen** people—and the earliest written language used by any Manchu-Tungusic people for that matter—is the **Kitan Assembled Script**, which is known to have been used as a literary language in the early part of the **Jurchen Empire** (1115-1234).

The *Dà Jīn Huángdì dūtǒng jīnglüè lángjūn xíngjì* 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 inscription of 1134 (often abbreviated as ‘*Langjun Xingji*’ or ‘*Langjun*’) is an example of a **Middle Kitan** text written in the **Kitan Assembled Script** by Jurchen imperial officials. The text is of great importance to Kitanology, as it is a true bilingual text, consisting of a Middle Kitan text in Kitan Assembled Script and a parallel Chinese translation.

– 47 –

Kitan Linear Script as a Source and Inspiration for Jurchen Writing

Although the Jurchens used Kitan writing in Kitan **Assembled Script** (‘Small Script’) as the literary language of the early part of the Jurchen Empire, the other of the two Kitan writing systems – the **Kitan Linear Script** (‘Large Script’) – inspired and in some ways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of the **Jurchen Script**, which, according to the 金史 *Jīn Shǐ* (the official history of the Jurchen Empire) was created in 1120.

Some Jurchen characters are directly based on Kitan Linear Script glyphs. In most instances, such Jurchen characters are formed by borrowing Kitan Linear Script glyphs for their *semantic* values (usually not their *phonetic* values) and the shapes of the glyphs are modified somewhat. For example:

KLS 𐰚 * ay ‘year’	→	Jurchen 𐰚 * aña ‘year’ > Manchu <i>aniya</i> [aña]
KLS 𐰚 * baq ‘child’	→	Jurchen 𐰚 * jui ‘child’ > Manchu <i>jui</i> [ɟɟui]

(cf. Mongol *baga* ‘young’)

Kit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Jurchen script is a fruitful topic for future research.

– 48 –

So that's a very brief overview of Kitan writing in the Jurchen Empire.

The special thing about the *Langjun* Inscription is that it is a *bilingual* inscription written in both Kitan and Chi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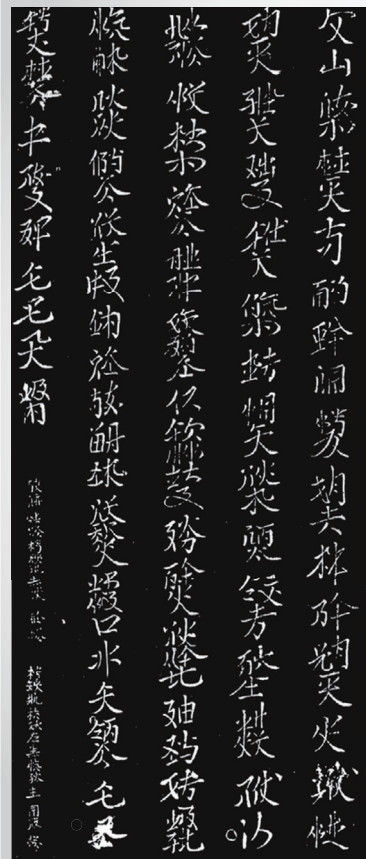
The parallel text makes it something of a Rosetta Stone to a certain extent (see Shimunek, 2014, *Acta Orientalia 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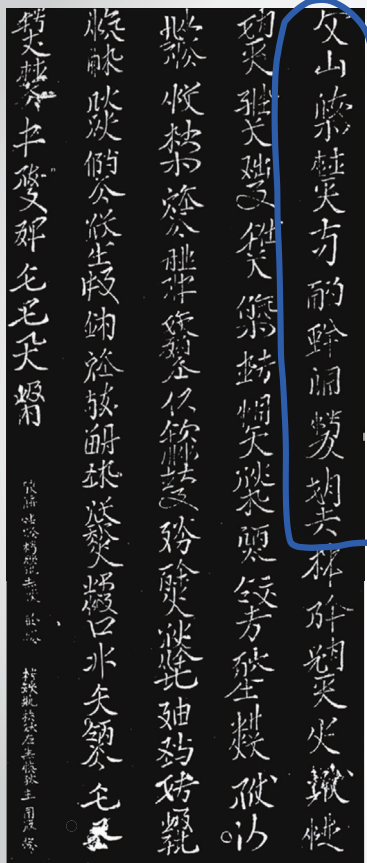
Although the vast majority of Kitan literature consists of funerary epitaphs and can therefore be somewhat melancholy in nature, the Langjun Inscription is different:

This inscription is a cheerful celebratory text commemorating a Jurchen prince's visit to the tomb of China's only female emperor, Tang Empress 武則天 Wù Zétiān, which the Jurchen prince happened by chance to come across while hunting in the mountains. The text memorializes his successful architectural restoration of the collapsed 'palace halls' and 'corridors' of the tomb which had been damaged by 'bandits and robbers,' and the party he holds with the local officials to celebrate the successful endeavor.

Let's have a look through the text and *read* in Kitan.

The phonetic values and readings are those presented in my 2017 book, with minor revisions.





This is the first phrase in the first line of the Kitan half of the inscription.

- 53 -

父
山
藥
柱
失
方

<GREAT>

*... 'great'

<GOLD>

*nigu 'gold'

<g.ur.en>

*gur-ən

'state-GEN'

<qa.γa.an>

*qaba-n

'emperor-GEN'

<deu>

*dəw 'younger brother'

● 54

- 54 -

父
山
藥
柱
尖
方

<GREAT>

*... 'great'

<GOLD>

***nigu** 'gold'

Cf. Late Kitan

女古 *nūgu

<g.ur.en>

***gur-ən**

'state-GEN'

<qa.γa.an>

***qaba-n**

'emperor-GEN'

<deu>

***dəw** 'younger brother'

● 55

— 55 —

父
山
藥
柱
尖
方

<GREAT>

*... 'great'

<GOLD>

***nigu** 'gold'

<g.ur.en>

***gur-ən**

'state-GEN'

→ Jurchen 國土 *gurun* >

Manchu *gurun* 'state'

<qa.γa.an>

***qaba-n**

'emperor-GEN'

<deu>

***dəw** 'younger brother'

● 56

— 56 —

父

<GREAT>

*... 'great'

山

<GOLD>

*nigu 'gold'

𡩿

<g.ur.en>

*gur-ən

'state-GEN'

𡩿

<qa.γa.an>

*qaba-n

'emperor-GEN'

Cf. Mongol *qayan* ~
qahan ~ *qa'an*

𡩿

<deu>

*dəw 'younger brother'

● 57

- 57 -

父

<GREAT>

*... 'great'

山

<GOLD>

*nigu 'gold'

𡩿

<g.ur.en>

*gur-ən

'state-GEN'

𡩿

<qa.γa.an>

*qaba-n 'emperor-GEN'

𡩿

<deu>

*dəw 'younger brother'

Cf. Middle
Mongol *de'ü*

● 58

- 58 -

𐰇𐰏𐰍

<čau.ǰ>

*čaw-ǰ 'battle-OCCUP'

Kitan */čawr-ǰ/ >
[čawǰ] (regular
sound change).
Cf. MMgl ča'ur
'military
campaign' and -či
'occupation suffix'

𐰇𐰏𐰍

<qur.u>

*quru 'commander'

𐰇𐰏𐰍

<g.ing>

𐰇𐰏𐰍

<l.iau.u^w>

*ginlyaw 'military commissioner'

𐰇𐰏𐰍

<š.a.ri>

*šari 'court attendant'

•

● 59

— 59 —

𐰇𐰏𐰍

<čau.ǰ>

*čaw-ǰ 'battle-OCCUP'

𐰇𐰏𐰍

<qur.u>

*quru 'commander'

𐰇𐰏𐰍

<g.ing>

𐰇𐰏𐰍

<l.iau.u^w>

*ginlyaw 'military commissioner'

𐰇𐰏𐰍

<š.a.ri>

*šari 'court attendant'

•

● 60

— 60 —

酌
𨔵

<čau.ǰ>

*čaw-ǰ 'battle-OCCUP'

<qur.u>

*quru 'commander'

𨔵
𨔵

<g.ing>

<l.iau.u^w>

*ginlyaw

'military commissioner'

← 經略

Liao Ch.

(cf. modern
jīnglüe)

𨔵
𨔵

<š.a.ri>

*šari 'court attendant'

● 61

- 61 -

酌
𨔵
𨔵
𨔵

<čau.ǰ>

*čaw-ǰ 'battle-OCCUP'

<qur.u>

*quru 'commander'

<g.ing>

<l.iau.u^w>

*ginlyaw 'military commissioner'

𨔵
𨔵

<š.a.ri> / <š.a.li>

*šari / *š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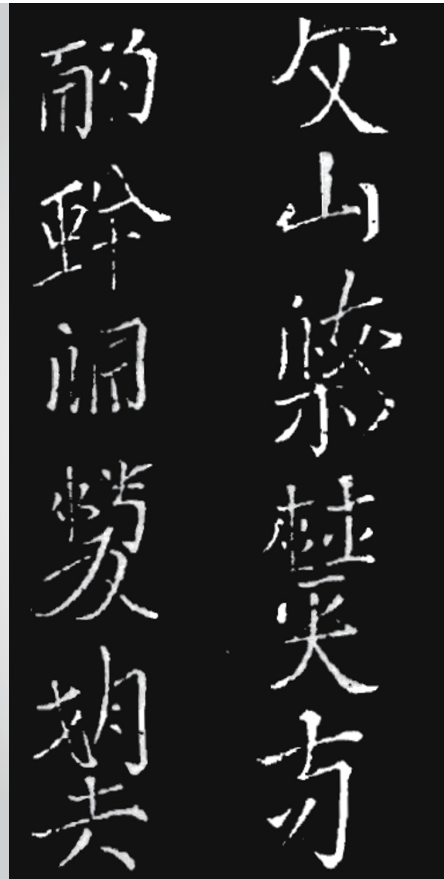
'court attendant'

← ? 闍梨 < 阿闍梨

← *ācārya* 'teacher,
master'

● 62

- 62 -



Reconstructed phr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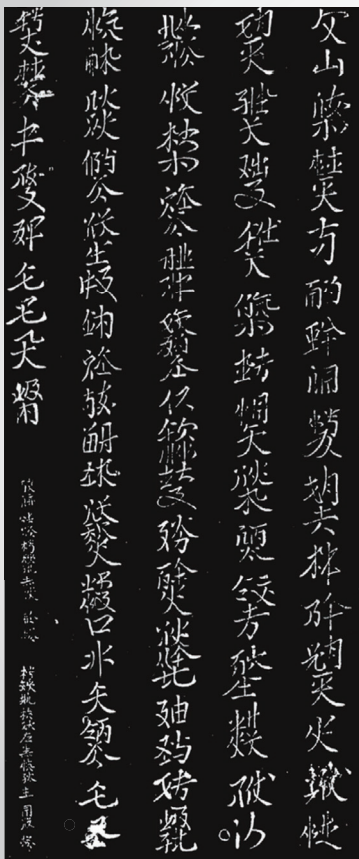
*... *nigu *gur-ən *qaka-n *dəw
*čawj *quru *ginlyaw *šari/*šali

Translation:

‘The younger brother of the
Emperor of the Great
Golden State, Campaign
Commander, Military
Commissioner, Court
Attendant’

● 63

— 63 —



— 64 —

林
𠂔
𠂔
𠂔
𠂔
𠂔

<č.ar>

*čar

'long time'

<am.s>

*ams (meaning unknown)

<REGION.a.an>

*...a-n

'region-GEN'

<ui> *uy

'matters'

<eu.ñ> *əw-ñ

'not.exist-SBRD.CNJC'

● 67

- 67 -

林
𠂔
𠂔
𠂔
𠂔
𠂔

<č.ar>

*čar

'long time'

<am.s>

*ams (meaning unknown)

<REGION.a.an>

*...a-n

'region-GEN'

<ui> *uy

'matters'

<eu.ñ> *əw-ñ

'not.exist-SBRD.CNJC'

● 68

- 68 -

快

功采

引天
础
又
從天

<l.iang>

<š.a.an>

***Lyanšan**

‘Liang Mountain’

← 梁山 Liangshan

<ja.ki.i>

***jaki** ‘south.slope(?)’

<m.an.eñ>

***man-əñ**

‘hunt-CVB’

<s.m.i>

***sm-i** ‘go.along-CVB’

●71

- 71 -

快

功采

引天
础
又
從天

<l.iang>

<š.a.an>

***Lyanšan**

‘Liang Mountain’

<ja.ki.i>

***jaki** ‘south.slope(?)’

<m.an.eñ>

***man-əñ**

‘hunt-CVB’

<s.m.i>

***sm-i** ‘go.along-CVB’

●72

- 72 -

快
 功
 采
 雅
 关
 雅
 关
 雅
 关

<l.iang>

<š.a.an>

***Lyaŋšan**

‘Liang Mountain’

<ja.ki.i>

***jaŋki** ‘south.slope(?)’

<m.an.eñ>

***man-əñ**

‘hunt-CVB’

Cf. WMgl *mana-*, Khalkha [man-], Daur [mana-], Shira Yoghori [mana:-] ‘watch guard over, keep watch’

<s.m.i>

***sm-i** ‘go.along-CVB’

● 73

- 73 -

快
 功
 采
 雅
 关
 雅
 关
 雅
 关

<l.iang>

<š.a.an>

***Lyaŋšan**

‘Liang Mountain’

<ja.ki.i>

***jaŋki** ‘south.slope(?)’

<m.an.eñ>

***man-əñ**

‘hunt-CVB’

<s.m.i>

***sm-i** ‘go.along-CVB’

● 74

- 74 -

築

<ta.ang.en>
*Taŋ-ən
'T'ang-GEN'

← Ch. 唐 'T'ang' + CSM *-Vn
'genitive suffix' (cf. Mgl -Un ~
-yin ~ (...n)-U id.)

封

<ki.ên>

惆

<l.ing.de>

*kyɛnliŋ-də

'at the Qianling tombs'

矢

<k.ui.č>

*kuy-č

'arrive-CVB'

來

●75

- 75 -

築

<ta.ang.en>
*Taŋ-ən
'T'ang-GEN'

封

<ki.ên>

惆

<l.ing.de>

*kyɛnliŋ-də

'at the Qianling tombs'

矢

<k.ui.č>

*kuy-č

'arrive-CVB'

來

← Ch. 乾陵
'Qianling Tombs'

●76

- 76 -

築

<ta.ang.en>
*Taŋ-ən
'T'ang-GEN'

蚌

<ki.ên>

惆
矢

<l.ing.de>
*kyɛnliŋ-də
'at the Qianling tombs'

𪛗
𪛗

<k.ui.č>
*kuy-č
'arrive-CVB'

Kitan */kuyr-č/ > [kuy-č]
Cf. Mgl *kür-čü* 'arrived
and...'

●77

-77-

𪛗

<g.iu.ung>

𪛗
𪛗

<t.iê.ên>
*giwŋtyɛn
'palace halls'

← Liao Chinese (遼代漢語)
宮殿 'palace halls'

𪛗

<y.u.■>
*yu...
'collapse(?)'

𪛗

<p.u.ui.i>
<dau.ñ>
*puydaw-ñ
'bandits-SBRD.CNJC'

●78

-78-

	<g.iu.ung>	
	<t.iê.ên>	
	*giwŋtyɛn	
	'palace halls'	
	<y.u.■>	No known cognates.
	*yu...	
	'collapse(?)'	
	<p.u.ui.i>	
	<dau.ñ>	
	*puydaw-ñ	
	'bandits-SBRD.CNJ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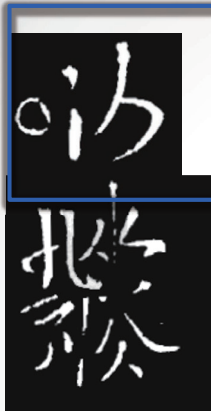
●79

- 79 -

	<g.iu.ung>	
	<t.iê.ên>	
	*giwŋtyɛn	
	'palace halls'	
	<y.u.■>	← Ch. 匪盜 'robbers and bandits' + *-ñ 'subordinate conjunction- forming suffix'
	*yu...	
	'collapse(?)'	
	<p.u.ui.i>	
	<dau.ñ>	
	*puydaw-ñ	
	'bandits-SBRD.CNJC'	

●80

- 80 -



<gi>
*gi
'not'

Kitan *gi 'preverbal negative marker' is cognate to MMgl *ügei* 'not existing, absence' and Boongan and Baonang *gi* [ki] 'negative copula' < CSM *ugai

<γo.l.γ.er>
*Gəl-Ɂ-ər
'see-CP-PST.VN ♂'

●81

-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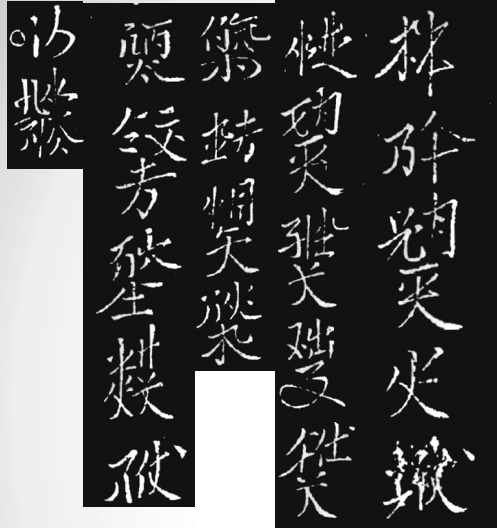
<gi>
*gi
'not'

<γo.l.γ.er>
*Gəl-Ɂ-ər
'see-CP-PST.VN ♂'

Kitan *-lɁ(a)- ~ *-Ɂ(a)- 'causative-passive suffix' is cognate to Mongol *-lya-* ~ *-lge-* ~ *-ya-* ~ *-ge-* 'causative suffix'

●82

-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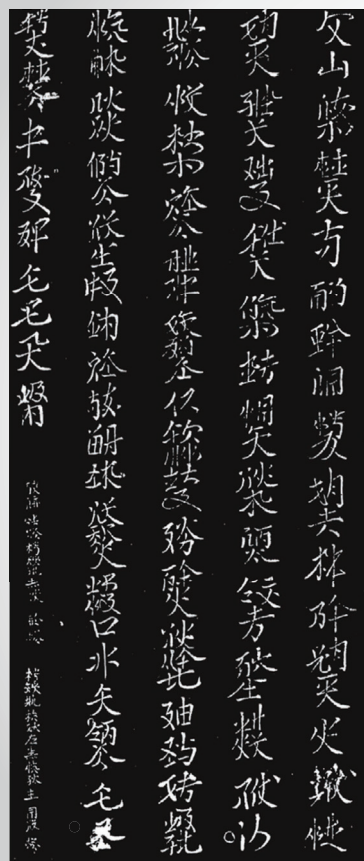


Translation:

'For a long time ... there were no regional affairs, so he went hunting along the southern slopes of Liang Mountain and arrived at the Qianling Tombs of the Tang. The palace halls had collapsed(?) and because of bandits and robbers, they could not be seen.'

Reconstructed sentence:

*čar *ams *...an *uy *əw-ñ *lyanšan
 *jaki *manəñ *smi *Tanən
 *kyenliŋdə *kuyč *giwŋtyen *yu...
 *puydawñ *gi *ɣəlɤər.



This is the next sentence.

— 85 —

 $\langle \text{li} \rangle$

<č.eu.en>

*Li *čəw-ən

'Li prefecture-GEN'

← 醴州

‘Li prefecture’

<nai.d.er>

*nay-d-ər

‘official-PL-AIC’

<b.ang.γ.ai>

*baŋga-y

'issue.orders-CVB'

● 86

— 86 —

收
枯
木

<č.eu.en>

*Li *čəw-ən

'Li province-GEN'

焚

<nai.d.er>

*nay-d-ər

'official-PL-AIC'

耻
律

<b.ang.γ.ai>

*baŋga-y

'issue.orders-CVB'

Kitan ***nay** 'head' > 'official'
(no known cognates).

Kitan *-**d** plural suffix' :

MMgl -*d* 'plural suffix'.

Kitan *-ər 'accusative-

instrumental-comitative

suffix' : MMgl -'Ar ~ -i'Ar

'instrumental suffix'

●87

- 87 -

收
枯
木

<č.eu.en>

*Li *čəw-ən

'Li province-GEN'

焚

<nai.d.er>

*nay-d-ər

'official-PL-AIC'

耻
律

<b.ang.γ.ai>

*baŋga-y

'issue.orders-CVB'

Cf. /baŋga/ ~

WMgl *bangγ-a*

'reprimand'

(pace Róna-Tas)

●88

- 88 -



<š.de>
 *šdə (meaning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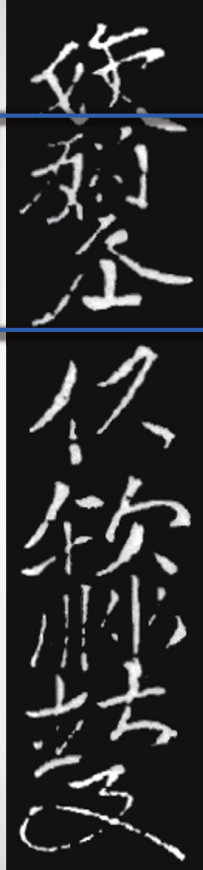
<u^w.j.d>
 *uǔ-d
 'craftworkers'

<?>
 *... (phonetic value and meaning unknown)

<s.qo.■.l.γa.al.eñ>
 *sqo...-lka-ləñ
 'make.repairs-CP-PST'

●89

— 89 —



<š.de>
 *šdə (meaning unknown)

<u^w.j.d>
 *uǔ-d
 'craft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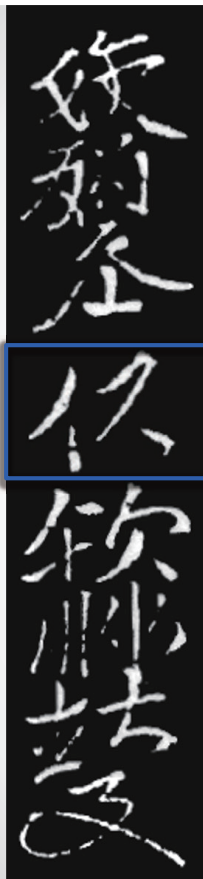
← OTrk *uz* 'skilled craftsworker'
 + CSM *-d 'plural suffix' (cf.
 MMgl -d)

<?>
 *... (phonetic value and meaning unknown)

<s.qo.■.l.γa.al.eñ>
 *sqo...-lka-ləñ
 'make.repairs-CP-PST'

●90

—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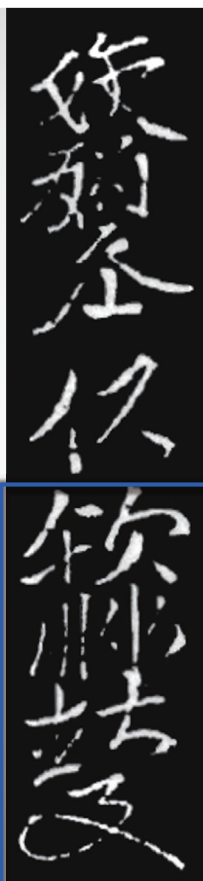
<š.de>
 *šdə (meaning unknown)
 <u^w.j.d>
 *uǰ-d
 'craftworkers'

<?>
 *... (phonetic value and meaning unknown)

<s.qo.■.l.γa.al.eñ>
 *sqo...-lba-ləñ
 'make.repairs-CP-PST'

● 91

- 91 -



<š.de>
 *šdə (meaning unknown)
 <u^w.j.d>
 *uǰ-d
 'craftworkers'

<?>
 *... (phonetic value and meaning unknown)

<s.qo.■.l.γa.al.eñ>
 *sqo...-lba-ləñ
 'make.repairs-CP-PST'

Kitan *-lba- 'causative-passive' : Mgl -IGA- 'causative'.
 Kitan *-ləñ 'past tense' : MMgl -IU'Ai id.

● 92

- 92 -

矜
 變
 然
 比
 由
 药
 考
 覈

<eñ.e>
 *əñə
 'now'

Cf. Mgl *ene* 'this' < CSM *əñə 'proximal ad-word (temporal or spatial)' > Kitan *əñə 'now, at present'

<omo.qu.ui>
 *ɔmɔqu-y
 'return-CVB'

<k.ui.ir.s.Awr>
 *kuyr-səwr
 'arrive-CVB'

<eñ.??>
 *əñ... 'now(?)' or 'then(?)'

<jur.en>
 *jurəñ 'paintings'

<š.ên>
 *šɛn 'new'

<p.o.j.Awr>
 *pɔj-Awr 'became-CVB'

矜
 變
 然
 比
 由
 药
 考
 覈

<eñ.e>
 *əñə
 'now'

<omo.qu.ui>
 *ɔmɔqu-y
 'return-CVB'

<k.ui.ir.s.Awr>
 *kuyr-səwr
 'arrive-CVB'

<eñ.??>
 *əñ... 'now(?)' or 'then(?)'

<jur.en>
 *jurəñ 'paintings'

<š.ên>
 *šɛn 'new'

<p.o.j.Awr>
 *pɔj-Awr 'became-CVB'

殄
 變
 然
 然
 由
 站
 考
 覈

<eñ.e>
 *əñə
 'now'
 <omo.qu.ui>
 *ɔmɔqu-y
 'return-CVB'
 <k.ui.ir.s.Awr>
 *kuyr-səwr
 'arrive-CVB'
 <eñ.ʔ>
 *əñ... 'now(?)' or 'then(?)'
 <ʃur.en>
 *ʃurəñ 'paintings'
 <š.ên>
 *šen 'new'
 <p.o.ʃ.Awr>
 *pəʃ-Awr 'became-CVB'

The root may be cognate to
 Mgl *bol-* 'become'

廊
 廊
 跌
 跌
 伯
 伯

<l.ang>
 *laŋ
 'corridor(s)'

← Ch. 廊

<go.č>
 *gɔ-č (meaning unknown)

<ku^w.ud.u^w.ui>
 *kuduw-i (meaning unknown)

<■.en.ər>
 *...ən-ər
 (masculine past tense verb)
 (root meaning unknown)

𐏃𐏃

<l.ang>
*laŋ
'corridor(s)'

𐏃𐏃

<go.č>
*gǝ-č (meaning unknown)

< ? */gǝr-č/
Cf. MMgl *gere-* ~
gerel 'light' (*SHM*).
Kitan *gǝ-č perhaps
'illuminate-CVB' (?)

𐏃𐏃

<ku^w.ud.u^w.ui>
*kuduw-i

𐏃𐏃

<■.en.ər>
*...ən-ər
(masculine past tense verb)
(root meaning unknown)

𐏃𐏃

•

● 101

— 101 —

𐏃𐏃

<l.ang>
*laŋ
'corridor(s)'

𐏃𐏃

<go.č>
*gǝ-č (meaning unknown)

𐏃𐏃

<ku^w.ud.u^w.ui>
*kuduw-i (meaning unknown)

𐏃𐏃

<■.en.ər>
*...ən-ər
(masculine past tense verb)
(root meaning unknown)

𐏃𐏃

•

● 102

— 102 —



<l.ang>

*laŋ

'corridor(s)'

<go.č>

*gɔ-č (meaning unknown)

<ku^w.ud.u^w.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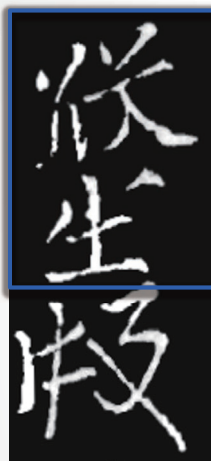
*kuduw-i (meaning unknown)

<■.en.ər>

*...ən-ər

(masculine past tense verb)

(root meaning unknown)



<k.i.■>

*ki...

'inexpressibly' (?)

<■.ēñ>

*...-(l')əñ

'be.delighted(?)'-PST



<k.i.■>
*ki...
'inexpressibly' (?)

<■.eñ>
*...-(l')əñ
'be.delighted(?)'-PST

Kitan *-ləñ 'past tense'
: MMgl -IU'Ai id.



<em.en>
*əṃ-ən 'city-GEN'

Kitan *-ən cognate to Mgl
genitive suffix

<nai.d>
*nay-d 'officials'

<deu.ur>
*dəw-ur 'younger.brother-AIC'

<■.b>
*...b 'wine'

<êṃ.č>
*ṣm-č 'drink'

<k.i.ši.uw.ui>
*kišyuw-i 'be.merry-CVB'

<p.od.l.eñ>
*pəd-ləñ 'return-PST'

鉤
 祿
 駁
 冊
 球
 送
 焚
 燬

<em.en>
 *əṃ-ən 'city-GEN'

<nai.d>
 *nay-d 'officials'

Kitan *-d cognate to Mgl -d
 'plural suffix'

<deu.ur>
 *dəw-ur 'younger.brother-AIC'

<■.b>
 *...b 'wine'

<êṃ.č>
 *ɛṃ-č 'drink'

<k.i.ši.uw.ui>
 *kišyuw-i 'be.merry-CVB'

<p.od.l.eñ>
 *pəd-ləñ 'return-PST'

● 107

— 107 —

鉤
 祿
 駁
 冊
 球
 送
 焚
 燬

<em.en>
 *əṃ-ən 'city-GEN'

<nai.d>
 *nay-d 'officials'

<deu.ur>
 *dəw-ur 'younger.brother-AIC'

<■.b>
 *...b 'wine'

Cf. MMgl *de'ü* 'younger brother'.
 The Kitan accusative-instrumental-
 comitative case suffix is cognate to
 Mongol instrumental case.

<êṃ.č>
 *ɛṃ-č 'drink'

<k.i.ši.uw.ui>
 *kišyuw-i 'be.merry-CVB'

<p.od.l.eñ>
 *pəd-ləñ 'return-PST'

● 108

— 108 —

鉤
 衿
 故
 酣
 杯
 熒
 燄
 煖

<em.en>
*ǣm-ǣn 'city-GEN'

<nai.d>
*nay-d 'officials'

<deu.ur>
*dǣw-ur 'younger.brother-AIC'

<■.b>
*...b 'wine'

<ê.m.č>
*ǣm-č 'drink'

<k.i.ši.uw.ui>
*kišyuw-i 'be.merry-CVB'

Kitan ***kišyu-** 'make merry' may be cognate to modern WMgl **kese-** 'to wander around, go around, call on one's neighbors' (no known MMgl cognates)

<p.od.l.eñ>
*pǣd-lǣñ 'return-PST'

● 111

- 111 -

鉤
 衿
 故
 酣
 杯
 熒
 燄
 煖

<em.en>
*ǣm-ǣn 'city-GEN'

<nai.d>
*nay-d 'officials'

<deu.ur>
*dǣw-ur 'younger.brother-AIC'

<■.b>
*...b 'wine'

<ê.m.č>
*ǣm-č 'drink'

<k.i.ši.uw.ui>
*kišyuw-i 'be.merry-CVB'

<p.od.l.eñ>
*pǣd-lǣñ 'return-PST'

Kitan ***-lǣñ** 'past tense'
: MMgl **-IU'Ai** id.

● 112

- 112 -

[illegible]

*əmən *nayd *dəwur *...b *ɛmč *kišyuwi *pədləñ.

‘He issued orders to the officials of Li province, and had craftworkers ... repair ... Now, he returned, and the paintings had become new, and the corridors were... and... He was inexpressibly(?) delighted(?). He drank wine and made merry with his younger brothers the local officials, and then returned.’

父山藥桂美方酌辭洞鑿地夫梓幹烟美火鐵使
功災聯美趙又姓美築結爛矢聯衣票錢方欲生數破以
聯收結和燈公聯律雙翠星似錦鼓跨餘聯比袖約坊麗
聯聯跌跌個公欲生收鉤溢鼓酣球送焚糧口非矢額美毛
錯美桂美中發邪毛毛天醫

猶太轉
半發文
解宅宅
天
天
天
天

口
水
矢
領
參
宅
參

This is the next sentence.

— 115 —

口
水
矢
領
參
宅
參

<qai>
*qay 'that' ← Ch. 該

<po>
*pə 'time'

<HEAVEN>
*... 'Heaven' (phonetic value unknown)

<t.iwu.er>
*tiw-ər
'gather-PST'

<par>
*par
'ten' (cf. Róna-Tas)

<jur>
*jur
'two'

● 116

— 116 —

	<qai> *qay ‘that’ ← Ch. 該	
	<po> *pɔ ‘time’	Cf. Late Kitan 𐵓 ‘time, season’. Cognate to MMgl <i>hon</i> ‘year’. Manchu <i>fon</i> < Jurchen 玫 𐵓 <i>pon</i> ← Kitan <i>*pɔ-n</i> ‘time-GEN’
	<HEAVEN> *... ‘Heaven’ (phonetic value unknown)	
	<t.iwu.er> *tiw-ər ‘gather-PST’	
	<par> *par ‘ten’ (cf. Róna-Tas)	
	<jur> *jur ‘two’	

● 117

– 117 –

	<qai> *qay ‘that’ ← Ch. 該	
	<po> *pɔ ‘time’	
	<HEAVEN> *... ‘Heaven’	Phonetic value unknown, but the glyph itself was clearly inspired by Chinese 天 ‘Heaven’.
	<t.iwu.er> *tiw-ər ‘gather-PST’	
	<par> *par ‘ten’ (cf. Róna-Tas)	
	<jur> *jur ‘two’	

● 118

– 118 –

<qai>
 *qay 'that' ← Ch. 該

<po>
 *pɔ 'time'

<HEAVEN>
 *... 'Heaven' (phonetic value unknown)

<t.iwu.er>
 *tiw-ər
 'gather-PST'

Kitan *tiw- ~ *diw- 'gather' is cognate to
 WMgl *tegü-* ~ late western MMgl *tū-* and
 early eastern MMgl *temgü-* 'pick up, gather'

<par>
 *par
 'ten' (cf. Róna-Tas)

<ɟur>
 *ɟur
 'two'

● 119

— 119 —

<qai>
 *qay 'that' ← Ch. 該

<po>
 *pɔ 'time'

<HEAVEN>
 *... 'Heaven' (phonetic value unknown)

<t.iwu.er>
 *tiw-ər
 'gather-PST'

<par>
 *par
 'ten' (cf. Róna-Tas)

Cognate to MMgl *harba-n* 'ten'

<ɟur>
 *ɟur
 'two'

● 120

— 120 —

靑	<s.iau.qu> *syawqu 'blue'	
𪛗	<qa.ɣa.as> *qabas 'tiger'	No known cognates.
𪛗	<ai> *ay 'year'	
𪛗	<dau.ur.eñ> *dawrəñ 'middle'	
𪛗	<u ^w .wl> *uwl 'winter'	
𪛗	<par> *par 'ten'	
𪛗	<dur> *dur 'four'	
𪛗	<DAY> *ñayr 'day'	
𪛗	<p.o.on> *pɔ-n 'be-PST'	

— 123 —

靑	<s.iau.qu> *syawqu 'blue'	
𪛗	<qa.ɣa.as> *qabas 'tiger'	
𪛗	<ai> *ay 'year'	Lee Seonggyu suggested a connection with Korean 해 'year' (2013), but cf. Late Middle Korean hay
𪛗	<dau.ur.eñ> *dawrəñ 'middle'	
𪛗	<u ^w .wl> *uwl 'winter'	
𪛗	<par> *par 'ten'	
𪛗	<dur> *dur 'four'	
𪛗	<DAY> *ñayr 'day'	
𪛗	<p.o.on> *pɔ-n 'be-PST'	

— 124 —

𐰽𐰺𐰍	<s.iau.qu> *syawqu 'blue'
𐰽𐰺𐰍	<qa.γa.as> *qabas 'tiger'
𐰽𐰺𐰍	<ai> *ay 'year'
𐰽𐰺𐰍	<dau.ur.eñ> *dawrəñ 'middle'
𐰽𐰺𐰍	<u ^w .wl> *uwl 'winter'
𐰽𐰺𐰍	<par> *par 'ten'
𐰽𐰺𐰍	<dur> *dur 'four'
𐰽𐰺𐰍	<DAY> *ñayr 'day'
𐰽𐰺𐰍	<p.o.on> *pɔ-n 'be-PST'

— 125 —

𐰽𐰺𐰍	<s.iau.qu> *syawqu 'blue'
𐰽𐰺𐰍	<qa.γa.as> *qabas 'tiger'
𐰽𐰺𐰍	<ai> *ay 'year'
𐰽𐰺𐰍	<dau.ur.eñ> *dawrəñ 'middle'
𐰽𐰺𐰍	<u ^w .wl> *uwl 'winter'
𐰽𐰺𐰍	<par> *par 'ten'
𐰽𐰺𐰍	<dur> *dur 'four'
𐰽𐰺𐰍	<DAY> *ñayr 'day'
𐰽𐰺𐰍	<p.o.on> *pɔ-n 'be-PST'

Cognate to MMgl *übü* and Literary Mongol *ebül* 'winter'

— 126 —

錯文桂字中發聲元毛天婿

口水矢額元毛天婿

Reconstructed sentence:

*qay *pɔ [HEAVEN] *tiw-r *par *ʃur
*syawqu *qakas *ay *dawrəñ *uwl
*par *dur *ñayr *pɔ-n.

Translation:

‘That time was the twelfth Blue
Tiger year of the Celestial
Gathering reign period [1134 CE],
in mid-winter, on the fourteenth
day.’

— 131 —

父山藥桂方酌辭洞蒙期去律許納天火鐵
功災難天瑞受律天集結燭矢誤衆顛鉸方
盤收結和隆公律律律律律律律律律律律
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帳
錯文桂字中發聲元毛天婿
敬請諸位鑒察
桂城魏德石書於...

— 132 —

This is the next sentence.

— 133 —

汝
 州
 精
 巧
 流
 去
 漢
 的
 故

<y.au>

<g.ün>

*Yaw *gün 'You prefecture'

← Ch. 宥郡

<pu.r.k.er>

*purk-ər

'control(?) - PST'

<č.iau.qu.ui>

*čyawquy 'Chinese'

<i.ir> *ir 'name'

<ong> *ɔŋ 'Wang'

<g.ui> *guy 'Gui'

<■.or> *...ɔ-r 'present-PST'

<č.er> *č-ər 'write-PST'

● 134

— 134 —



<y.au>

<g.ün>

*Yaw *gün 'You prefecture'

<pu.r.k.er>

*purk-ər

'control(?) -PST'

<č.iau.qu.ui>

*čyawquy 'Chinese'

<i.ir> *ir 'name'

<ong> *ɔŋ '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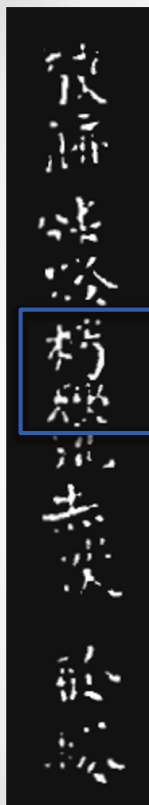
<g.ui> *guy 'Gui'

<■.or> *...ɔ-r 'present-PST'

<č.er> *č-ər 'write-PST'

● 135

— 135 —



<y.au>

<g.ün>

*Yaw *gün 'You prefecture'

<pu.r.k.er>

*purk-ər

'control(?) -PST'

<č.iau.qu.ui>

*čyawquy 'Chinese'

← Ch. 中國

<i.ir> *ir 'name'

<ong> *ɔŋ '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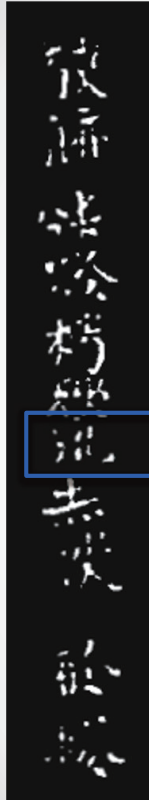
<g.ui> *guy 'Gui'

<■.or> *...ɔ-r 'present-PST'

<č.er> *č-ər 'write-PST'

● 136

— 136 —



<y.au>
<g.ün>
*Yaw *gün 'You prefecture'

<pu.r.k.er>
*purk-ər
'control(?) -PST'

<č.iau.qu.ui>
*čyawquy 'Chinese'

<i.ir> *ir 'name'

<ong> *ɔŋ '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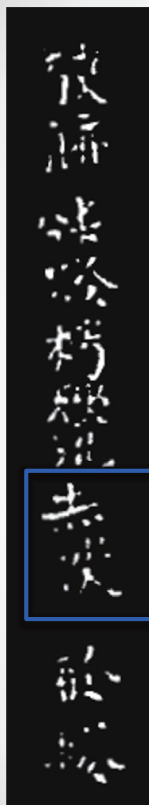
<g.ui> *guy 'Gui'

<■.or> *...ɔ-r 'present-PST'

<č.er> *č-ər 'write-PST'

● 137

- 137 -



<y.au>
<g.ün>
*Yaw *gün 'You prefecture'

<pu.r.k.er>
*purk-ər
'control(?) -PST'

<č.iau.qu.ui>
*čyawquy 'Chinese'

<i.ir> *ir 'name'

<ong> *ɔŋ 'Wang'

<g.ui> *guy 'G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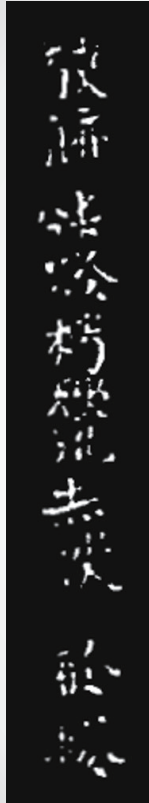
← Ch. 王圭

<■.or> *...ɔ-r 'present-PST'

<č.er> *č-ər 'write-PST'

● 138

- 1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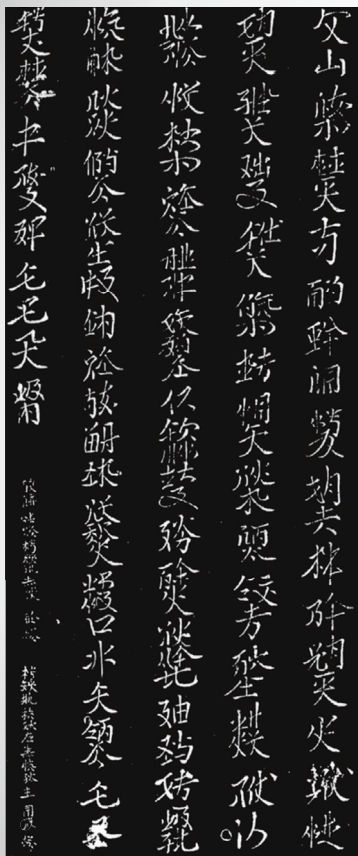


Reconstructed sentence:

*Yaw *gün *purkər *čyawquy *ir *ŋ *Guy
*...ər *čər.

Translation:

‘Written by [a man with the] Chinese name Wang Gui, in charge of You prefecture.’



This is the final sentence
of the Kitan text.

— 143 —

<č.iau.qu.ui>
 *čyawquy ‘Chinese’ ← Liao Chinese 中國

<■.g>
 *...g ‘writing’

<č.ang> <š.u> *čaŋšu ‘Court Minister’

<jǐ>
 <pong>
 <l.ang>
 <j.ung> *jipɔŋlaŋjuŋ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ong>
 <ing>
 <k.i>
 *ɔŋ *iŋki
 ‘Huang Yingqi’

<č.er>
 *č-ər ‘write-PST’

● 144

— 144 —

<č.iau.qu.ui>
 *čyawquy ‘Chinese’

<■.g>
 *...g ‘writing’

<č.ang> <š.u>
 <jī>
 <pong>
 <l.ang>
 <j.ung> *jipɔŋlaŋjuŋ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ong>
 <ing>
 <k.i>
 *ɔŋ *iŋki
 ‘Huang Yingqi’

<č.er>
 *č-ər ‘write-PST’

Some scholars speculate a connection with Old Uighur *üzük* ~ *užik* ‘syllable, letter, writing’ or with Mongol *bičig* ‘writing’ but the phonetic value of the first Kitan glyph is unknown. (Old Uighur *üzük* ~ *užik* is from Sogdian *ʾwǰʾk* q.v. Jens Wilkens, 2021, *Handwörterbuch des Altuigurischen*).

● 145

– 145 –

<č.iau.qu.ui>
 *čyawquy ‘Chinese’

<■.g>
 *...g ‘writing’

<č.ang> <š.u> *čaŋšu ‘Court Minister’

<jī>
 <pong>
 <l.ang>
 <j.ung> *jipɔŋlaŋjuŋ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ong>
 <ing>
 <k.i>
 *ɔŋ *iŋki
 ‘Huang Yingqi’

<č.er>
 *č-ər ‘write-PST’

← 尚書

● 146

– 146 –

<č.iau.qu.ui>
 *čyawquy ‘Chinese’
 <■.g>
 *...g ‘writing’
 <č.ang> <š.u> *čaṇṣu ‘Court Minister’
 <jī>
 <pong>
 <l.ang>
 <j.ung> *jipɔŋlaŋjuŋ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 Liao Chinese 職方郎中
 <ong>
 <ing>
 <k.i>
 *ɔŋ *iŋki
 ‘Huang Yingqi’
 <č.er>
 *č-ər ‘write-PST’

● 147

– 147 –

<č.iau.qu.ui>
 *čyawquy ‘Chinese’
 <■.g>
 *...g ‘writing’
 <č.ang> <š.u> *čaṇṣu ‘Court Minister’
 <jī>
 <pong>
 <l.ang>
 <j.ung> *jipɔŋlaŋjuŋ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ong>
 <ing>
 <k.i>
 *ɔŋ *iŋki
 ‘Huang Yingqi’
 ← 黃應期
 <č.er>
 *č-ər ‘write-PST’

● 148

– 148 –



<č.iau.qu.ui>
*čyawquy 'Chinese'

<■.g>
*...g 'writing'

<č.ang> <š.u> *čaṇṣu 'Court Minister'

<jī>
<pong>
<l.ang>
<j.ung> *jipɔŋlanjɔŋ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ong>
<ing>
<k.i>
*ɔŋ *iŋki
'Huang Yingqi'

<č.er>
*č-ər 'write-PST'

Kitan *č- < CSer *tī- ~ *dī- 'to write' ← ? 書 LOC dial. *tī 'to write'
Kitan *-(V)r 'masculine past tense verbal noun suffix' is cognate to MMgl -r 'deverbal noun suffix' as in MMgl amur 'rest' < amu- 'to rest' + -r 'deverbal noun suffix'

● 149

149—

Reconstructed sentence:

*čyawquy *...g *čaṇṣu *jipɔŋlanjɔŋ *ɔŋ
*iŋki *č-ər.

Translation:

'Written in Chinese writing by
Court Minister and Director of
the Bureau of Operations, Huang
Yingqi.'

Kitan and its relationship to Mongolic

- Research demonstrating that Kitan is divergently related to the Mongolic languages

— 151 —

- **Paul Pelliot**

- (1921). Note sur les T'ou-yu-houen et les Sou-p'i. *T'oung Pao*, Second Series 20 (5): 323-331.

- **Lajos Ligeti**

- (1970). Le tabghach, un dialect de la langue sien-pi. In: *Mongolian Studies*, L. Ligeti (ed.), Budapest: Akadémiai Kiadó. pp. 265-308.

— 152 —

- **György Kara**

- (1975). À propos de l'inscription de 1150 en écriture khitane. *Annales Universitatis de Rolando Eötvös nominatae, Sectio Linguistica*. Budapest. pp. 163-167.
- (1977). Хятан бичгийн хоёр тогтолцооны тухай.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III их хурал*. Улаанбаатар: БНМАУ,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их хурлын байнгын хороо. 86-89 дэх тал.
- (1987). On the Khitan writing systems. *Mongolian Studies* 10: 12-24.
- (1988). Kitan-u bay-a bičig dotoraki mongγol üges. *Öbör mongγol-un yeke surγayuli-yin erdem sinjilgen-ü sedkül* 1: 55-56.
- (1996). Siniform scripts in Inner Asia: Kitan and Jurchin. In: Peter T. Daniels and William Bright (eds.)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0-238.
- (2005, translated by John R. Krueger). *Books of the Mongolian Nomads: More than Eight Centuries of Writing Mongolian*. Bloomington: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 (2006) Review of The Mongolic Languages edited by Juha Janhunen. In: *Anthropological Linguistics* 48 (1): 99-106.

— 153 —

- **Gerhard Doerfer**

- (1992) Mongolica im Altürkischen. In: *B. Lewin zu Ehre: Festschrift aus Anlass seines 65 Geburtstages*, Bd. III.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Bochum: Brockmayer. pp. 39-56.
- (1993) The older Mongolian layer in Ancient Turkic.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3: 79-86.

- **Chinggeltei**

- (1985) *Qidan xiaozi yanjiu*. Beijing.
- (2002) *Qidan xiaozi shidu wenti*. Tokyo.

- **Oyunch (Wu Yingzhe)**

- (2007) *Qidanyu jingci yufa fanchou yanjiu*. Höhhot.

— 154 —

- **Ts. Shagdarsü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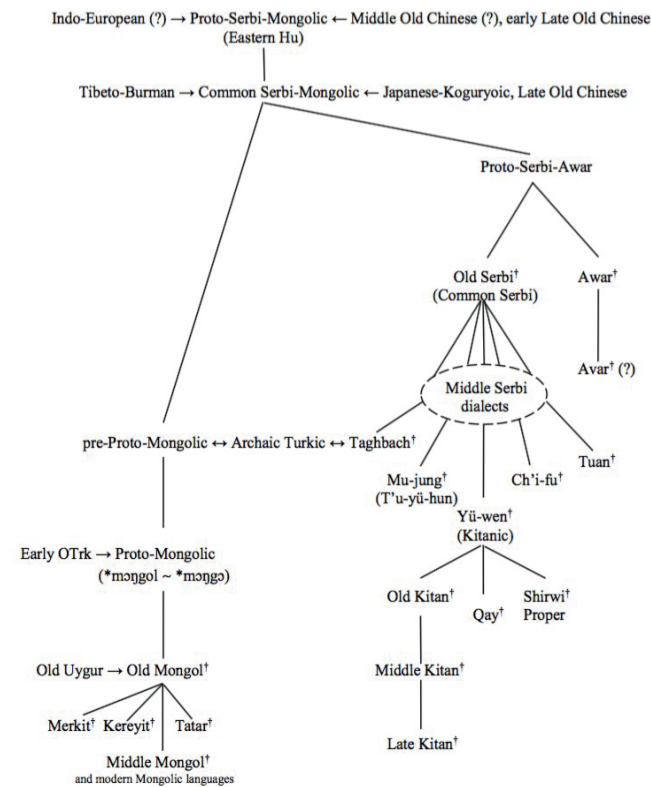
- (1999) Монгол хэлний хөгжлийн эртний үе, түүнийг судалсан тойм.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л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онгомол өгүүлэлийн эрхи, I хэлмэли: монгол хэл бичиг*, II дэвтэр. 67-126 дахь тал.

- **Andrew Shimunek**

- (2011) Review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by Daniel Kane.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64 (1): 129-135.
- (2014) A new decipherment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of the Kitan-Chinese bilingual inscription of 1134 A.D.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67 (1): 97-118.
- (2016) Toward a decipherment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of the 1101 A.D. Kitan Eulogy for Empress Xuanyi, with notes on Mongolic cognates: Lines 1-6.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70.
- (2017) *Languages of Ancient Southern Mongolia and North China: A Historical-Comparative Study of the Serbi or Xianbei Branch of the Serbi-Mongolic Language Family, with an Analysis of Northeastern Frontier Chinese and Old Tibetan Phonology*. Tunguso-Sibirica, Band 40.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519 pages.

- In my book, *Languages of Ancient Southern Mongolia and North China* (Harrassowitz, 2017), I proposed the following language family tree:

Figure 5. Classification of the Serbi-Mongolic Languages



- 157 -

- When compared with Mongolian, especially with Middle Mongol, the Kitan language's Mongolic affiliation becomes very clear.

- morpho-phonology
- sound correspondences
- morpho-syntax
- syntax

- 158 -

1. Shared morpho-phonology

- There are many morphophonological correspondences between Kitan and Mongolic.
- For example, the verb affixal systems exhibit many correspondences:

— 159 —

Table 49. Attested morphological paradigm of Kitan *kuyr- with Middle Mongol *gür-* (Pcl. *kür-*) ‘arrive’

MIDDLE KITAN FORMS (PHONEMIC)		MIDDLE MONGOL COGNATES	
Middle Kitan	Morpheme gloss	Orthography	Phonemic transcr.
*/kuyr-č/ ~ */-č/	arrive-PFV.CVB	<i>gürčü</i> (Pcl. <i>kürčü</i>)	/k ^h ur-čU/
*/kuyr-bəñ/	arrive-PST	<i>gürbei</i> (Pcl. <i>kürbei</i>)	/k ^h ur-bAi/
*/kuyr-ləñ/	arrive-PST	<i>*gürülü’e</i> (Pcl. <i>*kürülügei</i>) ⁷	/k ^h ur-lUñA/
*/kuyr-i/	arrive-CVB	<i>*gürüyü</i> (Pcl. <i>kürüyü</i>)	/k ^h ur-yU/
*/kuyr-GA-y/	arrive-CP-CVB	<i>*gürgeyü</i> (Pcl. <i>kürgeyü</i>)	/k ^h ur-GA-yU/ or /k ^h ur-GA-i/
*/kuyr-GA-r/	arrive-CP-PST	<i>*gürgerün</i> (Pcl. <i>kürger-ün</i>)	/k ^h ur-GA-rUn/ (< *k ^h ur-GA-r + *-Un ‘GEN’)
		<i>gürgere</i> ⁸ (Pcl. <i>*kürger-e</i>)	/k ^h ur-GA-rA/ (< *k ^h ur-GA-r + *-A ‘DL’)
*/kuyr-GA-ñ/	arrive-CP-?	<i>gürgen</i> (Pcl. <i>kürgen</i>) ?	/k ^h ur-GA-n/
*/kuyr-sAw ² /	arrive-ATMP.CVB	<i>*gürügse’er</i> ~ <i>*gürügseber</i> (Pcl. <i>*kürügseger</i>)	/k ^h ur-GsAñAr/ ~ /-GsAbAr/

• (Shimunek 2017: 285)

— 160 —

Table 50. Attested morphological paradigm of Kitan *sa- with Middle Mongol *sa'u-* 'sit, live, reside'

MIDDLE KITAN (PHONEMIC)		MIDDLE MONGOL COGNATES	
MKit	Morpheme gloss	Orthography	Phonemic transcription
*/sa-lGA-y/	reside-CP-PFV.CVB	<i>*sa'ulqayu</i> (Pcl. <i>*sayulqayu</i>)	*/saŋu-lGA-yU/
*/sa-r/	reside-PST	<i>sa'urun</i> (Pcl. <i>sayur-un</i>)	/saŋu-rUn/ < *saŋu-r-Un
*/sa-y/	reside-PFV.CVB	<i>*sa'uyu</i> (Pcl. <i>*sayuyu</i>)	*/saŋu-yU/

- (Shimunek 2017: 286)

— 161 —

- From these correspondences, the following Kitan verbal suffixes are clearly cognate to Mongolic.

Table 52. Some cognate functional morphology between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MIDDLE KITAN		MIDDLE MONGOL	
*/-č/ ~ */-j/	converb	/-ŋU/	perfective converb
*/-bǎñ/	past	/-bAy/	past factual
*/-i/ ~ */-y/	converb	/-yU/	generic finite
*/-GA-/	causative-passive	/-GA-/	causative
~ */-lGA-/		~ */-lGA-/	
*/-r/	past verbal noun	/-rUn/ (< *r-Un)	preparative converb (< *-r 'deverbal noun suffix')
*/-lǎñ/	past	/-lUñAy/	past firsthand

- (Shimunek 2017: 287)

— 162 —

2. Sound correspondences

- Kitan and Middle Mongol (MMgl) share systematic and regular sound correspondences:

— 163 —

Kitan *Vñ# : MMgl Vi#

Kitan *-bəñ ‘past or perfective verbal noun’ : MMgl *-bAi* > *-w*

Kitan *-ləñ ‘past tense suffix’ : MMgl *-lU’Ai* > *-lAA*

Kitan *ñ : MMgl n

Kitan *əñə ‘now’ : MMgl *ene* > Khalkha *ene* [ɛn] ‘this’

Kitan *ñaq ‘dog’ : MMgl *noqai* > Khalkha *noxoi* ‘dog’

Kitan *ñayr ‘sun, day’ : MMgl *nara* > Khalkha *nar* ‘sun’

Kitan *ñaw ‘sibling, child’ : MMgl *nu’un* ‘son, boy’

Kitan *-ñər : MMgl *-nAr* ‘plural suffix for humans’



*ñayr ‘sun, day’

— 164 —

Kitan *ɣ : MMgl e

Kitan *ɣmo ‘female, woman, wife, mother’ : MMgl *eme* ‘female, woman, wife’

Kitan *gər ‘yurt, tent, home’ : MMgl *ger* ‘yurt, tent, home’

Kitan *p : MMgl h

Kitan *pɔ ‘time, season’ : MMgl *hon* > Kh *on* ‘calendrical year’

Kitan *pulu ‘intercalary’: MMgl *hüle’ü* > Kh *ilüü*

Kitan *par ‘10’ : MMgl *harba-n* > Kh *araw* ‘ten’



*par ‘ten’

3. Shared morpho-syntax

- Many Kitan functional affixes are uniquely cognate to Mongolic.
- The first scholar to conduct systematic research on this topic is 吳英喆 Wu Yingzhe (Oyunch).
- Here are some examples of shared Kitan-Mongolic morphosyntax from my book:

Verbal suffixes:

Table 57.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cognate verbal suffixal morphosyntax

MIDDLE KITAN		MIDDLE MONGOL	
*[V.ROOT]-č ~ *-j	converb	[V.ROOT]- <i>ǰU</i>	perfective converb
*[V.ROOT]-bəñ	past	[V.ROOT]- <i>bAi</i>	past factual
*[V.ROOT]-i ~ *-y	converb	[V.ROOT]- <i>yU</i>	generic finite
*[V.ROOT]-r	past verbal noun	[V.ROOT]- <i>rUn</i> (<i>< *r-Un</i>)	preparative converb (<i>< *-r</i> 'DVN suffix')
*[V.ROOT]-ləñ	past	[V.ROOT]- <i>lU' Ai</i>	past firsthand
*[V.ROOT]-GA- ~ *-lGA-	causative-passive	[V.ROOT]- <i>GA-</i> ~ <i>-lGA-</i>	causative

• (Shimunek 2017: 295)

— 167 —

Case suffixes:

Table 59. Comparison of attested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case forms

MIDDLE KITAN		MIDDLE MONGOL	
NOM	*[NOUN]-Ø	[NOUN]-Ø	NOM
INDEF ACC			INDEF ACC
DL	*[NOUN]-də ~ *-də ~ *-du ~ *-t	[NOUN]- <i>DA ~ -DU</i>	DL
	*[NOUN]-u		
ABL	*[NOUN]-dər ~ *-dur	[NOUN]- <i>DUr</i>	
		[NOUN]- <i>A</i>	
	*[NOUN]-dəi ~ *-dəi ~ *-dui		
DEF ACC	*[NOUN]-r ~ *-ər ~ *-ur	[NOUN]- <i>'Ar ~ -i'Ar</i>	INS
INS			
COM			
GEN ATTR	*[NOUN]-n ~ *-Vn ~ *-ñ	[NOUN]- <i>Un ~ -U ~ -yin</i>	GEN ATTR
	*[NOUN]-i		
		[NOUN]- <i>čA ~ -AčA</i>	ABL
		[NOUN]- <i>yi ~ -i</i>	DEF ACC
		[NOUN]- <i>lU' A</i>	COM

• (Shimunek 2017: 297)

— 168 —

Cognate number suffixes:

Table 61.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cognate number affixal morphosyntax

MIDDLE KITAN		MIDDLE MONGOL	
*-Ø	unmarked for number	-Ø	unmarked for number
*-s	plural (lexicalized)	-s	plural (after V)
*-d ~ *-t	plural (lexicalized)	-t	plural (nouns ending in C)
*-an ~ *-ən	plural (lexicalized)	-n	plural (lexicalized)
*-ñər ~ *-ñəñ	plural for humans (lexicalized)	-nAr	plural for humans (lexicalized)

• (Shimunek 2017: 299)

Cognate number suffixes:

Table 65.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cognate number affixal morphosyntax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𐰪	*dəw-Ø	‘younger brother’ (<i>Lang</i> 1: 5)	de’ü-Ø	‘younger brother’ (<i>SHM</i> §18)
𐰪 𐰪 𐰪	*dəw-ñər	‘younger brothers’ (<i>Jen-hsien</i> 46: 63)	de’ü-ner	‘younger brothers’ (<i>SHM</i> §23)

• (Shimunek 2017: 300)

Cognate number suffixes

Table 65.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cognate number affixal morphosyntax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𐰪	*daw-Ø	‘younger brother’ (<i>Lang</i> 1: 5)	de’ü-Ø	‘younger brother’ (<i>SHM</i> §18)
𐰪 𐰪 𐰪	*daw-ñær	‘younger brothers’ (<i>Jen-hsien</i> 46: 63)	de’ü-ner	‘younger brothers’ (<i>SHM</i> §23)

• (Shimunek 2017: 300)



*daw ‘younger brother’

— 171 —

4. Shared syntax

- Alice C. Harris and Lyle Campbell (1995) *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 I’ve identified the following syntactic correspondences between Kitan and Mongolic:

— 172 —

Clausal order

Table 68. Comparison of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clau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T'u-yü-hun	Common Serbi-Mongolic
OV	OV		*[OV]
SV	SV		*[SV]
SOV	SOV		*[SOV]
SNP Pred _{NP/Num}	SNP Pred _{NP} (also Khalkha [SNP Pred _{Num}])	SNP Pred _{NP}	*[SNP Pred _{NP}]

- (Shimunek 2017: 302)

For example:

Table 69. Serbi-Mongolic syntactic correspondences for [OV] clau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𐰚𐰆𐰏𐰤 𐰆𐰏𐰤𐰏𐰤	[格兒圖 ^{ᠭᠡᠷᠲᠦᠷ} 里顏] [古兒罷]
⟨ordu.u.du⟩	⟨k.ui.d.l.eñ⟩
*ordu-du	*kuyd-ləñ
tent.palace-DL	arrive-PST
‘[He] arrived at the tent palace.’	‘[He] arrived at his tent.’
(YChüeh 14: 25-26)	(SHM §93) ³⁴

- (Shimunek 2017: 303)

Table 70. Serbi-Mongolic syntactic correspondences for [SV] clausal order

Middle Kitan

圣当	又考	止及子北
⟨jur.en⟩	⟨š.ên⟩	⟨p.o.j.Awr⟩
*jur-en-Ø	*šen	*pəj-Awr
painting-PL-NOM	new	become-CVB
‘The paintings had become new, and...’		

(Lang 3: 13-15)

Middle Mongol

[孛端察兒]	[孛兒只斤]	[斡孛壇]	[孛魯罷]
<i>Bodončar</i>	<i>Borjigin</i>	<i>oboqtan</i>	<i>bolba</i>
*bɔtɔŋʰar-Ø	*bɔrʧigin	*ɔbɔq-tʰan	*bɔl-ba
PERS.N-NOM	P.N	clan.name-SUFF.PL	become-PST
‘Bodonchar became [the ancestor of] those which have the clan name Borjigin.’			

(SHM §42; Cleaves 1982: 9)³⁵

• (Shimunek 2017: 303)

- 175 -

Table 71. Serbi-Mongolic syntactic correspondences for [SOV] clausal order

Middle Kitan

中	令各必	令为丰
⟨ai⟩	⟨s.êng.un⟩	⟨s.a.ar⟩
*ay-Ø	*seŋun-Ø	*sa-r
father-NOM	title-ACC _{INDF}	serve-PST.VN [♂]
‘[His] father served as Field Marshal.’		

(YHsiang 16: 37-39).³⁶

Middle Mongol

[蒙力克]	[額赤格]	[帖木只泥]	[阿(卜)抽]	[亦(赤)列罷]
<i>Münglik</i>	<i>ečige</i>	<i>Temüjin-i</i>	<i>a(b)ču</i>	<i>irebe.</i>
*muŋlik	*əʧʰigə	*tʰəmuʧin-i	*ab-ʧʰu	*irə-bə
PERS.N	father-NOM	PERS.N-ACC	take-PFV.CVB	come-PST

‘Father Münglik came with (lit. ‘bringing’) Temüjin.’

(SHM §69)³⁷

• (Shimunek 2017: 304)

- 176 -

Table 72. Serbi-Mongolic syntactic correspondences for [S_{NP} Pred_{NP}] clausal order

Middle Kitan

𐰚𐰆𐰣𐰚	𐰚	𐰆	𐰚𐰆𐰣𐰚	𐰚𐰆𐰣𐰚
⟨č.ur.en⟩	⟨omo⟩	⟨ku⟩	⟨š.l⟩ ⟨g.e⟩	⟨pu.ʃi.ñ⟩
*čur-en	*omo	*ku	*šlgə	*pušĩñ
second-ORD [♀]	woman	person	PERS.N	lady
‘[His] second wife [was] Lady *Šlgə.’				

(YHsiang 13: 1-6).³⁸

Middle Mongol

[必]	[馬阿里]	[伯牙兀歹]
<i>bi</i>	<i>Ma’aliq</i>	<i>Baya’udai</i>
*bi	*maʃaliq	*bayafut-ay

1SG.NOM clan.name-NZR

‘I am a Ma’aliq Baya’ut.’

(SHM §15)³⁹

T’u-yü-hun

[處]	[可寒]
*tʃʰi	*kʰayan (LMC)
*čʰi	*qʰaʃan
you	emperor

‘You are the emperor.’

(Sung Shu 96: 2369)

• (Shimunek 2017: 305)

– 177 –

Table 73. Serbi-Mongolic syntactic correspondences for [S_{NP} Pred_{Num}] clausal order

Middle Kitan

𐰆𐰣	𐰚𐰆𐰣𐰚	𐰚𐰆𐰣𐰚	𐰚
⟨g.ung⟩	⟨j.u.un⟩	⟨b.γ.an⟩	⟨FIVE [♂] ⟩
*guŋju-n		*bʁan	*taw [?]
[princess – GEN son – PL]		[five]	
NP[N – Gen N]		[Num]	
S		Pred	

‘The princess had five sons.’

(Chung 6: 18-21)

Modern Khalkha

Манайхан	гурвуулаа.
[ma’naɣχɪn]	qur’wuɣa].
manai-xɪ-Ø	gʊrw-UɣA
[1COMM – NZR.HUM – NOM]	[three.OBL – COLL]
NP[N]	[Num]
S	Pred

‘There are three people in our family.’

(lit. ‘Ours three’).

• (Shimunek 2017: 306)

– 178 –

Phrasal order

— 179 —

For example:

[Adj N]
(Adjective + Noun order)

Table 74.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Adj N] phra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𐰚𐰇𐰏𐰤 𐰚𐰇𐰏𐰤	[忽刺安] [迭額勒]
⟨l.iau.qu⟩ ⟨ñ.aq⟩	<i>hula'an de'el</i>
*lyawqu *ñaq	*hɔlafian *təfiəl
red dog	red garment
‘red dog’	‘red garment’
(<i>YTi</i> 14: 27-28)	(<i>SHM</i> §146; Ozawa 1986: 164; Cleaves 1982: 73) ⁴⁰

• (Shimunek 2017: 307)

— 180 —

[Dem N]
(Demonstrative + Noun order)

Table 75.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Dem N] phra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𐰚 𐰢	[帖 ^舌 列] [額 ^舌 篋]
⟨e⟩ ⟨omo⟩	<i>tere</i> <i>eme</i>
*ə *ɔmo	*t ^h ərə *əmə
PROX woman	DIST woman
‘this woman’ (<i>Hai</i> 5: 24-27)	‘that woman’ (<i>SHM</i> §38; Ozawa 1984: 180)

• (Shimunek 2017: 307)

– 181 –

[Num N]
(Numeral + Noun order)

Table 77.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Num N] phra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𐰇 𐰢 𐰢	[^中 忽兒班] [^可 兀 ^楊]
⟨THREE [♂] ⟩ ⟨k.u⟩	<i>qurban</i> <i>ke'üt</i>
*Gur *ku	*qurba-n *k ^h əfu-t
three [♂] boy	three-ATTR son-PL
‘three boys’ (<i>Ku</i> 17: 4-5)	‘three sons’ (<i>SHM</i> §17; de Rachewiltz 2006: 3)

• (Shimunek 2017: 308)

– 182 –

[Adv V]
(Adverb + Verb order)

Table 79.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Adv V] phra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𐰚𐰆𐰏𐰤 𐰚𐰆𐰏𐰤	[必] [巴撒] [幹𐰆𐰏𐰤]
⟨b.as⟩ ⟨y.eu.ǰ⟩	<i>bi</i> <i>basa</i> <i>odču</i> ...
*bas *yəw-ǰ	*bi *basa *ɯt ^h -č ^h u ...
again move-CVB	1SG also go-CVB ...
‘[he] moved again and...’	‘I too shall go and...’
(<i>HsTi</i> 21: 6-7)	(<i>SHM</i> §169; cf. Ozawa 1986: 340) ⁴²

• (Shimunek 2017: 309)

[Neg V]
(Negative marker + Verb order)

Table 80.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Neg V] phra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𐰚𐰆𐰏𐰤 𐰚𐰆𐰏𐰤	[額薛] [完勒荅來]
⟨gi⟩ ⟨k.ui.d.l.ñ⟩	<i>ese</i> <i>oldalai</i>
*gi *kuyd-ləñ	*əsə *ɯl-ta-lay
NEG arrive-PST	NEG find-PASS-PST.1H
‘[Subject] did not arrive.’	‘[She] was not found.’
(<i>YP’u</i> 20: 12-13).	(<i>SHM</i> §112; Ozawa 1985: 305; Cleaves 1982: 47) ⁴⁴

• (Shimunek 2017: 309-310)

[N Post]
(Noun + Postposition order)

Table 81.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N Post] phrasal order

Middle Kitan	Middle Mongol
𐰚𐰆	[桓突 ^{ᠬᠠᠨᠲᠤ} 兒]
⟨po.do⟩	<i>hon-tur</i>
*pɔ-do	*hɔn-t ^h ur
time-DL	year-DL
‘at the time’	‘in/by the year’
(<i>HsTi</i> 3:27)	(<i>SHM</i> §204) ⁴⁵

• (Shimunek 2017: 310)

– 185 –

Null Subjects (Pro-Drop)

Both Kitan and the Mongolic languages exhibit null subjects:

Table 84. Pro-drop in Middle Kitan and Middle Mongol

Middle Kitan		
𐰚𐰆	𐰚𐰆	𐰚𐰆
⟨jau⟩	⟨tau⟩	⟨b.o.or⟩
*jau ^h aw		*bo-r
punitive.commissioner	become-PST	
‘[He] became a Punitive Commissioner.’ (<i>HsTi</i> 5:4-6; Oyuunch & Janhunen 2010:67).		
Middle Mongol		
[那牙勤]	[斡字 ^{ᠠᠨᠠᠭᠠᠨ}]	[字魯罷]
<i>Noyakin</i>	<i>oboqtan</i>	<i>bolba</i>
*noyakhin	*ɔboqt ^h an	*bɔl-ba
P.N	clan.name-SUFF.PL	become-PST
‘[He] became [ancestor of] those with the clan name Noyakin.’		
(<i>SHM</i> §46; Ozawa 1984:198).		

• (Shimunek 2017: 312)

– 186 –

Shared lexicon

- There are many shared lexical items between Kitan and the Mongolic languages.
- In my book, I identified approximately 20 Kitan grammatical suffixes and 93 Kitan words with Mongolic cognates (Shimunek 2017: 317-379).

— 187 —

- From all these criteria, Kitan is classified as divergently related to Mongolic. That is, Kitan *belongs to* the same language family as Mongol.
- Kitan is not the earliest attested language related to Mongolic. Earlier attested Xianbei or *Serbi languages include:
 - The Taghbach or Tabghatch language of Northern Wei (北魏 *Bei Wei*),
 - The Toigon ~ Togon ~ Tuyuhun ~ ‘Azha language of the early Tibetan Empire,
 - and several other minimally documented languages and dialects.

— 188 —

Summary of Innovation and Continuity in the Kitan Language

- **Continuity**
 - Cognates and shared language features link the Kitan language uniquely with Mongolian to the exclusion of other languages.
 - This indicates that Kitan belongs to the same language family as Mongolian, a language family which I term the Serbi-Mongolic language family (in Chinese: 鮮卑-蒙古語族, and in Korean: 선비-몽골어족 鮮卑몽골語族).
- **Innovation**
 - Loanwords from Chinese
 - Unique words, forms, sound changes, grammar changes, and other changes which make Kitan a distinct language, albeit uniquely related to Mongolic.

— 189 —

Summary of Innovation and Continuity in Kitan Writing

- **Continuity**
 - Kitan Linear Script ('large script') glyphs borrowed (for the semantic values) from Chinese with little or no change
- **Innovation**
 - Many unique glyphs unrelated to Chinese in the Kitan Linear Script ('large script') as well as the Kitan Assembled Script ('small script').
 - The Assembled Script ('small script') is especially innovative, and its organization of glyphs resembles Korean Hangŭl writing, to the extent that Mongolian philologist Ts. Shagdarsüren proposed that Hangŭl writing was inspired by the Kitan Assembled Script.

— 190 —

I am grateful to the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for hosting this event.

I thank Dr. Lee Yong and the Kugyŏl Society (口訣學會) for inviting me to deliver my lecture at this prestigious museum.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 191 —

Анхаарал тавьсанд баярлалаа.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send me an email:
ashimune @ alumni . iu . edu

— 1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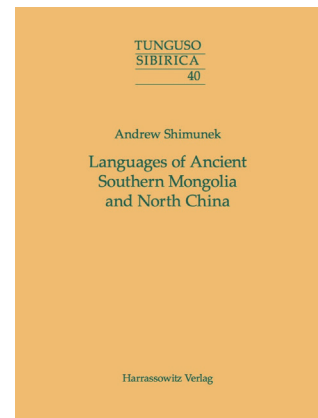
Innovation and Continuity in Liao Writing: An Overview of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s 遼나라 글쓰기의 革新과 連續性: 契丹語 및 契丹文字 概要

Andrew E. Shimunek, Ph.D., Habilitation
Assistant Professor, Woosong University

PPT 4~7

이 강연의 초점은 거란(契丹, Kitan) 언어와 문자 체계의 개요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낭군행기(郎君行記, Langjun inscription, 1134년)」¹⁾ 탁본의 예를 소개하고, 몽골 외곽 지역의 거란 비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연구 결과도 공유하겠다.

필자는 20년 넘게 거란어와 거란 문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근래 몇 년 동안 필자는 연구가 덜 된 중요 거란 비문에 대해서 금석학적 현장 조사를 몽골에서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책에는 거란 문법에 관한 거의 100쪽에 가까운 장(chapter)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전체에 거란 자료가 담겨 있다. 필자는 거란 언어와 문자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동료 심사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2009년부터 몽골에서 거란어 금석문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거란학(Kitanology)에 대한 필자의 배경을 짧막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제 거란 언어와 문자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PPT 8~12

거란(契丹, Kitan)이라는 민족은 386-395년에 처음 실증된다. 왕조를 세우기 전의 거란 민족-언어 집단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은 당(唐)나라 시대의 것이다 (Xu 2005:28). 거란 사회가 번성하게 된 후에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요(遼) 거란 제국(907-1125)과 서요(西遼, Qara



1) <역자 주> 정식 이름은 ‘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이다. 아래에 다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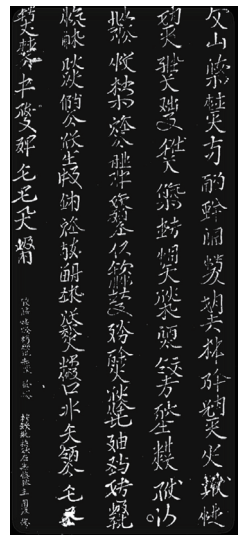
Khitai) 제국(1124-1218)을 형성했다. 거란 제국은 Valerie Hansen이 설명한 바, 동북아시아 문화 및 무역 블록의 주요 구성 국가였다. 그 블록은 ▪ 요 거란 제국(중국 북부와 몽골), ▪ 고려 왕국(한국), ▪ 일본으로 구성된다(Valerie Hansen, 『The Year 1000』, p.159). 요 거란 제국의 영토는 중국 북부, 만주, 대부분의 몽골 지역을 아울렀으며, 중앙 유라시아 북동부의 일부를 형성했다. 이 영토는 넓은 의미에서 ‘비단길(Silk Road)’의 긴요한 부분이었다.

거란어 PPT 14~18

거란의 언어와 문화는, 고도로 다문화적 · 다언어적인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반영한다. 오늘 필자의 강연은 거란어와 거란 문자의 연속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란어는 몽골어와 관련된 선비(鮮卑, *Serbi)어의 하나이다(슬라브계 세르비아어(Serbs)와는 전혀 무관하다). 거란어는 남북조 시대(4세기-6세기)에 처음 문서화되었으며, 원(元) 몽골 제국에서도 계속 쓰였다. 필자는 거란어를 세 시기로 분류한다(Shimunek 2017:197).

- 고대 거란어(386-907): 선비(鮮卑, *Serbi)어의 우문(宇文, Yuwen) 방언에서 발전했다. 거란어의 이 단계는 중고(中古) 중국어, 룬 문자 고대 튀르크어, 고대 티베트어 음성 전사에서 최소한으로 실증된다.
- 중세 거란어(920-11세기): 초기 요(遼) 거란 제국의 공식 언어이다. 이 언어는 거란 대자와 거란 소자의 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거란어 중에서 가장 잘 실증된 단계이다.
- 후기 거란어(11세기-13세기): 요(遼) 거란 제국 말기부터 원(元) 몽골 제국 시기에 쓰였다. 알려진 마지막 화자는 몽골 황제 우구데이의 거란 관료인 야율초재(耶律楚材, Yelü Chucai)이다. 송 및 원 시대의 중국어에서는 발음대로 전사되었다. 이 시대는 거란어가 음성 면에서 개신된 단계이며, 중세 거란어 시기와 구분되는 뚜렷한 소리 변화가 나타난다.



거란 문자 PPT 19~21

거란족은 그들의 언어를 위해 두 가지 다른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요사(遼史, Liao Annals)』는 이 두 문자 체계를 대자(大字, Large script), 소자(小字, Small script)라고 부른다. 고고학상으로 실증된 거란 문자는 비록 두 가지가 있으나,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대자이고 어느 것이 소자인지 판단하기에는, 『요사』 안의 정보가 불충분하다.

György Kara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선형 문자(linear script)’와 ‘조합 문자(assembled script)’ 또는 ‘합성 문자(composite script)’라는 용어를 제안하였고(1977, 2005), 어느 것을 ‘대’, ‘소’ 문자라고 추측하여 이름 붙이지 않고도 실증된 두 문자를 일컬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거란 선형 문자(‘거란 대자’라고 추측) PPT 22~25중에서 발췌

『요사(遼史, Liao Annals)』에 따르면, 거란 대자는 920년에 만들어졌다. 많은 학자들은 이 ‘대자’

가 고고학상으로 실증된 선형 문자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György Kara는 이를 논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1977, 2005).

선형 문자의 일부 낱글자(glyph)는 거의 또는 전혀 바꾸지 않고 한자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다. 일부 낱글자는 한자 낱글자가 약간 바뀐 결과이다. 대부분의 글자 모양은 독특하며 한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

거란 조합 문자 ('거란 소자'라고 추측) PPT 26~30 중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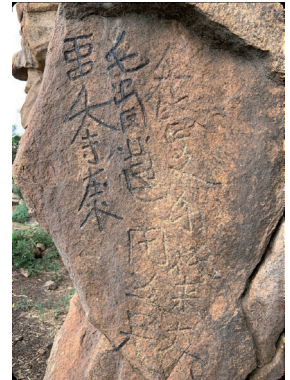
『요사(遼史, Liao Annals)』에 따르면, 거란 소자는 924년에 만들어졌다. 많은 학자들은 고고학상으로 실증된 조합 문자가 '소자'와 동일시된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György Kara는 이를 논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1977, 2005).

해독 측면에서 거란 조합 문자는 거란 선형 문자보다 더 잘 이해된다. 거란 조합 문자의 낱글자(glyph, 原字²⁾)는 대략 459개쯤이 있으며, 그중 몇몇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체자이다.

<※ 저서 목록은 PPT 27쪽 참조, 번역은 생략>

거란 언어, 문자에 관한 연구의 개요 PPT 31~43 중에서 발췌

고(故) Daniel Kane은 유튜브에 멋진 영상을 올렸으며, 초보자들을 위해서 활기차고 흡인력 있는 거란 연구사를 제공한다. 거란학의 역사에 관한 Daniel Kane의 글은 다음과 같다.



“20세기까지 현존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거란어 문서는 「대금황제도통경략낭군행기(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Record of the Journey of the Younger Brother of the Emperor of the Great Jin Dynasty(the Langjun inscription)))」였다. 시안(西安)에 있는 당(唐) 측천무후의 무덤 앞에 있는 ‘무자비(無字碑, stele without an inscription)’에 새겨져³⁾ 있었다. 이것은 근대 이전에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학자들은 ‘대금황(大金皇)…’이라는 언급에 잘못 이끌려서 그것을 여진 문자라고 생각했다. 요(遼)나라 황릉인 경릉(慶陵, Qingling)⁴⁾에 있는 거란 비문의 발견—Louis Kervyn이 1923년에 처음으로 출판하였다—이후에야 학자들은 글자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

(Kane,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Brill, 2009, pp. 1-2)

벨기에 선교사 Louis Kervyn은 1923년에 처음으로 확인된 거란어 장례식 비문을 출판했다. 거란어 해독의 가장 큰 돌파구는 淸格爾泰(Chinggeltei), 劉鳳翥(Liú Fèngzhù), 陳乃雄(Chén Nǎixióng), 于寶林(Yú Bǎolín), 邢復禮(Xíng Fùlǐ)가 조직한 거란소자연구소조(契丹小字研究小

2) <역자 주> 거란 소자의 경우, 중국 학계에서는 ‘原字’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3) <역자 주> 처음에는 이름 그대로 글자가 없는 비석이었으나, 나중에 다른 내용이 새겨졌다.

4) <역자 주> 중국 내이멍구(內蒙古) 츠핑(赤峰)시 바린(巴林)右旗에 있다. 도종(聖宗)의 영경릉(永慶陵), 흥종(興宗)의 영흥릉(永興陵), 도종(道宗)의 영복릉(永福陵)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 ‘경릉(慶陵)’이다.

組)에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기념비적인 작품 『거란소자연구(契丹小字研究)』를 1985년에 출판하였다. 이 출판물은 거란어 해독에서 중요한 진전의 시작을 나타내며, 거란어에 관한 모든 후속 연구는 이 첫걸음에 큰 빛을 지고 있다. 이 대담무쌍한 언어 탐험가 집단은 거란 언어 및 문자의 매혹적인 신비에 곧바로 뛰어들었으며, 우리 거란학자들은 이들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거란학의 설립자들은 거란 조합 문자를 해독하는 데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거란학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요약은 Daniel Kane,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2009 참조. 특히 1-26쪽). 내 스승의 스승인 Lajos Ligeti, 내 스승인 György Kara의 개척 작업을 포함한 헝가리의 거란학에 대한 요약은 Ákos Apatóczy and Béla Kempf(2017)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 한국에서도 근래에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거란 언어 및 문자에 관한 한국의 작업은 이성규, 류병재, 김태경, 김위현 및 필자 참조. 김태경은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거란소자사전』(2019), 『거란문자: 천년의 역사, 백년의 연구』(2022). 불행히도, 김태경은 거란어에 관한 필자의 2017년 책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몽골의 거란학 역사는 훨씬 덜 알려져 있다. 필자가 간략한 개요를 적겠다.

<※ 저서 목록은 PPT 39~40쪽 참조, 번역은 생략>

거란어에 관한 가장 큰 말뭉치 자료는 중세 거란어 시기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과 몽골의 거란 조합 문자(‘거란 소자’)에는 35개 안팎의 큰 비문과 10개 안팎의 짧은 글이 있다.

- 다듬어진 돌에 아름다운 서예 솜씨로 새겨진 묘비명. 많은 자료들은 거란의 서예 명인이자 황족의 일원인 야율고(耶律固, *Yarud *Gu)의 손에 들어갔다.
- 준비되지 않은 자연 바위에 먹으로 쓴 글
- 구리거울, 옥새, 물고기 모양의 구리 증표(銅魚符)에 적힌 짧은 글

몽골, 중국, 러시아의 거란 선형 문자(‘거란 대자’)에는 25개 안팎의 큰 비문과 30개 안팎의 짧은 글이 있다.

- 다듬어진 돌에 새겨진 묘비명(중국에서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은 960년)
- 준비되지 않은 자연 바위에 새겨진 비문(몽골에서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은 1084년)
- 준비되지 않은 자연 암석에 먹으로 쓴 글
- 종이에 쓴 글: 베를린의 종잇조각 Ch 3586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Novo 필사본
- 구리 거울, 목간(木牘, wooden tablets), 은화(銀幣, silver coins), 구리 증표(銅符牌), 구리 도장에 적힌 짧은 글

남군행기 비문의 거란어 해설 PPT 44~150 중에서 44~51만 발췌

가장 잘 연구된 거란어 비문은 서기 1134년의 거란어-중국어 이중 언어의 남군행기 비문이다. 필자는 이 비문에 대한 논문을 썼고(2014), 이후 2017년 책에서 연구 결과를 상당히 개정했다.

이 중요한 글은 거란족이 쓴 것이 아니다. 사실, 요(遼) 거란 제국이 멸망하고 대략 10년쯤 뒤인 여진 제국 초반 동안에 적힌 것이다. 여진족은 거란어를 모어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만주어로 계

승될 만주-통구스계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창제하기 전에, 거란어를 자신들의 문학 언어로 사용했고 거란어로 몇몇 비문을 썼다. 즉 거란 문장의 거란어는 여진 제국 초기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문어였다.

◎ 여진 제국의 거란 조합 문자.

여진족이 썼던 문자 체계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것은—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만주-통구스계 사람들이 썼던 어느 문어 중에서 서든지 가장 초기의 것이다—거란 조합 문자이다. 이것은 여진 제국(1115-1234)의 초반에 문학 언어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다.

1134년의 「대금황제도통경략낭군행기(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 비문은(종종 ‘낭군행기(郎君行記, Langjun Xingji)’ 또는 ‘Langjun’으로 줄여 부름) 여진 제국 관료들에 의해 거란 조합 문자로 적힌 중세 거란어 글의 한 예이다. 이 글은 거란 조합 문자로 된 중세 거란어 본문과 그에 병행되는 중국어 번역을 포함하는 진정한 이중언어 글이므로, 거란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여진어 글쓰기를 위한 원천과 영감이 되었던 거란 선형 문자

비록 여진족은 거란 조합 문자(거란 소자)로 적힌 거란어를 여진 제국 초반의 문학 언어로 사용했지만, 두 가지 거란 문자 체계 중에서 다른 하나—거란 선형 문자(거란 대자)—가 여진 문자의 발명에 영감을 주었고, 어떤 면에서는 기여를 하였다. 이는 1120년에 편찬된 『금사(金史, 여진 제국의 공식 역사서)』에 따른 것이다.

일부 여진 문자는 거란 선형 문자의 낱글자에 직접 기반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여진 문자는 의미상의 값(대개는 음성상의 값이 아님)을 위해서 거란 선형 문자의 낱글자를 차용하여 형성되었으며, 낱글자의 모양이 약간 조정된다.

<※ 예시는 PPT 48쪽 참조, 번역은 생략>

여진 문자의 형성에 미친 거란의 영향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열매가 많을 주제이다.

이것이 여진 제국의 거란어 글쓰기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개요이다. 낭군행기 비문의 특별한 점은 거란어와 중국어로 적힌 이중언어 비문이라는 것이다. 병행된 본문은 어느 정도 로제타 스톤과 비슷한 것이다(Shimunek, 2014, 『Acta Orientia Hung.』 참조).

비록 거란 문헌의 방대한 주류가 장례 묘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질상 약간 침울할 수도 있지만, 낭군행기 비문은 다르다. 이 비문은, 여진족 황제의 동생이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인 당(唐) 측천무후의 무덤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쾌활한 축하 글이다. 여진족 황제의 동생은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그 무덤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 글은 ‘비적과 강도’에 의해서 파손된 무덤의 무너진 ‘궁전’과 ‘회랑’을 건축상 성공적으로 복원한 것을 기념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력을 축하하고자 지

방 관료들과 함께 열었던 잔치를 기념한다.

이제 본문을 훑어보고 거란어로 읽어보겠다. 소릿값과 독해는 필자의 2017년 책에 제시된 것인데, 사소한 수정이 있다.

<※ 상세한 해독은 PPT 53~150쪽 참조, 번역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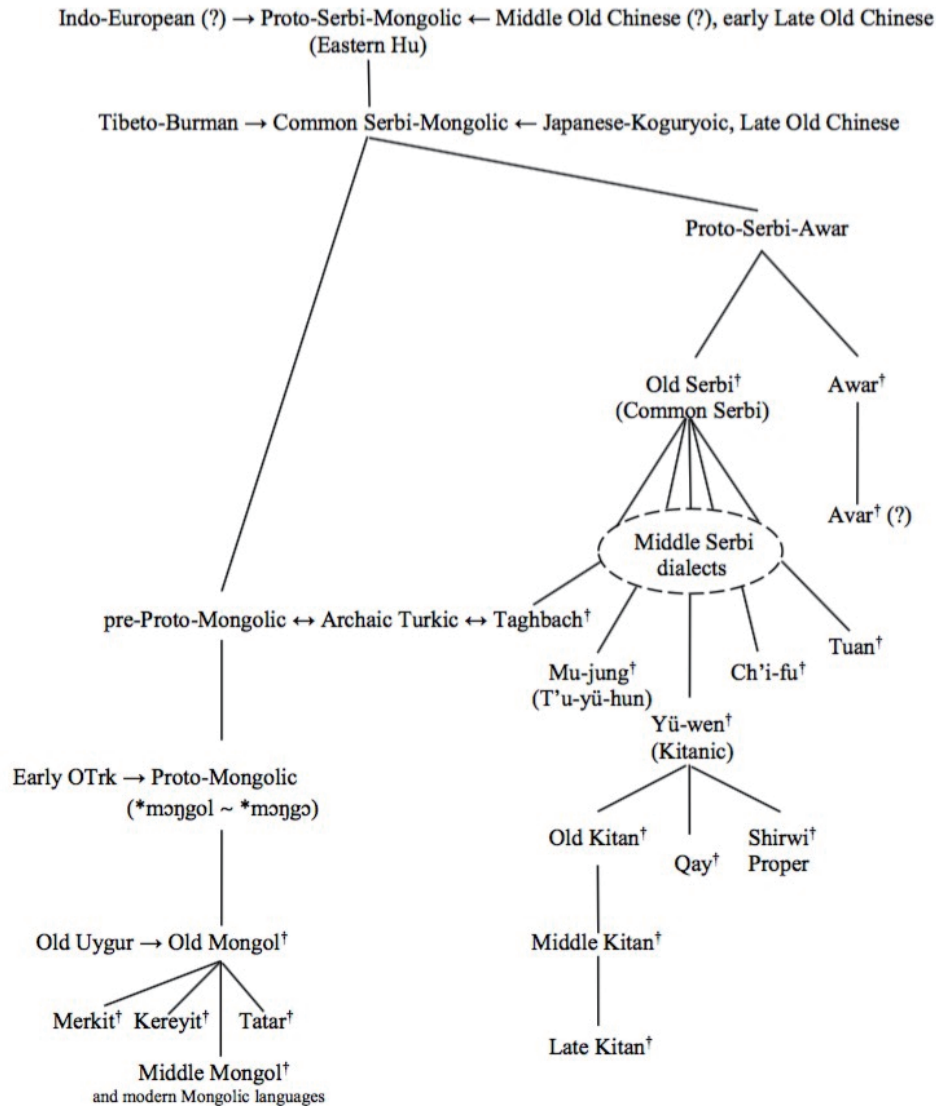
거란어와 몽골어의 관계 PPT 151~188 중에서 151~158만 발췌

연구에서는 거란어가 몽골계 언어들과 방계(傍系)이되 관련이 있다는(divergently related) 것을 논증하였다.

<※ 저서 목록은 PPT 152-155쪽 참조, 번역은 생략>

필자의 책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의 언어들(Languages of Southern Mongolia and North China)』(Harrassowitz, 2017)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언어 계통도를 제안하였다.

Figure 5. Classification of the Serbi-Mongolic Languages



몽골어, 특히 중세 몽골어와 비교하면 거란어의 몽골어 친연성이 아주 뚜렷해진다. 형태-음소 체계, 음운 대응, 형태-통사 체계, 통사 체계.

1. 공유되는 형태-음소 체계

- 거란어와 몽골어 사이에는 형태-음소적 대응이 많이 있다.
- 예컨대, 동사의 어미 체계는 많은 대응 관계를 드러낸다.
<※ 상세한 예시는 PPT 160~162쪽 참조, 번역은 생략>

2. 음운 대응

- 거란어와 중세 몽골어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음운 대응을 공유한다.
<※ 상세한 예시는 PPT 164~165쪽 참조, 번역은 생략>

3. 공유되는 형태-통사 체계

- 거란어의 많은 기능 어미는 몽골어와 고유하게 동원어이다.
- 이 주제에 관해 체계적 연구를 수행한 첫 학자는 우잉저(吳英喆, Wu Yingzhe, Oyunch)이다.
- 여기에 있는 것은 필자의 책에 실린 공유되는 거란어-몽골어 형태-통사 체계의 몇 가지 예이다.
<※ 상세한 예시는 PPT 167~171쪽 참조, 번역은 생략>

4. 공유되는 통사 체계

- Alice C. Harris & Lyle Campbell(1995) 『교차-언어 관점의 역사적 통사론(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 필자는 거란어와 몽골어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대응을 확인했다.
<※ 상세한 예시는 PPT 173~186쪽 참조, 번역은 생략>

(5.) 공유되는 어휘 체계

- 거란어와 몽골어 사이에는 많은 어휘 항목이 공유된다.
- 필자의 책에서, 몽골어 동원어가 있는 거란어 문법 어미 약 20개와 거란어 단어 93개를 확인했다 (Shimunek 2017: 317-379).

이 모든 기준에서, 거란어는 몽골어와 방계(傍系)이되 관련이 있는(divergently related) 것으로 분류된다. 즉, 거란어는 몽골어와 같은 어족에 속한다. 거란어는 몽골어와 관련되었다고 가장 먼저 실증된 언어는 아니다. 더 일찍 실증된 선비어(鮮卑語, Xianbei, *Serbi)는 다음을 포함한다.

- 북위(北魏, Bei Wei)의 탁발(拓跋, Taghbach 또는 Tabghatch) 언어,
- 초기 티베트 제국의 토욕혼(吐谷渾, Toigon~Togon~Tuyuhun 'Azha) 언어.
- 그리고 그 밖에 최소한으로 문서화된 언어와 방언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SYMPOSI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기획 주제 발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

중국 출토 문자자료에 보이는 구어투 서사
- 초기 이두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

김병준
(서울대)

중국 출토 문자자료에 보이는 구어투 서사 - 초기 이두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

김병준(서울대)

1. 초기 이두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

2011년에 초기 이두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피력한 바 있다.¹⁾ 국어학계에서 초기 이두라고 보았던 ‘中’, ‘之’, ‘節’가 중국 진한시대 문서 특히 행정문서나 율령에서 사용되는 용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한반도에서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필자의 주장에 대해 “과연 진정한 이두인가라는 충격적 의문이 제기되었다”²⁾ “국어학계에 일정한 반성을 촉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민족에 의한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식의 일국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전환을 재촉케 한 계기가 되었다”,³⁾ “기존의 가설에 반성을 요하는 중요한 논점을 제공했다”는⁴⁾ 평가가 있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쓰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것만이 이두라는 배타적 관점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되던 것을 빌려왔다는 진화적 혹은 발달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⁵⁾ 논의로 진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필자가 다룬 ‘中’, ‘之’, ‘節’ 그 중에서도 ‘之’의 사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초기 이두 글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초기 이두에 대해서도 ‘之’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언어 습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두를 고안해내었다는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사실 2011년의 글 전반부에서 필자는 漢代에 널리 쓰이던 ‘中’, ‘之’, ‘節’이라는 글자가 한반도에 수용되는 배경에 주목했었다. 즉 한자의 변용은 일찌감치 한자를 수용하고 오랜 기간 한자에 접촉하며 이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한자를 수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록 한자가 자신의 언어 습관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 손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극히 일부의 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거나, 초기 이두가 발생하기 쉬운 조사나 동사의 어미 역시 거의 대부분은 전혀 변용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자는 단지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적어도 천여 년간 사용하면서 체계를 완성했던 것이다. 그것을 수용한 입장에서는 임의적으로 몇 군데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문자체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서 일부의 변용이 있어도 문자에 의한 의사 전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치 영어를 수용

1) 김병준,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2011.

2) 김영옥, 「삼국시대 이두에 대한 기초적 논의」, 『구결연구』 27, 2011.

3) 권인한,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2015, pp.249-250.

4) 이용,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시론적 접근」, 『구결연구』 37, 2016.

5) 김영옥, 「삼국시대 이두에 대한 기초적 논의」.

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어순을 바꾸거나 조사 혹은 어미를 추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집단의 공식적인 문자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긴 기간에 걸친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용 역시 기존의 체계 내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후 313년까지 무려 400여 년간에 걸쳐서 낙랑군에서 진행된 군현지배에 주목했다. 이 기간 한반도에서는 한자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했었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랑군에 대한 기존의 편견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낙랑군은 漢人이 설치한 군현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로 포섭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논의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크다. 둘째, 낙랑군의 영향을 인정하더라도 그 지배는 한인과 토착인을 분리하여 지배하는 이른바 이중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군현을 통해 전달되는 秦漢 제국의 문명은 한인에게만 적용되고 토착민은 그 영향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한자의 사용도 한인에 국한되고 토착민은 제외한다.⁶⁾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후의 역사를 과거 역사에 그대로 투영한 결과, 한국과 중국을 억지로 구분하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필자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진한 제국이 군사적으로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 어떻게 그곳에 지배를 관철하려 했는지를 해당 시기의 자료에 근거해 드러내고자 했다.⁷⁾ 특히 거연한간, 둔황한간을 필두로 리야진간 등 최근 중국 각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는 간독 자료는 제국의 변경 지배가 결코 이중 지배가 아니라 토착민을 적극적으로 지배 체제 안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호적에 편입시켜 세역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만이 아니라, 문서행정을 통한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숫자의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해야만 했다. 물론 군현이 설치된 초기에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관리와 수졸, 관노비를 충원했지만, 군현이 안정되면서 학교를 설치하고 토착민을 교육하여 이들이 문서행정을 담당하였다. 한반도에 설치된 한사군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평양 정백동에서 출토된 戶口簿는 단지 낙랑군 관할 현의 호구수를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그 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鄉 단위부터 현, 그리고 군에 이르기까지 호적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행정을 전제로 하며 이는 다시 그 행정에 종사하는 많은 하급관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삼국지』 동이전 예조에는 군현지배가 종식된 이후 不耐에서 여전히 功曹 등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현토군에 이어 낙랑군에 편입되어 오랜 기간 문서행정을 경험했던 不耐 사람들이 그 문자 습득과 사용 경험의 바탕 위에 문서행정을 지속했다는 것을 말한다.

종래 한반도에서 한자를 수용하여 이를 숙지하고 사용했던 시점을 4세기초 낙랑군이 퇴각한 이후 고구려가 학교제도를 설치한 이후로 보았지만, 기원전 1세기 낙랑군 시기로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내현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부 지역과는 달리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그후 400여 년간

6) “한자의 사용 주체가 韓國人인지, 中國人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7) 김병준, 「낙랑군 초기 편호과정과 ‘胡漢稍別’ -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 목간을 단서로-」, 『목간과 문자』, 2008 ; 「秦漢 제국의 이민족 지배 - 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7, 2013 ; “Lelang Commandery and Han China’s Commandery-Based Rule”, Mark E. Byington ed.,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 Boston: Korean Institute of Harvard University, 2013 ; 「낙랑 동부도위 지역 변현邊縣과 군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진한제국을 바라보는 두 시각」,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21 등.

계속 다양한 한자 문화와 접촉하였다. 한인만이 아니라 토착민에 의해 수용된 한자 문화의 경험은 군현지배가 끝난 뒤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낙랑군 지역을 접수한 고구려가 그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내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한자 문화에 담긴 문명과 제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전제 위에 4세기 이후 고구려 나아가 삼국시대의 한자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⁸⁾

필자는 신라의 월성해자 목간 및 포항 중성리비 비문을 분석하며, 그동안 초기 이두적 요소로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 異見을 제시한 바 있다. 가령 월성해자 2호 목간의 ‘白之’ ‘敎在之’ ‘內之’에 대해서, 그리고 포항 중성리비의 ‘白’ 등을 초기 이두로 볼 수 없고, 한대 간독 혹은 당대의 투르판 문서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하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정격 한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 그간 학계에서는 정격 한문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를 한반도의 독특한 특징으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진한 혹은 수당 시기의 왕조는 제국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국이란 군사적 힘에 의거해 상이한 습속과 전통을 가진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제국은 다양한 언어 습관을 가진 자들을 그 지배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국 내에는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 습관이 반영된 형태가 존재했고 종종 그것들이 혼합된 형태로 변질되기도 했다. 정격 한문만이 아니라 변격 한문 역시 널리 존재하고 있었으며, 지방 하급 행정 단위에서는 이것들이 흔히 사용되기도 했다. ‘중국’의 한자와 ‘한국’의 한자라는 이분법적 설명이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변격 한문은 유교 경전이나 제자백가와 같은 서적류가 아니라 행정 문서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행정 문서보다 훨씬 각 지역의 다양한 언어 습관이 반영된 것이 편지이다. 편지에는 정격 한문과는 다른 구어투의 형태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여, 초기 이두적 요소라고 보았던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을 살피고자 한다.

2. 편지 구어투에 나타나는 어순의 혼란

【어순】

<한대>

<佚名與某掾書>(EPT22.463)

附尙子春車來，歸行到河上，河水溺，失亡衣物、穀粟及弩矢，求索，弩不可卒得。□掾卿哀爲求弩中官用者，請辨賈直待，叩頭叩頭。亟不事，事在掾。叩頭叩頭。即有弩處，來人幸語賈直，得奉穀往，叩頭叩頭。諸事皆掾所明。叩頭叩頭。謹因往人奉記，今九日。爲見不多文以公事方私亟自□□爲書，已贖稍去文……幸所服官六石具弩一，叩頭□□□

附尙子が 봄에 수레를 타고 왔다 돌아가다가 강에 이르렀는데, 강물에 빠져, 옷과 곡식 및 활과 화살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아보려고 했으나, 활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8) 김병준, 「한국사와 동양사의 장벽 허물기」, 『관악사론』 3, 2023.

<元致子方書>(ii90DXT0114 :611)

錢請以便屬舍, 不敢負。願子方幸留意, 沓(鞞)欲得其厚、可以步行者。子方知元數煩擾, 難為沓(鞞)。幸甚幸甚! 所因子方進記差次孺者, 願子方發過次孺舍, 求報。次孺不在, 見次孺夫人容君求報, 幸甚, 伏地再拜子方足下!

所幸為買沓者, 願以屬先來吏, 使得及事, 幸甚。元伏地再拜再拜!

·呂子都願刻印, 不敢報, 不知元不肖, 使元請子方, 願子方幸為刻御史七分印一, 龜上, 印曰: 呂安之印。唯子方留意, 得以子方成事, 不敢復屬它人。

郭營尉所寄錢二百買鞭者, 願得其善鳴者, 願留意。

自書: 所願以市事, 幸留意留意毋忽, 異於它人。

(물건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히 빚지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자방께서 가족신을 두꺼운 것으로 해서 걸어다니기 편하도록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방께서는 제가 여러 번 폐를 끼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가족신을 얻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방께서 편지를 차유(次孺)에게 건네주셨던 것은, 원컨대 자방께서 지나는 길에 차유의 집에 들러 답신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유가 없으면, 차유의 부인 용군(容君)을 보고 답을 받아주십시오. 자방께 꼭 부탁드립니다.

신발을 사 주신 것은, 먼저 돌아오는 관리에게 맡겨서 제때에 얻도록(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呂子都가 도장을 새기기를 원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초함을 알지 못하고 저로 하여금 자방에게 청하게 하였습니다. 원컨대 자방께서 어사칠분인 하나를 새겨주시는데, 거북이 손잡이에, 도장에는 “呂安之印”이라고 해주십시오. 다만 자방께서 유의하여 이 일을 해주신다면, 감히 다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곽영위가 부친 돈 200전으로 채찍을 살 때에는 원컨대 소리가 좋은 것으로 얻어주십시오. 유의해주시십시오. 스스로 적습니다. 물건을 살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무양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習書信集>(88DYTGC: 3-6)

弟子王習詣霍師門下, 叩頭叩頭敢多問: 先日相見, 甚厚。起居毋恙, 煩勞, 毋也, 叩頭叩頭。且清(請)郭隊長爲餽數什所, 幸勿恙。哀小姓之不足存也。

제자 왕습이 곽사 선생님께 여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번에 뵈었을 때 무척 좋아 보이셨습니다. 별 일 없으시죠. 번잡하고 수고로운 일도 없으시죠. 곽대장에게 부탁해서 수십 차례 음식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만, 관찮으셨는지요. 제가 직접 보살펴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 밖의 어법 혼란】

<한대>

<政與幼卿、君明書>, 敦 1871

.... □君倩不曾御, 不北邊居, 歸未有奉奏。叩頭叩頭。

(광연현장) 군전은 일찍이 (고을을) 다스리지 못하여 북변에 머물지 못하였고, 돌아와서도 아직 상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대>

<당대>

七. 高昌延壽四年參軍汜顯祐遺言文書 (2~204)

“阿姨出官中衣裳壹具, ... 阿姨盡身命, 得舍中住, 若不舍中住, 不得賃舍與餘人。”

3. 편지 구어투에 나타나는 소위 ‘초기 이두’

【中】

<한대>

<候普與左子淵書>(敦 7)

候普白: 左子淵, 頃起居得毋有它。子淵舍中皆毋它急。..... 前普所寄弓及鞍, 幸爲付左曼卿。來弓、鞍皆具記之它所。欲力所任。願聞之, 迫不及一二。致自愛自愛。

후보(候普)가 다음과 같이 아웁니다. 좌자연께서는 요즈음 별일 없으시죠. 집안 식구들도 모두 별고 없으시죠.... 앞서 제(普)가 맡겼던 활과 안장은 다행히 좌만경에게 맡겨 주셨군요. (제가) 가지고 온 활과 안장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모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은 바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兒尚與楊掾書>(敦 244)

兒尚叩頭白記: 楊掾坐前, 數數哀憐, 恩德甚厚甚厚。又前欲遣持斛詣尹府, 欲且郤陽成士吏, 令後歸, 尚意中甚不安也。

아상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웁니다. 양연께서 자주 (저를) 가엽게 여겨 주시니 은덕이 심히 두텁습니다. 또한 전에斛를 가지고 윤부에 나아가서, 또 양성의 사리를 물리려고(그만 두려고) 했지만, (새외로부터) 나중에 돌아오라 명하니, 제(尚)가 마음이 심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習與某君書>(EPT44.4)

十一月廿二日具記, 習叩頭死罪言:

君萬年, 飡食如常不? 哀憐賜記, 恩澤誠深厚。得聞南方邑中起居, 心中驩喜。習叩頭死罪死罪。教告尉史, 記即到。候長政叩頭言, 臆到, 願歸取臆具。

11월 21일 갖추어 적습니다. 習이 말씀드립니다: 君께서는 평상시처럼 잘 지내시는지요. 저를 어여삐 여겨 편지를 주셨으니, 은혜가 진실로 깊고 두텁습니다. 듣자하니 남쪽의 읍에 기거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習이 아웁니다. 가르침(敎)을 내리셔서 尉史에게 고하셨고, 그 문서가 도착하자 候長政이 말하기를 臆이 도착하면 臆을 갖고 함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夏君壯與少平書>(EPT44.5-6)

十一月十五日爲記, 邑中夏君壯多問: 少平飡食如常, 人馬起居得毋有它.

<政與幼卿、君明書>, 敦 1871

太守任君正月中病, 不幸死. 太守□□□猛. ... 政得長奉聞幼卿、君明嚴教, 舍中諸子母恙, 政幸甚. 謹因□ 幼卿、君明足下, 因請長實、子仲、少實諸弟.

정은 유경 군명께서 지엄한 분부를 들을 수 있었고, 덕의 자제분들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삼가 들으니 몹시 다행입니다. 삼가 유경 군명께, 그리고 장실, 자중, 소실 아우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당대>

七. 高昌延壽四年參軍汜顯祐遺言文書 (2~204)

“阿姨出官中衣裳壹具, ... 阿姨盡身命, 得舍中住, 若不舍中住, 不得賃舍與餘人。”

十. 唐貞觀二十三年傳阿歡夏田契 (2~207)

孔進渠廿四年中常田貳畝

cf. 十一. 唐傳阿歡夏田契 (2~208)

孔進渠常田貳畝

《阿斯塔那二四號墓文書》

四. 唐貞觀二十年趙義深自洛州致西州阿婆家書

“家中大小內外親眷悉平安否?”

【之】

<한대>

<某言書>(敦 1612)

□伏地再拜: 長卿馬足下, 因□候官教卒史妻子集名籍, 會月十五日, 今月已盡, 次公至今□□. 今安請欲爲次公請之, 元母從知其名、年、人數, 願次公急封移三通, 會今, 須移官, 問事不可忽, 願留意, 幸甚.

<馬建與張椽書>(EPT2.5)

張掾執事, 母恙. 昨莫(暮)還白園事, 云何充可不? 頃賜□. 掾昨日幸許□葵子一升, 昨遣使持門菁子一升詣門下, 受教. 願□□逆使, 昨莫(暮)取, 白欲歸事, 豈肯白之乎? 爲見不一二.

【在】

무술오작비

“‘차성재○(此成在○)’에서 ‘성재○(成在○)’는 이두체(吏讀體) 기사법(記寫法)으로 ‘이루겨’로 성립을 말하는 것이다.”

월성해자 2호묘

“垂教在之”⁹⁾

<당대>

七。唐總章元年海追與阿郎阿婆家書

得平安已不? ... 得平安已不? ... 從發家已來, 得平安好在不 ... 得平安好在不
其阿君伯父在阿兄去後

十五。唐李賀子上阿郎阿婆書一 (一) (3—201) (64TAM5: 40) :

“口口[子]鼠仁兩個家里平安好在, 賀子口口個, 一小四歲, 一小二歲, 到六月復坐, 不知見女。廿年七月內, 用七千五百文買胡姆一人, 次廿一年正月內, 用錢九千[]宅在。手里更無物作信, 共阿郎、阿婆作信, [賀]子慚愧在。”

十六。唐李賀子上阿郎阿婆書二

張將舍盡平安在

十六。唐李賀子上阿郎阿婆書三

平安以不? ... (平安) 在?

十八。唐李賀子上阿郎阿婆書四 (一) (3~205) (64TAM5: 79) :

“盡通平安?”

“順看阿郎、阿婆, 著二人[時]得長命果報在。莫賀子舉[見]仁二立。”

唐李賀子上阿郎阿婆書四 (三) (3~206)

“次問訊郭延明兒黑石平安在不? 次問訊汜歡伯合家大小, 郭懷悅身平安好在

《阿斯塔那二四號墓文書》

四。唐貞觀二十年趙義深自洛州致西州阿婆家書

“家中大小內外親眷悉平安否?”

兩個阿姨盡得平安以否? ... 問訊弟張隆訓、妹麥玉連盡得平安已否?

9) 김병준, 「월성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 중국 출토 고대 행정문서 자료와의 비교」, 『목간과 문자』 20, 2018.

六。唐趙義深與阿婆家書 (2~174) 64TAM24: 30 :

“次參拜父子，文訊合家...平安已否?”

“聞阿輝共阿婆一處活在，義深憶不自勝。”

“[義][深][]來去供給依常糧食在。”

七。唐麥玉連武通家書 (2~175)

“（平安）在不？麥玉連此間平安好在？”

“家在亦中，身得脫，在首裏物錢財” (? ~견여? ~인 것에 더해?)

八。唐[]連家書

“如供君妹處待在，平安在”

唐張文成《游仙窟》：“定知心肯在，方便故邀人。”

唐張鷟《朝野會載》卷三：“已取得來，見於後園中放在。”¹⁰⁾

10) 張相, 『詩詞曲語辭匯釋』 p.326, 董志翹·蔡鏡浩, 『中古虛詞語法例釋』, p.616~617.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SYMPOSI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기획 주제 발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문자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이용
(서울시립대)

1. 서론

한글 이전에 차자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이 차자표기는 한국인이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문자생활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쉽게도 한글과 비교해서는 그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차자표기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연구 성과도 많이 쌓였다. 그러나 일반문자론적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차자표기를 연구한 논저는 아직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메르문자, 이집트문자 등의 표어문자가 이웃에 전해져 변용되어 사용되는 양상이라든지, 우리 주위의 일본, 베트남 등에서 한자가 변용되어 사용되는 양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문자론적으로 축적된 이론을 바탕으로 차자표기를 연구하고 이를 다른 문자와 비교하는 것은 차자표기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반문자론적 관점에서 문자론 용어를 정리하고(제2장) 이를 바탕으로 차자표기의 문자(제3장)와 차자표기의 운용과 특성(제4장)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히 4장에서는 한자의 변용 기법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향찰, 구결, 이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차자표기를 어떻게 문자론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차자표기의 사용이 정교화하면서 훈민정음의 종성부용초성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갈 사실이 있는데, 구결을 다룰 때 석독구결만 다루고 음독구결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은 전면적인 한국어 표기에 관심이 있는데 음독구결은 그 점에 있어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문자론의 용어

2.1. 문자의 개념과 분류

문자는 넓은 의미의 문자와 좁은 의미의 문자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문자에서는 “부호나 여러 가지 상징기호를 포함하는, 시각적 기호 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자를 정의한다.¹⁾ 이 정의에 따르면 그림이나 그림문자 단계도 문자에 포함된다. 이처럼 정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언어

1) 로이 해리스(1995)가 대표적인데, 기호학이나 사회학 같은 분야의 학자들은 넓은 의미의 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와 관련 이전부터 문자가 존재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문자는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문자를 정의하는 것으로, 언어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의를 채택해 왔다. 다만 넓은 의미의 문자 개념을 택한 학자라도 기호와 언어의 결합이 문자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글에서 언어학적 사실에 관심을 두고 문자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좁은 의미의 문자만을 뜻하게 될 것이다.

문자에 관한 고전인 Gelb(1963: 12)에서 최근 저서에 이르기까지 문자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Gelb(1963: 12): 눈에 보이는 관습적인 표식으로 인간이 상호소통하는 체계

Unger and DeFrancis(1995: 45): 영구적인 시각적 부호를 사용하여 음성언어의 발화를 나타내는 체계.

Daniels(1996: 3): 발화자의 개입 없이 발화를 대체로 정확히 복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대체로 영구적인 부호의 체계.

쿨마스(2016: 20): 시각적 또는 촉각적 부호를 사용하여 음성 언어를 기록하는 체계.

헨리 로저스(2018: 2): 특정한 언어 발화를 표현하기 위한 도형적 부호의 사용.

이 정의들에서 핵심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딱히 부연할 것이 없다. 둘째, 시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쿨마스(2016)에서는 촉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색다르다. 시각적인 것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점자는 문자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발화 또는 음성 언어를 대체로 정확히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에 기반을 두고 문자를 정의하는 입장들이므로 마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정리한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문자를 정의하면 “언어의 음성을 시각적 기호로 옮기는 관습적 부호 체계”가 된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문자 분류는 글자가 표상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한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분류이다. 개별 글자가 나타내는 것이 의미의 단위인가, 소리의 단위인가에 따라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로 나누었다(배보은 2013: 53).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표의문자로는 수메르 문자,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한자 등을, 표음문자로는 한글, 알파벳, 일본의 가나 문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이 분류가 가진 문제는 표의문자의 대표인 한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만 표의문자에 속한 글자들이 음성은 지니지 않은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²⁾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문자는 음성 언어의 구성 단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음성 언어를 구성하는 단위로는 단어, 형태소, 모라, 음절, 음소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단위를 표상하느냐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언어 구성 단위에 따라, 문자를 표어문자(단어문자), 형태소문자, 음절문자, 모라문자, 음소문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헨리 로저스 2018).

표어문자(logographic)는 자소가 단어 또는 형태소와 관련되어 있는 문자 체계를 이르는 말이다. 이런 문자 체계의 자소는 표어자(logogram)이다. 표어문자와 관련하여 헨리 로저스(2018: 21)에서

2) 연규동(2014)에서는 이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자가 의미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면 표의문자로 음성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면 표음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뒤에서 다시 나온다.

는 자소가 형태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문자 체계의 사례를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형태소(morphographic) 문자 체계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반면에, Zev Handel (2019: 9)에서는 한자 등 “무에서 창조된 네 개의 문자 체계에서는 적어도 일부 글자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를 나타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형태소보다 더 큰 의미 단위를 나타내는 음성 언어 요소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문자 체계는 표어문자 체계의 하위 유형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자는 표어문자가 된다.³⁾

음절문자 체계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 한자는 각 음절이 별도의 글자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음절 문자의 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한자는 표어-음절 문자로 부르기도 한다.

모라문자는 음절문자와 혼동되기도 하고 음절문자의 하위 부류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모라를 나타낸다. 모라는 초성-중성 연쇄로 이루어지거나 종성 하나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cat은 /kʌ/와 /t/의 2개의 모라로 이루어져 있다(헨리 로저스, 2017: 20). 모라문자의 예로는 일본의 가나, 체로키 인디언 문자. 크리 문자 등이 있다. 일본의 가나 문자는 한자를 변용하여 만든 것이다. か<ka>, き<ki>, く<ku>, け<ke>, こ<ko>, ん<n> 등의 글자는 각각 하나의 모라를 표상한다.

음소문자는 글자가 음소(자음과 모음)를 나타내며, 이 글자들은 ‘낱자(letter)’라고 부른다. 음소문자의 예로는 그리스 문자, 라틴문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표음문자 체계에는 아부기다(abugida) 체계, 압자드(abjad) 체계가 또한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⁴⁾

2.2. 표의문자와 표어문자

여기서 잠깐 한자와 관련하여 표의문자와 표어문자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한자를 대체로 표의문자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한자를 표의문자(ideograph)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육서 중 상형(象形)에 의한 것인 ‘日’, ‘月’ 등과 지사(指事)에 의한 것인 ‘一’, ‘二’, ‘三’ 등은 초기 제자 시기로 올라가면 표의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성자(形聲字)’로 눈을 돌리면 절반 정도는 표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표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성자의 반은 의미를, 반은 음을 담당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표의문자라는 용어에 경도되면 한자의 표음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쉬운데, 다른 고대 문자와 마찬가지로 한자도 문자 이전의 부호가 언어와 관련을 지니면서 문자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표음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문자 체계가 표의의 방법에만 의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

3) 쿨마스(2016: 99)에서는 “‘표의문자’보다 ‘단어문자(=표어문자)’가 더 적합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용어 역시 문자의 중요한 단위가 단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수메르 문자든 한자든 문자의 단위는 단어가 아니며, 단어를 언어 분석에서 분명하게 정의된 단위라고 이해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4) 자세한 설명은 Peter T. Daniels (1996)을 참고할 수 있다.

다.⁵⁾ 첫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관념이 무수히 많은데 이것을 모두 글자로 만든다면 글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인간의 기억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글자를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상형이나 지사만으로는 구상적인 관념이라면 몰라도 추상적인 관념 등을 나타내는 글자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음성은 한정된 수의 음 단위로 좁혀지고, 또 음형 표시에 의한 표어가 표의에 의한 표어보다 간단하기에 표음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글자의 수를 늘려갈 수 있다. 이 방법을 가차(假借)라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다른 글자를 빌려와서 아직 자기 글자를 가지지 못한 단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글자의 의미와 관계없이 표음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한자를 표의문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⁶⁾ 그보다는 오히려 표어문자라고 부르는 것이 덜 문제를 일으킨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동(2014: 169)에서는 표의문자가 의미만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먼저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이 용어를 굳이 버릴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표의문자가 특정 문자의 속성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한자에 적용하면 한자 역시도 표의문자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어에서 あ, い, う, え, お ... 대신에 각각 安, 以, 宇, 衣, 於 ...로 일정하게 적는다면, 이때 사용된 50여 개의 한자들은 일본어에서 표음문자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자가 표음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표의문자라는 용어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글자가 의미만을 표상할 뿐 음은 표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한자에 대하여 표의문자로 칭하지 않고 표어문자로 칭하고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⁷⁾

글자, 문자, 문자 체계의 구분도 차차표기를 문자론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 먼저 글자(graph)는 문자 체계의 기본 단위를 이르는 말이다. 문자(script)는 형식적·기능적 특징을 공유하여 글을 쓸 때 함께 사용되는 글자들의 고정된 집합이다. 문자 체계(writing system)는 하나 이상의 문자(script)와 그것을 특정 언어의 표현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과 관습의 모음이다.⁸⁾ 이에 따르면, 한자 글자들의 집합은 표어문자가 되고 글자 하나하나를 표어자가 된다.

2.3. 음성 보충소와 의미 지시소

5) 이 문제에 대해서는 下野六郎(1994)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6) 우리가 표의문자라고 번역하는 ‘ideographic’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헨리 로저스(2018: 368)에서는 이 용어가 문자 관련 논저에서 형태소 표시자(=표어자: 역자 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의미 단위를 가리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사례를 깊이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혼동의 우려가 크므로 이 용어를 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7) 표의문자라는 용어를 굳이 써야 한다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Coulmas(1996)의 ‘Pleremic 체계’와 ‘Cenemic 체계’를 살려서 쓸 것을 제안해 본다. Pleremic은 ‘완전한(full)’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에서 온 용어로 Pleremic 체계는 각 글자가 의미와 음성을 모두 표기하는 경우를, Cenemic은 ‘빈(empty)’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에서 온 용어로 Cenemic 체계는 글자가 음성만을 표기하는 경우를 이른다.

8) 글자, 문자, 문자 체계의 구분은 Zev Handel (2019: 6-7)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글자’, ‘문자’, ‘문자 체계’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기호(sign)’나 ‘자소(grapheme)’, ‘기호 체계(signary)’, ‘표기법(orthograph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자들(예: H. Rogers(2005: 10), Daniels(1996: 3))은 문자 체계와 문자를 서로 바꾸어 사용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예: Coulmas 2003: 35-36)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음성 보충소와 의미 지시소를 이해하기에 앞서 음성 확장과 의미 확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성 확장과 의미 확장은 기존의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음성 확장(phonetic extension)은 기존에 존재하던 문자를, 우연히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다른 형태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자에서 ‘말’의 뜻을 가진 ‘𠂔’ /mǎ/(현재 모습은 馬)를 ‘엄마’를 뜻하는 /mā/에 쓰는 것이 그 예이다. 한자의 설명 방법인 육서로는 가차(假借)에 해당한다.⁹⁾ 의미 확장은 한 형태소에 사용된 글자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에 확장되어 사용되는 방법을 이른다. 한자의 설명 방법인 육서로는 전주(轉注)에 해당한다. 수메르 문자에서는 ‘태양’(utu)을 뜻하는 글자가 의미 확장에 의해 ‘ud’(빛, 날, 시간), ‘babbar’(빛나다, 하얗다), ‘àh’(마르다, 시들다)를 뜻하게 된다.

이처럼 음성 확장과 의미 확장으로 더욱 많은 단어를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고대인은 단어마다 일일이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하나의 글자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의동자(異義同字)가 많이 생기고 이를 구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의미 지시소와 음성 보충소가 고안되었다.

의미 지시소(semantic determinative)는 기존의 글자에 의미에 해당하는 글자를 결합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거나 구별하는 데 쓰인다. 앞에서 가차의 예시로 든 ‘馬’가 의미 지시소를 설명하는 데 좋은 예가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馬’는 가차에 의해 ‘말’과 ‘엄마’의 의미를 둘 다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별에 문제가 생기자 ‘엄마’의 뜻을 갖는 한자에는 ‘女’를 결합하여 ‘媽’를 만들었다. 이때의 ‘女’가 의미 지시소이다. 의미 지시소는 한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문자에서 자신이 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자의 앞에 오거나 뒤에 오는 문자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쟁기’(apin)를 상형한 글자가 ‘𒀭’가 전주에 의해서 ‘engar’(경작하는 사람)가 되자 ‘apin’을 뜻하는 것과 ‘engar’을 뜻하는 것이 둘 다 명사로 쓰이게 되면서 둘 사이에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때 구별을 위해 ‘나무’를 뜻하는 것을 써서 ‘쟁기’로 한정하고 ‘사람’을 뜻하는 것을 써서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¹⁰⁾ 이때 ‘나무’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의미 지시소이다.

음성 보충소(phonetic complement)는 기존의 글자에 결합하여 음운 정보를 더하는 글자이다.¹¹⁾ 한자의 예로 ‘鷄’를 들 수가 있다. 글자의 발달 과정을 보면, ‘닭’을 뜻하는 글자로 원래 닭을 상형한 ‘𪇐’를 쓰다가 환유에 의하여 새 전체까지도 뜻하게 되고 혼동이 생기자 음부인 ‘奚’를 붙여 형성자인 ‘鷄’를 만들었다. 이때 ‘奚’가 음성 보충소가 된다. 다른 고대문자에서도 음성 보충소가 보인다. 이집트 문자의 예를 살펴보면, 심장은 원래 ‘𓄏’로 표기하고 이 글자의 음은 이중자음 /jb/였다. 그런데 이 이중자음 /jb/를 나타내는 ‘𓄏’ 다음에 /b/ 음을 나타내는 ‘𓂏’를 더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𓄏 𓂏’의 결합

9) 하나의 글자를 다른 단어에 가차할 때 성조는 무시되었다. 그리고 음이 완전히 같아야 하지도 않았다.

10) 河野六郎·千野榮一·西田龍雄(편)(2001:499)를 참조.

11) 일반적으로 수메르학에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음성 요소는 ‘음성 보충소(phonetic complement)’라고 하고 중의성을 제거하는 의미 요소는 ‘의미 지시소(semantic determinative)’라고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두 유형의 요소에 대해 모두 ‘지시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몇 가지 가능한 독법 중에서 어느 것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충소’, ‘지시소’라는 용어 대신 ‘보충자’, ‘지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한자에서는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인상을 주는 ‘보충자’, ‘지시자’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한 면이 있기에 ‘보충소’, ‘지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을 [jbb]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j’를 더한 것은 /jbb/를 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jb/의 두 번째 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인 ‘j’는 단지 단어의 발음을 강조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 음성 보충소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성 보충소의 예로는 영어 표기의 ‘second’와 ‘third’가 있는데, 2와 3에 각각 ‘-nd’와 ‘-rd’를 붙이면 음성 보충소로 간주되어 ‘second’와 ‘third’를 지시한다.

이러한 음성 보충소는 기존의 차자표기 연구에서는 말음첨기라고 불렀던 것에 대응된다. 김완진(1980: 18)에서는 말음첨기를 ‘語形의 示唆를 위하여 訓讀字 밑에 받쳐 적는 字’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기존의 용어 ‘말음첨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음성 보충소’로 대신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는 기능을 고려한 선택이다. 사실 말음첨기는 그 용어의 의미가 표기상에 있어서 위치를 나타내 주는 데 그치는 감이 있지만 음성 보충소는 자소로서의 기능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말음이라고 하면 ‘음소’ 단위를 뜻하지만 차자표기의 음성 보충소는 음소 단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절 단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음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고대문자에 나오는 음성 보충소의 예들이다.

<표 1> 고대문자의 음성 보충소(겔브, 1963)¹²⁾

수메르 ¹³⁾	이집트	히타이트
CROWN.en ‘왕관’(men) EAR.giŠ.tuk ‘현명한, 지혜’ (geŠtuk)	s ^x .MAN ‘남자’ (s ^x) ¹⁴⁾ n ^x .BASKET.b ^x t ^x ‘바구니’ (n ^x b ^x t ^x) r ^x Č ^x .MAN ‘사람’ (r ^x m ^x c ^x)	LORD.ni-s(a) 또는 LORD.na-ni-s(a) ‘주인’ (nanis)

음성 보충소는 위치와 보충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우선 위치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메르와 히타이트 문자에서는 표어자의 뒤에 온다. 예를 들어, 수메르 문자에서는 ‘왕관’을 뜻하는 수메르 단어 ‘men’을 표기하기 위하여 ‘왕관’을 상형한 표어자 뒤에 ‘en’에 해당하는 음성 보충소를 받쳐 적는다. 이집트 문자에서는 표어자의 앞뒤 또는 양쪽에 올 수 있다. ‘바구니’를 뜻하는 이집트 단어 ‘n^xb^xt^x’를 표기하기 위하여 ‘바구니’를 상형한 표어자의 양쪽에 각각 ‘n^x’와 ‘b^xt^x’에 해당하는 음성 보충소를 받쳐 적는다.

보충 정도를 보면, 이집트와 히타이트 체계에서는 단어 전체를 반복하지만, 수메르 체계에서는 대부분 단어 일부만을 반복한다. 이집트 문자에서는 단어 ‘n^xb^xt^x’에 해당하는 음성 전부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수메르 문자에서는 단어 ‘men’에 해당하는 음성의 일부인 ‘en’만을 반복하고 있다. 히타

12) 한자의 음성 보충소도 예를 들고 있으나 적절한 예로 판단되지 않아 인용에서 제외하였다.

13)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메르 설형 문자에서 전파된 아카드 설형 문자에서는 수메르 문자보다 음성 보충소가 더 두드러진다. 많은 표의자가 아카드 독법뿐 아니라 수메르 독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samu ‘하늘’의 표기를 위해 아카드인들은 samu-u라고 썼다. 여기서 마지막 u는 발음되지 않고 수메르어 독법이 아니라 아카드어 독법으로 읽어야 함을 지시하기만 하는 음성 보충소이다. 음성 보충소가 없으면 같은 표어자를 수메르어 an으로 읽을 수도 있다.

14) 자음자 위에 보이는 ‘x’는 보충해서 읽어야 하는 모음이다.

이트 문자에서는 단어 ‘nanis’의 전부(na-ni-s(a)) 또는 일부(ni-s(a))를 반복하고 있다.

3. 차자표기의 문자

3.1. 한자

차자표기에 쓰이는 문자로는 한자, 구결자, 고유한자를 들 수 있다. 먼저 한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자는 표어문자이다. 한자가 나타내는 단위가 진정으로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대응 단위가 형태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표어문자가 형태소에 대응되는 단위를 표기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한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표어문자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가차와 형성자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표어문자의 특성상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글자를 만들 때는 음성 확장, 즉 가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확장되면 이의동자(異義同字)가 많아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의미 지시소의 사용이다. 한자에서 의미 지시소의 사용은 형성자가 많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차자표기와 관련하여 가차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한자에서 의미를 제외하고 음성만을 살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한자로 우리의 인명, 지명 등 고유명을 표기한 고유명 표기의 토대가 된다. 또한 한자를 써서 앞 한자의 음성 정보를 보충하는 음성 보충소의 방식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셋째, 1자가 1음절에 대응된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¹⁵⁾ 대체로 1자가 1음절에 대응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자를 표어-음절 문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자가 1자 1음절의 특징을 지니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지는 중국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나 중국어의 음절 구성이 한국어의 음절 구성과 다르므로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한국어의 음절 구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한자로 한국어를 표기할 때 훈의 이용이나 음성 보충소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한자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한국어 표기에서 특기할 사실은 음성 보충자의 사용은 빈도가 매우 높으나 의미 지시소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자의 대부분이 형성자이고 형성자에 이미 부수, 즉 의미 지시소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는 다음절어라서 가차를 하더라도 동자이의가 생기는 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3.2. 구결자

구결자는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때 그 의미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각 구절 아래 달아 놓는 글자를 일컫는다. 이 구결자는 한자를 그대로 쓰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한자의 획을 생략

15) 헨리 로저스(2018: 40)에는 각각의 음절이 하나의 한자로 쓰인다는 규칙과 관련하여 조그마한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지소(指小) 접미사 /-r/은 음절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쓸 때에는 독립된 하나 ‘ㄹ’로 쓰이는데 이 한자의 원래 의미는 ‘아이’이다.

하여 만들었다. 구결자의 사용 양상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석독구결인데, 석독구결에서는 총 80여 개의 구결자가 사용되었다(문현수, 2020: 73). 이러한 구결자에 관해 송기중(1997: 25)에서는 한자는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입된 문자’이지만 구결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들어졌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였다.

구결자를 만들 때는 한자를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只/기, 在/겨, 乙/을 등), 한자의 획을 생략하여 만든 생획자(=약체자)들이 많았다. 구결의 생획자들은 정자의 앞부분에서 따오느냐, 뒷부분에서 따오느냐의 구별이 있고, 정자의 해서체에서 따오느냐 초서체에서 따오느냐의 구별이 있다.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몇 예를 소개하기도 한다.

(1) 가. 해서체의 앞부분을 딴 것: 𠂔 (在), 𠂔 (飛), 𠂔 (羅), 𠂔 (乎)

나. 해서체의 뒷부분을 딴 것: 𠂔 (古), 𠂔 (只), 𠂔 (叱)

다. 초서체의 앞부분을 딴 것: 𠂔 (良), 𠂔 (是), 𠂔 (彌), 𠂔 (爲)

라. 초서체의 뒷부분을 딴 것: 𠂔 (彌)

음독구결까지 확대해서 보면, 생획자로 만들어진 구결자들이 때로는 어떻게 또는 얼마나 간략화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利’의 경우에는 앞부분을 따온 ‘𠂔’와 뒷부분을 따온 ‘𠂔’의 두 가지 자형이 보인다. ‘羅’의 경우에는 자형이 더욱 다양한데, 차례대로 간략화해가는 ‘𠂔→𠂔→𠂔’뿐만 아니라 ‘𠂔’도 발견된다.

문현수(2020)에서는 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의 문자적 특성을 6가지로 분석하였는데,¹⁶⁾ 그중에 ‘음절말 종성 표기와 구결자’와 ‘표어성을 띠는 구결자’는 더 세밀하게 살펴볼 만하다.

먼저 음절말 종성표기와 관련하여 문현수(2020)에서는 구결의 표기에서 종성에 사용되는 글자로 ‘𠂔(ㄱ)’, ‘𠂔(ㄴ)’, ‘𠂔(ㄷ)’, ‘𠂔(ㄹ)’, ‘𠂔(ㄴ)’, ‘𠂔(ㄹ)’, ‘𠂔(ㄴ)’, ‘𠂔(ㄹ)’, ‘𠂔(ㄴ)’, ‘𠂔(ㄹ)’을 들고 해당 한자의 종성을 사용하는 것과 초성을 사용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이 글자들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과 분류는 훈민정음 종성자의 제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⁷⁾

보통 구결자를 표어문자인 한자의 의(義)는 제거하고 음(音)만을 차용하거나 한자의 자국어 훈(訓)이 나타내는 소리를 중심으로 차용한 표음문자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표어자로 쓰이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훈독자를 구결자로 쓴 예가 있는가 하면 훈독자가 아닌 구결자들 중에서도 표어성을 띠는 예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ㅎ’와 사동접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한 ‘𠂔’인데, ‘𠂔’가 한자 ‘습’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음가자를 사용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표어자로 변한 예이다. 대표적으로 ‘𠂔’와 ‘𠂔’를 들고 있다. ‘𠂔’와 ‘𠂔’는 모두 [리]라는 독음을 갖는 구결자로, 음상에 차이가 있지 않지만, ‘𠂔’는 동명사어미 ‘-리’와 계사 ‘-이’ 내지 주격조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할 때, ‘𠂔’는 동명사어미 ‘-리’와 의존명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할 때 사용되어 그 쓰임이 구분된다고 하였

16) ‘표어성을 띠는 구결자’ 밖에도 ‘독음이 겹치는 구결자’, ‘독음이 여러 가지인 구결자’, ‘모음조화와 구결자’, ‘음절말 종성 표기와 구결자’, ‘고대 국어의 음절과 구결자’를 정리하였다.

17) 이에 대해서는 3.4에서 다시 자세하게 논의하게 된다.

다. 더불어 ‘尸’과 ‘乙’의 정연한 구분도 각 구결자가 띠는 표어성 때문인 것으로 볼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문현수(2020)의 이러한 주장은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표어자의 변용 양상을 ‘훈독, 음독, 훈가, 음가’의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 ‘음운론적으로 변용된 표어자’를 추가해 볼 수가 있다.

3.3. 고유한자

한자, 구결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고유한자(𠂔, 𠂔, 𠂔 등)이다. 이 고유한자는 ‘국자(國字)’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인만이 이해하는 한자이다. 송기중(1997: 6)에서는 고유한자는 한자의 약체자가 아니라는 점, 국어에서 통용되는 일반 한자와 전혀 차이가 없이 사용된다는 점 등에서 구결자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풍현(1989: 108-109)에서는 한글과 한자의 양분 체계인 현대의 문자 생활을 고려하면 구결자를 한자의 범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나 구결자와 고유문자를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차자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분리해서 다루기로 한다.

고유한자와 관련된 논의로는 金種墳(1983), 남풍현(1989), 이건식(2019)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건식(2019)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한국 고유한자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처음에는 가차하여 쓰다가 의미 지시소를 사용하여 형성자로 바뀐 유형이 있다. ‘𠂔, 𠂔, 𠂔, 𠂔’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글자들은 음차 표기에 쓰인 ‘代, 飛, 飛, 亡’에 의미 지시소인 ‘土, ㄱ, 糸, 魚’를 첨가해서 형성자가 되었다. 𠂔는 ‘代/장소’에 의미 지시소 土가 결합한 형성자로 파악된다. ‘代’는 ‘空代/빈터’와 ‘家代/집터’를 고려하면 ‘터’의 음을 표기하는 데 쓴 글자임을 알 수 있다. 𠂔는 ‘飛襟/비비다’의 문맥에서 후행하는 衣의 영향으로 襟襟이 형성된 것으로, 𠂔는 ‘縷飛/縷非/누비다’의 문맥에서 선행한 糸의 영향으로 縷縷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𠂔는 ‘亡魚/망둥이’와 ‘魴魚/망둥이’의 대응 자료를 고려하면 亡[망둥이의 망 음차 표기자]에 의미 지시소 魚가 첨가된 형성자로 파악할 수 있다.

표어자에 음성 보충소를 합해서 쓰는 유형이 있다. ‘𠂔’은 ‘돌’을 표기하는 것인데 고유어 ‘돌’을 ‘石’으로 훈차 표기하고 ‘ㄱ’을 乙로 음차 표기하여 합자한 것이다. ‘돌’의 훈 ‘石’에 말음 ‘乙’을 보충하여 ‘돌’로 읽게 지시했던 데서 온 것이다. 향가에 나오는 ‘道尸(길)’을 연상시킨다. ‘𠂔’처럼 한 글자로 표기하게 된 것은 합자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을 음성 보충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𠂔(밤)’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종성 표기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여 음차한 한자의 종성으로 한글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𠂔(적), 𠂔(독)’이다. ‘𠂔’을 보면 ‘거’에 해당하는 초성과 종성의 표기에는 ㅈ를 음차해 사용하고 종성으로는 한글 ‘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합용병서의 표기가 주의를 끈다. ‘썸, 썸’을 표기할 때 각각 ‘𠂔’, 𠂔만 아니라 ‘𠂔, 𠂔’도 보이는데, 이것은 음성 보충소는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표기로 추정된다.¹⁸⁾ 그 밖에도 ‘𠂔劫伊(뚝잡이):𠂔巨非(뚝거비)’, ‘少-斤(자근)’ 등

18) 음성 보충소가 오른쪽에 있는 예로는 ‘回-毗(쫄)’이 있다.

한글 표기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형식의 고유한자가 생겼는데 이는 따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¹⁹⁾

의미를 먼저 조합하여 합친 회의자였다가 나중에 형성자로 바뀐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辻/변방의 울타리’가 있다. 이 글자는 ‘守[울타리]+辵(邊)[가장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라고 하는 까닭은 처음에는 이 한자에 해당하는 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음으로 ‘수’를 갖게 되어 회의형성자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회의자에는 ‘辻/말뭉치’(斗[말]+辵(邊)[가장자리, 밭]), ‘迤/구덩이’(地[땅]+辵(邊)[가장자리, 밭])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나중에 음으로 ‘두, 지’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중국의 회의자와는 양상이 다르다.²⁰⁾ 중국의 회의자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는 갖추어진 한자와 생획자를 대등하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어(漢語)의 합자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畚/논, 太/콩, 矣/주비, 癸/癸/癸/癸/공부’가 있다. 이 글자들은 ‘水田, 大豆, 〇夫, 功夫’ 등에서 합자된 것이다. 이 글자들은 두 글자를 하나의 글자로 합해서 쓴 것이다. ‘畚’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회의자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음차 표기자를 합자해서 쓰기도 하였다. 南山新城碑(591)이 합자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료인데 ‘[大/舍](大舍), [小/舍](小舍) [上/干](上干) [一/伐](一伐), [一/尺](一尺), [大/鳥](大鳥) [小/鳥](小鳥) [上/人](上人)’ 등의 자형이 나타난다. 그밖에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大/舍](大舍), 永川菁堤碑貞元銘(798)[朶](乃末), [癸](功夫) 등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한자를 생획(生劃)해서 쓰는 방식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글자를 중심으로 생획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정자(正字)의 뒷부분: 𠂔(嚴), 豆(頭), 角(解), 加(迦)

나. 정자의 앞부분: 𠂔(能), 𠂔(修), 𠂔(釋), 𠂔(經)

다. 정자의 중간 부분: 𠂔(榜), 𠂔(捉)

라. 기타: 𠂔(羅), 𠂔(國), 𠂔(等), 𠂔(行), 并[菩薩]

한국의 고유한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고유한자는 차자표기의 발달과 관련하여 더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유한자에는 문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문자를 다루는 방법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차자표기 연구에서는 새로 한자를 만드는 방법보다는 한자를 변용하는 방법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고유한자가 차자표기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처럼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고립어를 속하는 언어를 쓰는 경우에는 새로운 한자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같은 교착어라도 거란이나 여진에서는 한자를 응용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문자적 측면에서라도 고유한자의 연구는 필요하다.

4. 차자표기의 운용과 특성

19)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용(2023ㄴ)을 참고할 수 있다.

20) 이것은 베트남 쯔놈 문자에서 10을 뜻하는 ‘迤(mười)’가 ‘辵+ 什’으로 이루어진 것을 연상시킨다. Nguyễn Quang Hồng(2014)에서는 ‘辵’의 원 글자가 ‘邁’인 것으로 보았다.

4.1. 한자의 변용 기법

표어문자인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음과 뜻을 지닌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였다. 음차와 훈차가 그것이다. 음차는 단어나 형태소의 음에 기반하는 음성적 변용이고, 훈차는 단어나 형태소의 의미에 기반하는 의미적 변용이다.

음차는 다시 ‘음독(音讀)’과 ‘음가(音假)’로 나눌 수 있다. 음을 빌려서 쓰면서 한자의 의미를 살려서 쓰면 ‘음독(音讀)’이 되고 한자의 의미를 버리고 표음자로만 쓰면 ‘음가(音假)’가 된다. 음차는 중국에서도 있었던 방법으로, 산스크리트어 ‘buddha’가 중앙아시아의 토카라어에서 ‘붓(but)’이 되고, 이 토카라어 ‘붓’이 ‘부도(浮圖)’, ‘부도(浮屠)’, ‘불(佛)’ 등으로 번역되다가 마침내 ‘佛’로 굳어진 것이 대표적이다.²¹⁾

훈차(訓借)는 ‘훈독(訓讀)’과 ‘훈가(訓假)’로 나눌 수 있다. 한자의 훈을 빌려서 쓰면서 훈의 의미를 살려서 쓰면 ‘훈독(訓讀)’이 되고 한자의 의미를 한자의 훈을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이다. 훈은 한문을 익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문을 새기는 방법이 체계화하고 한자 하나하나에 자국어 단어를 대응시킬 수 있게 되면서 생긴 것이다.²²⁾ 이때의 의미적 관련성은 ‘번역의 등가성’에 의한 것이지, 글자 형태에 남아 있는 어떤 도상성에 바탕을 둔 환유나 연상에 의한 것은 아니다.²³⁾

한자 ‘加’를 써서 음독, 훈독, 음가, 훈가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음차와 훈차 정리

		중국어	한국어			
		의미	발음	의미	발음	예
a	음독	중국어	중국어	‘더하다’	/가/	加하다
b	훈독	중국어	한국어	‘더하다’	/더/	加于
c	음가	-	중국어	-	/가/	任那加羅
d	훈가	-	한국어	-	/더/	爲加尼

먼저 음독자는 한문에서의 한자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는 음독자가 된다. a가 그 예인데, 한국 한자음인 ‘가’로 읽으면서 ‘더하다’는 뜻도 살려 쓰게 된다. 둘째, 훈독자는 한자의 의미인 ‘더하다’를 이용하면서 뜻도 살려 쓰게 된다. b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다만

21) 가차는 고대문자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중동 지역에서는 표음문자화의 계기가 되고 중국에서는 형성자의 형성에 전기를 가져왔다.

22) 자세한 내용은 남풍현(2000:16-20)을 참고할 수 있다.

23) 중국에서도 의미적 변용이 일어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의미적 변용과는 구분이 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Zev Handel(2019: 90)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어 표기에서는 달(moon)의 도상적 표현인 𠂔가 yuè ‘달’과 유 의어 관계가 아닌, xī ‘밤’로 의미적 변용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yuè ‘달’을 표기하는 한자 ‘月’은 한국어 형태소 ‘밤’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새김으로서의 훈은 한문을 익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훈이 존재하지 않으면 훈독이 생길 수가 없다.²⁴⁾ 셋째, 음가는 가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²⁵⁾, 한자의 음만을 살려 쓰게 된다. c에서 볼 수 있는데, 국명 ‘任那加羅(임나가라)’를 쓰는 데 이용되고 있다. 넷째, 훈가자는 훈독에서 발달한 것이다. d의 ‘爲加尼’에서 ‘加’는 ‘더’로 읽히는 것으로 선어말어미 ‘더’를 표기한 것이다. 이때 ‘加’는 한문의 원뜻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어 표기에서 그 수가 적다.

여기까지가 기존에 한국학계에서 분류해 오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Zev Handel(2017: 20)에서 논의된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이다.²⁶⁾ 베트남의 쓰놈에 이 예에 속하는 예들이 보이는데, 베트남어 형태소는 단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가 음성적으로 변용될 경우에 그것이 나타내는 음절이 곧 형태소와 대응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한자 ‘沒’의 발음이 ‘하나’를 뜻하는 베트남어 고유어 ‘môt’의 발음과 음성적으로 유사해서 ‘沒’을 하나를 뜻하는 ‘môt’의 표기에 쓰게 되면, ‘沒’이 하나를 뜻하는 표어자로 바뀌게 된다.²⁷⁾ 그런데 구결자 ‘ㄷ’가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표기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자표기에서 표음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4.2. 차자표기의 운용과 향찰, 구결, 이두

여기서는 한자의 변용 기법을 사용하여 향찰, 구결, 이두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구결과 관련해서는 석독구결만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음독구결 같은 경우에는 석독구결보다 한문에 훨씬 더 의존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표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향찰은 차자표기 중 한국어 표기에 최적화된 표기 체계이다. 그 표기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지닌다.

(3) 가. 구체적 의미를 지닌 어휘형태소는 독자(讀字)를 통해 표어적으로 표기된다.

나. 문법형태소는 대체로 가자(假字)를 통해 표음적으로 표기된다.

다. 표음적으로 사용될 때는 대체로 하나의 한자가 음절(CVC 또는 CV)에 대응되지만 하나의 자음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4) 가. 奪叱良乙 何如 爲理古 앓-스-아-닐 엇더-헝-리-고 <處容歌>

나. 奪叱良乙: 訓讀字+音假字+音假字+音假字

何如: 訓讀字+訓假字

爲理古: 訓讀字+音假字+音假字

24) 중국에도 훈독의 방식은 존재한다. 김문경(2023: 23)에 따르면, 광둥 사람이 보통화의 ‘甚麼(서머)’ 두 글자를 때때로 광둥어로 ‘乜野(mat je)’로 읽는데 이것도 일종의 훈독이라고 하였다.

25) 서양의 문자학에서는 레부스(Rebus)로 알려져 있다.

26) Zev Handel(2017: 19-20)에서는 음독, 훈독, 음가, 훈가에 대하여 각각 DAL(직접적으로 변용된 표의자, directly adapted logogram), PAP(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음자), phonetically adapted phonogram), SAL(의미론적으로 변용된 표어자, semantically adapted logogram), SAP(의미론적으로 변용된 표음자, semantically adapted phonogram)로 정리하고 있다.

27) 이것은 중국에서 ‘자루’를 뜻하는 ‘東’이 가차를 통해 ‘동쪽’을 뜻하는 글자가 되는 것과 같다.

(3ㄱ, 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훈주음종(訓主音從)이라고 하여 어휘형태소는 훈(訓)을 살려서 표기하고 문법형태소는 음(音)을 살려서 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예외가 자주 나타난다(김지오 2023). 그렇지만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휘형태소는 훈을 살려서 표기하고 문법형태소는 음을 살려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 양상을 보면, 어휘형태소는 독자를, 문법형태소는 가자를 써서 표기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²⁸⁾ 당장 ‘何如’에서 ‘如’는 훈가자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ㄷ)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毗(속격조사)’, ‘只(보조사)’처럼 단음절 문법형태소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표어자를 보조하여 독법을 지시하는 음성 보충소로 기능을 지닌 것이다. (4)의 ‘奪毗[앗]’에서 ‘毗’이 음성 보충소에 해당한다. 다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음성 보충소의 기능을 가진 글자가 반드시 하나의 자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음절 전체인 경우(예. 川理[나리])도 있다. 때로는 ‘人米’처럼 ‘사름-익’를 표기하는 데 어간말 자음과 처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표음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두는 향찰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자의 운용에 있어서 다른 면이 보인다.

(5) 가. 經之 成內 法者 楮 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弥 / 경의 이론 법은 닥나무 뿌리에 香水 뿌리어서 生長시키며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經之: 音讀字+訓讀字

成內: 訓讀字+訓假字

法者: 音讀字+訓讀字

楮根中: 訓讀字+訓讀字+訓讀字

香水: 音讀字+音讀字

散尔: 訓讀字+訓假字

生長令內弥: 音讀字+音讀字+訓讀字+訓假字+音假字/형태소 표시자

(5)를 볼 때, 이두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향찰과 비교하여 어휘형태소를 표기할 때 음독자가 자주 드러난다.²⁹⁾ 이것은 이두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한문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잡종언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남풍현 2000: 113). 둘째, 음성 보충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두가 향찰, 구결과 두드러지게 다른 면인데, 완전한 한국어 표기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구결은 한문에 의존적이라는 면에서 향찰, 이두와 구분된다.

(6) 가. 復 〃 1 五道 七 一切衆生 〃 有 七 ㄴ ㄹ ㅍ-훈 오-도-스 일-체-중-칭-이 잇-스-겨-며

28) 남풍현(2000:)에서 이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다.

29) 향찰의 예나 이두의 예 모두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작은 수의 샘플만 가지고 와서 이처럼 기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가 될 만한 샘플을 선정해서 가져온 것이므로 약간을 안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향후 본격적으로 통계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나. 復 ヌ 1 : 訓讀字+?訓讀字+音假字

五道 ㄷ : 音讀字+音讀字+音假字

一切衆生 ㄹ : 音讀字+音讀字+音讀字+音讀字+訓假字

有 ㄷ ㄴ ㄱ : 訓讀字+音假字+訓假字+音假字/형태소 표시자

(6)을 보면, 구결은 향찰, 이두와 다른 면이 드러난다. 첫째, 어휘형태소에 음독자를 쓰는 비율이 향찰보다 높다. 이것은 한문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음성 보충자가 사용되고 있다. 음성 보충자의 사용은 이두와 확연히 구분되도록 만든다.³⁰⁾

석독구결과 관련하여 더 논의할 만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점토석독구결을 문자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에서 다룬 문자의 개념, 즉 “언어의 음성을 시각적 기호로 옮기는 관습적 체계”에 우선 맞아야 한다. 언뜻 보아서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듯싶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 첫째, 문자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우선 표음문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점토석독구결은 대응되는 단위가 일정하지 않기에 어떤 종류의 문자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점과 선에 대응되는 단위가 음소에서 형태소, 통사적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부류의 문자는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점도의 유무이다.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도인데, 점도가 있었다면 점토석독구결의 점과 선은 전사 체계에 가까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자의 변용 기법을 바탕으로 향찰, 이두, 구결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분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3.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분류

차자표기를 문자론적으로 어떤 문자 체계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았다. 구결을 중심으로 차자표기의 문자 체계 분류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민현식(1995: 47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차자법이 ‘형태소 분석’을 기본으로 한 차자법이란 점에서 ‘形態素 文字’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어근, 어간과 같은 어휘형태소는 한자의 표의성을 주로 이용하고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문법형태소는 한자의 표음성을 주로 이용한 것이 일반적 원리인바 형태소 단위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여 그 형태소를 표기하고자 한” 것을 들었다. 이 주장의 관건은 문법형태소 표기에 형태소 표기자가 사용되었는지에 있다. 어휘형태소 표기자가 표어자임은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제 구결을 중심으로 문법형태소 표기에 형태소 표기자가 사용되었는지를 논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고유명 표기, 이두, 향찰과 대비되는 구결의 문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유명 표기, 이두, 향찰은 한자로만 표기되는 데 비하여, 구결은 한자와 구결자가 같이 쓰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처럼 한자와 구결자가 섞여서 쓰인다는 점에서 구결의 문자 체계는 일본의 문자 체계

30) 석독구결과 관련하여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점토석독구결을 문자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처럼 언뜻 보기에는 혼합 표기 체계(mixed writing system)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한자는 표어문자, 가나문자는 음절문자이고 구결도 이와 비슷하게 표어문자인 한자와 음절문자인 구결자가 섞여서 쓰이는 문자체계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구결자를 음절문자로만 정리하기에는 미진한 감이 있다.

구결자가 문법형태를 잘 반영하는 글자라는 점에서 구결자를 대상으로 차자표기에서 구결자가 형태소 표기에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석독구결의 구결자를 대상으로 한 문현수(2020)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표어성을 띠는 구결자”로 하나의 절을 구성하고 표어성을 띠는 구결자가 다양하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훈독자로 쓰인 구결자이다. 예로는 ‘ㅅ(<令)[히]’, ‘ㅅ[일]’, ‘及[밋]’가 있다. 둘째, ‘ㅅ[시]’처럼 언제나 원자인 ‘賜’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 쓰이는 글자가 있다. 이 경우에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 이외의 환경에서는 ‘ㅅ ㅅ’ 또는 ‘ㅅ’이 쓰인다. 셋째, 훈독자가 아닌 구결자들 중에도 표어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ㅅ’와 ‘ㅅ’는 모두 [리]라는 독음을 구결자로 음상의 차이가 없지만, ‘ㅅ’는 동명사어미 ‘-ㄷ’과 계사 ‘-이-’ 내지 주격조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할 때, ‘ㅅ’는 동명사어미 ‘-ㄷ’과 의존명사 ‘이’의 결합할 때 사용되어 그 용법이 구분된다. 이 밖에도 ‘尸’와 ‘乙’의 정연한 구분 등 다른 예도 많이 존재한다.

문현수(2020)에서 점검되지는 않았지만 ‘ㄷ’의 경우에는 주체존대 선어말어미로 사용된 예만 보인다는 점에서, ‘ㄷ’가 주체존대 선어말어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표기자로 굳어졌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ㄷ’를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은 모두 54개로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이것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음절구조를 선정하여 최대한 적은 글자만을 이용하여 표기하려는 고심의 결과물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석독구결의 구결자는 주로 어말에 오는 문법요소들이 지닌 음절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문자 체계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석독구결의 구결자 체계를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음절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인 것으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구결자가 표어자의 도움 없이 전면적으로 한국어를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라면 구결자를 초기 음절문자(proto-syllabary)로 파악하면 적당할 듯하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형태소 문자라는 민현식(1995)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듯하다. ‘ㅅ[시]’, ‘ㅅ[기]’, ‘ㅅ[리]’ 등의 음성 보충자나 다양한 용법을 지니는 ‘ㅅ[은]’, ‘ㅅ[이]’ 등은 형태소 문자를 주장하는 데 반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ㅅ[시]’, ‘ㅅ[기]’, ‘ㅅ[리]’은 음소를 표시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민현식(1995), 문현수(2020)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석독구결, 더 나아가 차자표기 문자 체계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쨌든 구결자가 형태소 표기와 밀접하게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구결자를 대체로 음절문자(syllabary) 정도로 뭉뚱그려 왔던 것에서 진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찰, 이두도 연구를 진행하면 문자의 운용 양상이 구결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향찰, 이두에 쓰인 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구결자 연구와 같은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4.4. 음성 보충소와 종성의 발견, 그리고 종성부용초성

한자를 차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종성의 표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구조가 다르고 한자가 음절을 단위로 표기되는 문자였기 때문에 종성의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음성 보충소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다.

그런데 종성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해당 한자의 종성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당 한자의 초성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종성을 표기하는 양상을 구결자로 대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용 2023ㄱ: 216).

<표 3> 구결자의 종성 표기 양상

종성 표기자	ㄱ(ハ), ㄴ(ㄱ), ㄷ(支), ㄹ(尸, 乙), ㅁ(音), ㅂ(邑), ㅅ(七), ㅇ(應)
해당 한자의 종성 사용	ㄴ(ㄱ), ㄹ(乙), ㅁ(音), ㅂ(邑), ㅇ(應)
해당 한자의 초성 사용	ㄱ(ハ), ㄹ(尸), ㅅ(七)

문현수(2018)에서는 이 글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해당 한자의 종성을 사용하는 글자의 특징적인 면으로 초성이 없고 핵모음이 [ㅡ]라는 것을 들었다. 둘째, 해당 한자의 초성을 사용하는 ‘ハ(ㄱ)’, ‘尸(ㄹ)’, ‘七(ㅅ)’은 원자가 각각 ‘只’, ‘尸’, ‘叱’로, 이들은 모두 고대국어 시기에 핵모임이 [ㅣ]인 한자들이라는 것이다.

초성 사용자인 ‘ハ’, ‘尸’³¹⁾, ‘七’은 ‘초성+중성’을 표기하는 음절자로 쓰이면서 동시에 종성만을 표기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초성과 종성에 통용되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석독구결은 고대 시기의 한국어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초성과 종성에 통용되는 글자의 사용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성+중성’을 표기하는 음절자로 초성을 표기하는 방법의 개발은 다른 문자문화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마야 문자, 고대 페르시아의 설형문자, 파스파 문자 등이 그 예가 된다.³²⁾ 이것들은 독자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차자표기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훈민정음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발견된다. 음절자의 초성이 종성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종성부용초성을 세종 당대의 발견으로 이해해 온 면이 있지만, 한국의 문자 전통에서는 이것이 일찍부터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말음첨기가 종성의 발견에 도움을 주었을 것 정도가 훈민정음의 창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예는 한국인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반절법을 넘어서는 사고를 통해

31) ‘尸’가 ‘리’로 읽히는 예로는 ‘昔尸/녀리’, ‘{吾}又尸/우리’, ‘世尸/누리’, ‘類尸/무리’가 있다.

32) 이 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2023: 209-215)을 참고할 수 있다.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이제까지의 발표로 같음

참고문헌

- 강옥미(2009), 『언어여행』, 태학사.
- 金永旭(2003), 「百濟 吏讀에 대하여」, 『口訣研究』 11, 125-151.
- 金永旭(2004), 「漢字·漢文의 韓國的 受容」, 『口訣研究』 13, 65-97.
- 金永旭(2007), 「中原 高句麗碑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18, 43-65.
- 金永旭(2008),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口訣研究』 19, 171-189.
- 김문경(2023), 『한문과 동아시아』, 김용태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1997), 『신국어학사』, 일조각.
-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옥(2011), 「三國時代 吏讀에 대한 基礎的 論議」, 『口訣研究』 27, 57-86.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유범(2009),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법에 대한 문자학적 조명과 교육 방안의 모색」, 『인간과 문화 연구』 1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147-172.
- 김유범(2010), 「고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를 통해 본 한국의 차자표기법: 소리보조글자와 말음첨기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광명: 도서출판 경진, 503-514.
- 김종훈(2014), 『韓國固有漢字研究』, 개정증보판; 보고서.
- 김지오(2023), 「향찰의 문자표기론적고찰」, 『훈민정음창제 이전의 문자생활과 불교계 논문 발표집』, 통도사추계학술대회.
- 김하수·연구동(2015), 『문자의 발달』,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
- 남풍현(1989), 「한국의 고유한자」,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원, 96-109.
-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데이비드 바넷 루리(2016), 「세계의 문자사와 『만엽집』」, 이병호 역, 『목간과문자』 16, pp. 185-208.
- 로이 해리스(1995), 『문자의 기호들』, 김남시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루시싱(2017), 『한자 전파의 역사』, 전향란 옮김, 민속원 아르케북스.
- 문현수(2020),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71-98.
- 민현식(1995), 「文字論과 借字法」,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朴盛鍾(2002), 「吏讀에서의 訓讀에 대하여」, 『口訣研究』 8, 129-144.
- 朴盛鍾(2005), 「韓國漢字의 一考察」, 『口訣研究』 14, pp. ????
- 배보은(2013), 「문자론 용어와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徐鍾學(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 출판부.
- 서종학(2011), 「吏讀의 개념과 성격」, 『口訣研究』 27, 27-55.
- 송기중(1996), 「세계의 문자와 한글」, 『새국어생활』 6(2), 1996, pp. 65-83.

- 송기중(1997), 「동북아시아 역사상의 제문자와 한글의 기원」, 『진단학보』 84, 1997, pp. 203-226.
- 송기중(1997), 「借字表記의 文字論的 성격」, 『새국어생활』 7(4), 1997, pp. 5-29.
- 신중진(1998),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 -음절말 자음 첨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 85-114.
-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앨버틴 가우어(1984), 『문자의 역사』, 강동일 옮김, 도서출판 새날, 1984.
- 양주동(1965), 『고가연구』, 일조각, 1965.
- 연규동(2014), 「문자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어학』 72, pp. 155-181
- 연규동(2016), 「세계에서의 훈민정음 연구」, 『국어학』 77, pp. 377-399.
- 이건식(1995), 「鄉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133-160.
- 이건식(1995), 「鄉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이건식(2021), 『한국 고유한자의 구성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李基文(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65-78.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1998.
- 李崇寧(1955), 「新羅時代 表記法 體系에 關한 試論」, 『論文集』 2, 서울대.
- 李丞宰(1989), 「借字表記 研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的 研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203-239.
-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이승재(2015), 「훈민정음 이전의 우리 문자 이름」, 『국립한글박물관 제2차 문자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글과 동아시아의 문자』, 295-
- 이용(2013), 「지정사의 개념과 차자 표기 지정문자설의 문제에 대하여」, 『구결연구』 30, pp. 107-138.
- 이용(2017), 「한국 차자표기와 아카드문자 체계의 비교론적 고찰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와 아카드의 수메르문자 차자표기가 보이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80, pp. 141-164.
- 이용(2021), 「베트남의 한자 전파와 쓰임의 발전」, 『구결연구』 47, pp. 151-189.
- 이용(2023),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초성·중성 통용자」, 『구결연구』 50, pp. 203-225.
- 이용(2023), 「조선후기 한국 고유한자의 문자론적 이해 -인명을 중심으로-」, 『제240회 韓國語文教育研究會 全國 學術大會 발표 논문집』.
- 이익섭(1991),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정광(2012),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역락.
- 쿨마스(2016), 『문자의 언어학』,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헨리 로저스(2018), 『언어학으로 풀어 본 문자의 세계』, 이용 외 옮김, 역락.
- 황선엽(2007), 「삼국유사와 균여전 향찰의 표기자 비교」, 『국어학』 51, 280-311.
- 西田龍雄(1997), 「西夏文字の特性と西夏語の復元/西夏文字의 特性과 西夏語의 復元」,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口訣學會編, 태학사, 149-172.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大學.
- 下野六郎(1994), 『文字論』, 三星堂.

- Boltz, William G. (1994),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New Have, Conn.: American Oriental Society.
- Coblin, W. South (2007), *A Handbook of 'PHAGS—PA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oulmas, Florian (1996),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Writing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lmas, Florian (2003), *Writing systems: An introduction to their linguistic analysi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els, Peter T. & Bright. W. (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diner, Alan H. (1916), "The Egyptian origin of the Semitic alphabe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 1-16.
- Gelb, I. J. (1963), *A Study of Writing*, Chicago, Rev.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연구동 역(2013), 『문자의 원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Handel, Zev (2019), *Sinography*, Leiden: Brill.
- Kane, Daniel (2009), *The Kitan language and script*, Leiden: Brill.
- Kiyose, Gisaburō N. (1977), *A study of the Jurchen language and scribe*, Kyoto: Hōritsu-bunka-sha.
- Sampson, G. (1985), *Writing systems*, London: Hutchinson & Co. [신상순 역(2000), 『세계의 문자 체계』, 한국문화사.]
- Shimunek, Andrew (2014), "A new decipherment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of the Kitan-Chinese bilingual inscription of 1134 A.D.",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 Vol 67 (1), 97-118.
- Unger, J. M., DeFrancis, J.(1995), "Logographic and Semasiographic Writing Systems: A Critique of Sampson's Classification", Taylor, I., Olson, D.R., eds, *Scripts and Literacy. Neuropsychology and Cognition*, vol 7.